

사람 중심의 사회복지실천을 위한

2024년 지역주민 욕구조사 보고서

2024 지역주민 욕구조사 보고서

하남시종합사회복지관

발간사

어느덧 하남시종합사회복지관이 개관한 지 20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하남시민 누구나 복지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20년 동안 현장에서 복지를 실천하며 자연스럽게 많은 경험과 데이터를 쌓았고, 전문성과 노하우를 함양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안주할 수 없습니다. 복지사업은 늘 어렵습니다. 우리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상은 늘 변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회는 빠르게 그리고 다양하게, 복합적인 형태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20년 전만 해도 우리는 ‘스마트폰’이라는 물건을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스마트폰이 없는 일상을 상상할 수 없습니다.

‘스마트폰’은 우리에게 한 손으로 세상을 보고 모든 일을 처리할 수 있는 편리함을 주었지만, 기기 활용이 어려운 어르신들은 변화되는 환경 속에서 자연스럽게 ‘디지털 소외 계층’이 되었습니다.

이렇듯 ‘변화’에는 예기치 못한 상황이나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안주가 아니라 변화를 좇고, 대응하고, 앞서 나가야 합니다. (하남시종합사회복지관은 스마트기기(스마트폰, 키오스크 등) 활용이 어려운 어르신들을 위해 ‘내가 여는 스마트세상’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하남시종합사회복지관은 우리 사회의 변화를 한순간도 놓치지 않기 위해, 그리고 시민이 느끼는 욕구와 문제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끊임없이 전문성과 역량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2년마다 진행되고 있는 ‘욕구 조사’ 역시 그 일환입니다.

우리 복지관의 미션인 ‘사람이 중심이 되는 복지’를 실천하기 위해 주민의 욕구를 파악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하남시와 주민의 목소리를 귀담아들을 때, 비로소 올바른 복지서비스의 형태가 만들어집니다. 우리가 욕구 조사를 진행하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이번 조사에는 535명의 지역주민이 귀한 시간을 내어 참여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이 담긴 이번 조사 결과는 향후 ‘주민에 의해 만들어지는 복지, 주민을 위한 복지’를 위한 귀중한 자료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시간을 할애해 설문 조사에 참여해 준 모든 분께 감사드리며 지난 한 달 동안 주민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동분서주 움직인 우리 직원들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2025년 2월

하남시종합사회복지관장 김혜성

Contents

I. 서론

1. 조사의 필요성	1
2. 조사개요	2
3. 조사방법	4

II. 지역사회 특성

1. 지리적 특성	9
2. 하남시 인구 현황	10
3. 인구학적 특성	20

III. 욕구조사 분석

1. 응답자의 일반현황	25
2. 복지관에 대한 일반적 질문	
가. 복지관 인지도	28
나. 복지관을 알게 된 경로	30
다. 복지관 이용 경험	32
라. 복지관을 이용하는 이유	35
마. 이용을 중단하거나 이용한 적이 없는 이유	39
바. 복지관 SNS 채널 인지 여부	41
사. 복지관 SNS 채널에서 다루었으면 하는 정보	43
3. 지역사회와 주민 활동	
가. 주민이 바라는 지역사회의 모습	45
나. 지역사회 변화를 위한 주민의 역할과 활동의 필요성	48
다. 주민의 역할과 활동이 필요하지 않은 이유	50
라. 변화를 위해 필요한 주민 활동	52
마. 주민 활동 참여 의향	55

4. 나눔의 실천: 후원과 자원봉사	
가. 자원봉사활동 경험	58
나. 자원봉사를 하는 주된 이유	60
다. 자원봉사활동을 하는(경험이 없는) 이유	62
라. 활동하고 싶은 자원봉사의 유형	64
마. 후원(기부) 참여 경험	66
바. 후원을 통해 기대하는 변화	67
사. 후원처에 대한 정보 습득	68
아. 지역사회와 주민에게 필요한 후원금·품의 유형	69

5. 나와 지역사회에 필요한 복지서비스	
가. 우리 사회에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대상	71
나. 주민이 기대하는 하남시종합사회복지관의 역할	73
다. 본인 혹은 가족 구성원이 겪고 있는 문제와 어려움	77
라. 나 혹은 가족에게 필요한 복지서비스	79
마. 어려움이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82
바. 어려움이나 문제 해결을 위한 복지관 이용 여부	85
사. 복지관 이용을 통해 바라는 변화	86

6. 나와 가족에게 필요한 여가·교육·문화 프로그램	
가. 나 혹은 가족에게 필요한 프로그램	88
나. 선택한 프로그램 개설시 참여 의향	90
다. 기타 복지관에서 운영했으면 하는 프로그램(주관식)	90

IV. 결론 및 제언	93
-------------	----

V. 부록

2024 지역주민 욕구조사 설문지	113
--------------------	-----

|
-

서론

1. 조사의 필요성
 2. 조사개요
-

I. 서론

1. 조사의 필요성

빠르게 변화되고 있는 환경 속에서 개인의 욕구와 문제는 다양하고 복합적인 형태로 표출되고 있다. 지역사회와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존재하는 사회복지관은 변화에 발 빠르게 대응하고 주도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춰야 한다. 이를 위해 가장 선행되어야 할 것은 지역사회를 이해하고 구성원의 욕구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다.

그러나 △경제적 상황, 연령, 가구 특성, 주거환경, 관계망 등 개별적 특성에 따라 나타나는 욕구 유형은 광범위하며 △대상의 욕구를 선분리 일반화할 수 없고 △지역주민이 기관에 방문하여 개별적인 욕구나 정보를 직접적으로 제공하는 사례는 적어 서비스에 즉각적으로 반영하거나 문제에 대응하기에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욕구 조사는 위 문제를 해결하기 가장 좋은 수단이다. 주민에게 질문하고 의견을 듣는 단순한 과정 같지만, 개별적인 욕구를 효과적으로 파악하고 복지사업의 방향성을 수립하는 매우 효율적인 방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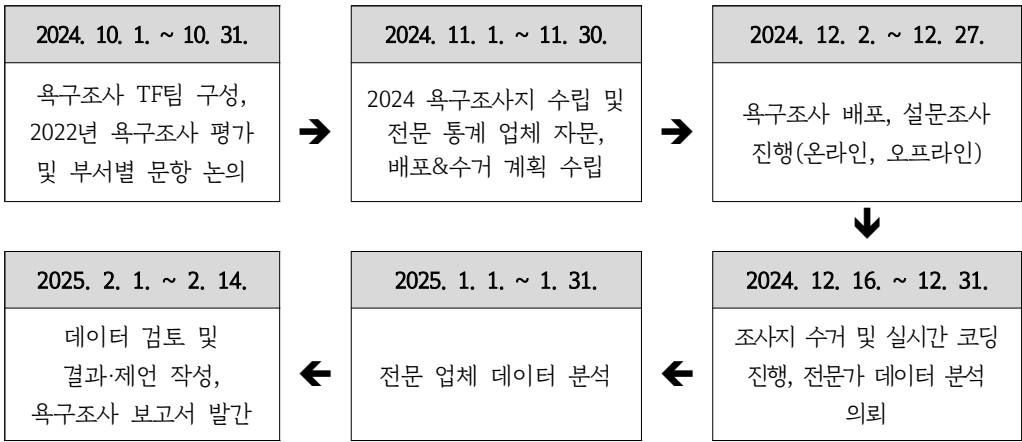
조사를 통해 얻은 데이터는 복지서비스 근거가 된다. 서비스 계획, 진행, 평가 등 모든 과정에 활용하여 사업의 질적 발전을 도모할 수 있으며 주민과의 전략적인 협력체계를 마련하거나 인적·물적 자원 확대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즉, 욕구 조사는 주민의 의견을 묻는 간단한 조사가 아니라 지역사회와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초석이라고 할 수 있다.

조사 기관인 하남시종합사회복지관은 ‘사람 중심의 복지서비스’를 지향하며 이는 모든 사업수행에서 가장 우선되는 가치이다. 이 가치를 실현하고, 기관의 미션에 근접하기 위해 주민의 의견을 귀담아듣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에 2024년 욕구 조사를 실시하고, 수렴된 의견은 향후 사업추진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주민에게 꼭 필요한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개발하며 하남시와 복지관의 정체성과 가치에 부합되는 사회복지를 실천하고자 한다.

2. 조사개요

- 가. 조사명: 사람 중심의 사회복지실천을 위한 2024 지역주민 욕구 조사
- 나. 기간: 2024. 10. 1.(화) ~ 2025. 02. 14.(금)
- 다. 대상: 하남시에 거주하는 지역주민
- 라. 조사목적: 지역사회와 주민의 욕구를 담은 맞춤형 사업계획 수립
- 마. 목표: 지역주민이 느끼는 실질적인 문제와 욕구, 기타 복지증진을 위한 의견 수렴
- 바. 조사내용: 첨부 문서 참고
- 사. 조사과정



아. 조사 방법

구분	내용	참여 인원
온라인 조사	1. 네이버폼을 활용하여 온라인 설문조사지 제작 2. 카카오톡 채널 친구(1,696명)에게 설문조사 안내 메시지 발송 3. 복지관 홈페이지 및 SNS 채널에 설문조사 링크 게시 4. 복지관 봉사단, 이용자 대상 욕구조사 실시 5. 홈페이지 내 욕구조사 참여링크 게시 및 참여 요청	382명
직접 조사 (인터뷰)	1. 자기 기재가 어려운 대상은 1:1 인터뷰 진행 2. 재가복지, 경제적지원 서비스 대상(이용)자 3. 노인일자리 지원사업 참여자 4. 사회교육, 장애아재활치료교육센터 이용 5. 복지관 봉사단, 지역주민 동아리 등 주민조직 6. 1층 안내데스크 및 2~3층 게시대를 통한 자발적 참여	153명

자. 변수 설명

이번 조사는 지역주민의 욕구를 세부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빈도분석에 그치지 않고 문항별로 분석 변수를 두었으며, 변수에 대한 설명은 아래 표와 같음.

변수명	설명	적용문항															
연령별 (생애주기 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령별 세부적인 복지 욕구를 알아보기 위함. - 10세 별 조사를 시행했으나 효율적으로 데이터를 분석하기 위해 5개 범주로 생애주기를 나누어 분석을 진행함. <table border="1" style="margin: 10px auto;"> <thead> <tr> <th>연령대</th> <th>생애주기 구분</th> </tr> </thead> <tbody> <tr> <td>19세 미만</td> <td>아동·청소년</td> </tr> <tr> <td>20~29세</td> <td>청년</td> </tr> <tr> <td>30~39세</td> <td rowspan="2">중년</td> </tr> <tr> <td>40~49세</td> </tr> <tr> <td>50~59세</td> <td rowspan="2">장년</td> </tr> <tr> <td>60~64세</td> </tr> <tr> <td>65~70세</td> <td rowspan="2">노년</td> </tr> <tr> <td>70세 이상</td> </tr> </tbody> </table> <p style="text-align: right; font-size: small;">※생애주기 범주는 e-나라도움의 생애주기를 참조함.</p>	연령대	생애주기 구분	19세 미만	아동·청소년	20~29세	청년	30~39세	중년	40~49세	50~59세	장년	60~64세	65~70세	노년	70세 이상	1~29번
연령대	생애주기 구분																
19세 미만	아동·청소년																
20~29세	청년																
30~39세	중년																
40~49세																	
50~59세	장년																
60~64세																	
65~70세	노년																
70세 이상																	
거주지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남시는 지역의 형태에 따라 원도심, 신도심, 기타지역으로 구분함. - 복지관의 관할구역인 원도심 거주 주민의 욕구를 보다 세부적으로 이해하고, 다른 지역의 값과 비교·분석하기 위함. - 기타지역인 천현, 감북, 초이, 춘궁동의 경우 응답 건수가 적어 정확한 분석에 어려움이 있기에 ‘원도심’의 데이터로 합함. <table border="1" style="margin: 10px auto;"> <thead> <tr> <th>행정동</th> <th>도심형태</th> </tr> </thead> <tbody> <tr> <td>신장1~2동</td> <td rowspan="6">원도심</td> </tr> <tr> <td>덕풍1~3동</td> </tr> <tr> <td>천현동</td> </tr> <tr> <td>감북동</td> </tr> <tr> <td>초이동</td> </tr> <tr> <td>춘궁동</td> </tr> <tr> <td>미사1~3동</td> <td rowspan="3">신도심</td> </tr> <tr> <td>위례동</td> </tr> <tr> <td>감일동</td> </tr> </tbody> </table>	행정동	도심형태	신장1~2동	원도심	덕풍1~3동	천현동	감북동	초이동	춘궁동	미사1~3동	신도심	위례동	감일동	1~29번		
행정동	도심형태																
신장1~2동	원도심																
덕풍1~3동																	
천현동																	
감북동																	
초이동																	
춘궁동																	
미사1~3동	신도심																
위례동																	
감일동																	
가구원 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구 형태별 복지관 이용 여부, 필요한 서비스를 알아보기 위한 변수 - 4개 범주(1인, 2인, 3인, 4인 이상 가구)로 조사·분석을 진행함. 	3-1번															

변수명	설명	적용문항
거주기간	- 거주기간에 따른 복지관(서비스) 인식, 참여도, 이용 여부를 알아보기 위한 변수 - 5개 범주(5년 미만, 5~10년, 10~15년, 15~20년, 20년 이상) 조사·분석을 진행함.	1, 3-1, 7, 10, 12, 15번
보호구분	- 보호 구분별 복지서비스 욕구를 세부적으로 알아보기 위함. - 4개 범주(저소득, 차상위, 수급자, 해당 없음)로 조사·분석을 진행함.	19~25번
가족구성	- 가족 구성별 복지서비스 욕구를 세부적으로 알아보기 위함. - 1인 가구, 부부, 부부+자녀 등 7개 문항으로 조사를 진행함.	21~25번
장애여부	- 장애(본인) 혹은 장애돌봄 가정의 복지서비스 및 여가·교육·문화 프로그램 욕구를 알아보기 위함.	21~27번

3. 조사방법

가. 조사 설계

구 분	하남시종합사회복지관 인식조사
모집단	하남시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성인 남, 여
조사 도구	구조화된 설문지
조사 방법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온라인 및 대면 조사
유효 표본	535명
조사 기간	2024년 11월 01일 ~ 2024년 12월 31일
조사 기관	하남시종합사회복지관
분석 방법	SPSS Statistic 26 / 빈도분석, 교차분석, 다중응답 분석

나.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 표본 오차의 최소화를 위해 설문 과정에서의 비논리적 흐름 및 오류를 방지하고, 데이터 추출 후 문항 간 논리검사를 통해 불성실 데이터를 재조사하여 데이터의 유효성을 높임.
- 최종 검증된 데이터는 SPSS for Windows(통계 분석 패키지) 26.0을 통해 기초분석 후 심층 분석을 실시함.
- 빈도 분석 : 도수분포나 막대그래프를 이용하여 측정된 변수들이 지닌 분포의 특성을 알게 해줌. 이러한 분포의 특성은 빈도, 평균, 표준편차 등과 같은 수치로 파악할 수 있음.
- 교차 분석 : 변수 사이의 상관관계를 파악하는 분석기법으로 지정된 두 변수에 교차분석표를 보여주고, 서로 다른 변수에 대해 각각의 범주들이 어떠한 분포도 되어 있는지, 두 변수가 서로 독립인지를 검정할 수 있는 카이제곱 통계량 등 두 변수 간 연관성 파악함.
- 세부 응답 항목별로 빈도와 비율을 제시하였는데, 비율의 총합은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제시함에 따라 세부 비율의 총합이 100.0%에서 소수점 이하 자리에서 초과하거나 부족할 수 있음을 참고 바람.



II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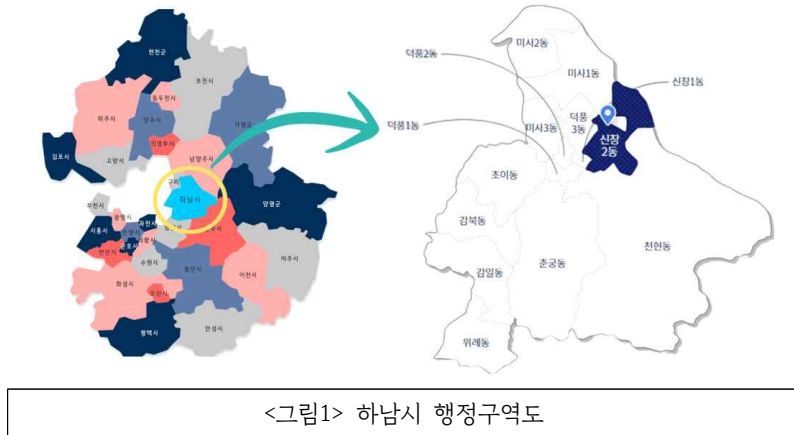
지역사회 특성

1. 지리적 특성
2. 하남시 인구 현황
3. 인구학적 특성
4. 살고 싶은 도시, 도약하는 하남



II. 지역사회 특성

1. 지리적 특성



<그림1> 하남시 행정구역도

하남시는 경기도 중동부에 있는 도시로 2024년 10월 기준 약 329,498만 명의 인구가 거주하고 있으며 14개의 행정동으로 구성되어있다.

2013년까지는 인구가 15만 명이 넘지 않는 중소도시였으나 2014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미사, 감일, 위례 등 신도시 지역 개발이 본격화되면서 많은 인구가 유입되었다. 현재는 교산지구 개발이 진행되고 있어 2035년에는 인구가 약 43만 명에 이를 것으로 분석된다.

지리적인 위치로는 서울 동쪽에 인접해 강동구와 송파구와 가까우며 경기도의 중심부에 자리 잡고 있다. 전체면적은 약 93km²로 경기도 31개 시군 중 22번째로 크며 하남시 내에선 천현동 면적(34.92km²)이 가장 크다.

서울과 하남시청을 연결하는 지하철 5호선이 개통되어 있으며, 중부고속도로와 향후 개통될 서울~세종 고속도로가 인근에 있어 교통 접근성이 우수하다.

도시의 형태는 과거 하남시청을 중심으로 형성된 도심(현 신장2동)에 생활환경이 조성되었고 그 외 지역은 농촌으로 이루어진 도농복합지역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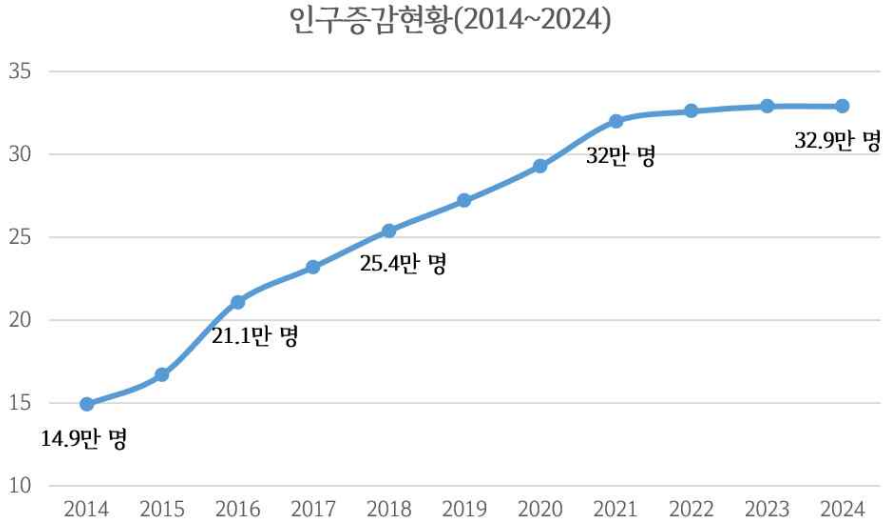
신도시 개발이 본격화된 현재는 신도시-원도시-외곽지역으로 생활환경이 분산되었다. 앞으로는 1도심(구도심), 2부도심(미사, 교산), 3지구중심(감일, 위례, 천현)으로 생활권이 재편성될 것으로 예상된다.¹⁾

조사 기관이 위치한 신장2동은 구도심으로 하남시청과 인접해 있다. 오래된 도심지역이라 신도시와 비교해 아파트와 생활·편의시설, 상가, 다중이용시설 등이 노후화되었으나 인구밀도는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1) 2040년 하남 도시기본계획 보고서, 하남시(2023. 6.)

2. 하남시 인구현황

가. 일반현황



<그림2> 2014~2024 하남시 인구증감현황

2024년 10월 기준 하남시의 인구는 32만 9,498명으로 2023년 329,861명 대비 363명 감소하였다. 이는 미미한 수준이지만 2014년 이후 처음으로 인구가 줄어든 사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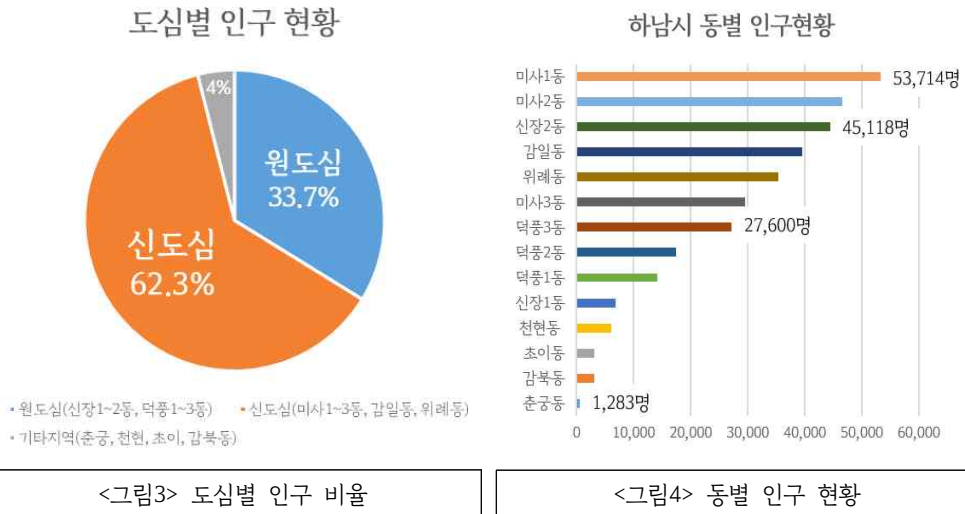
약 10년 동안 지속한 가파른 인구 증가 추세가 소강 국면에 접어든 것으로 보이지만, 인구 감소를 우려할 수준은 아니다. 그동안 하남시의 인구가 가파르게 증가한 주된 배경은 도시 개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미사신도시에 이어 최근 감 일지구와 위례 신도시가 현재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으며 계획되었던 주택공급 역시 목표치에 근접했기 때문에 일시적인 둔화 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분석된다.

오히려 하남시는 앞으로 인구가 지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바라보고, 2035년 정점을 이룰 것으로 분석했다. 이는 원도심(신장동, 덕풍동 일대)을 중심으로 주거 구역 재개발이 이루어지고 있고, 미사섬과 본격적인 개발에 착수한 교산지구(계획 인구 약 7만 8천여 명)에 대한 분석값으로 2035년에는 약 42만 6천여 명에 근접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²⁾

지난 10년(2015~2024년 10월) 동안 하남시 인구 증가율은 7.05%로 경기도 31개 시·군 중 가장 높은 인구 증가율을 보여주고 있다.

2) 하남시 2040년 도시기본계획(수정안)

나. 도심(구역) 및 행정동별 인구 현황



거주지를 원도심, 신도심, 기타지역으로 구분³⁾하여 인구분포를 살펴보면(그림2) 신도심에 거주하는 인구는 204,890명으로 하남시 전체 인구의 62%를 차지한다. 원도심은 111,204명(33.7%), 그 외 지역에 약 1만 3천여 명(약 3.9%)이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과 비교할 때 원도심은 인구는 증가(911명)했으며 신도심은 397명, 기타지역은 877명이 감소했다.

행정동별로 살펴보면(그림2) 미사1동(53,714명), 미사2동(46,585명) 그리고 복지관이 위치한 신장2동(45,118명) 순으로 거주 인구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적은 곳은 춘궁동(1,283명), 감북동(3,018명), 초이동(3,078명) 순으로 나타났다.

전체 14개 동 중 4개 동(덕풍3동, 감북동, 감일동, 위례동)에서만 인구가 증가했으며 그 중 덕풍3동이 2023년 대비 증가(2,490명) 폭이 가장 컸다.

해당 동의 인구 증가가 두드러지는 이유는 2024년 3월에 완공된 980세대의 아파트 입주가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입주가 시작되는 달부터 5월까지 약 2,044명이 증가함.)

인구가 가장 큰 폭으로 감소한 동은 복지관이 위치한 신장2동(655명)이며 다음으로 덕풍2동(598명), 춘궁동(570명)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원도심 내 재개발로 인한 이동과 주택 지원(행복주택, 임대주택 등)이 영향을 주었다고 판단된다.

3) 세 개 구역은 하남시 2040년 도시계획에서 사용된 원도심-신도심-기타지역 구분을 따름.

다. 연령(5세)별 인구 현황

구분	인구수(명)	남(명)	여(명)	2022년 현황	2022년 대비 증감폭(명)
연령(5세)	329,498	161,778	162,075	323,853	5,645
0~4세	11,386	5,916	5,470	13,273	▲1,887
5~9세	17,535	8,996	8,539	18,979	▲1,444
10~14세	18,143	9,120	9,023	16,813	1,330
15~19세	14,314	7,241	7,073	12,938	1,376
20~24세	14,541	7,298	7,243	15,767	▲1,226
25~29세	20,316	9,945	10,371	21,362	▲1,046
30~34세	24,904	12,268	12,636	24,527	377
35~39세	25,820	12,840	12,980	28,069	▲2,249
40~44세	32,885	16,580	16,305	32,893	▲8
45~49세	27,770	14,338	13,432	26,312	1,458
50~54세	26,330	13,625	12,705	25,072	1,258
55~59세	22,653	11,322	11,331	21,447	1,206
60~64세	22,650	10,929	11,721	22,612	38
65~69세	19,641	9,439	10,202	17,103	2,538
70~74세	12,724	6,119	6,605	11,391	1,333
75~79세	8,715	4,364	4,351	7,222	1,493
80~84세	5,159	2,284	2,875	4,642	517
85세 이상	4,012	1,156	2,856	3,431	581

<표1> 연령(5세)별 인구 현황

연령(5세) 별 인구 현황을 살펴보면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은 61,378명 ▲청년(20~39세) 85,581명 ▲중·장년(40~64세) 132,288명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50,251명으로 집계되었다.

2022년 욕구조사 시점과 비교하면 아동·청소년 625명, 청년은 4,144명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고 중장년은 3,952명이 증가했다. 눈여겨볼 것은 65세 이상 노인 인구의 증가 폭인데 2022년 대비 6,462명(14.7%) 증가했다.

연령 특성에 따라 분류된 범주로 살펴보면 핵심생산인구(25~49세)는 146,236명으로 집계되었으며 베이비부머(50~69세) 91,274명으로 집계되었다. 하남시 출생아 수는 2,021명으로 5년 전인 2018년(1,892명) 대비, 129명 늘어나 경기 과천시(318명)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증가 폭으로 나타났다.⁴⁾

라. 하남시 세대수 당 인구 추이

구분(명)	인구(명)	주민등록 세대수(명)	세대수 당 인구(명)
2015	166,713	66,797	2.50
2016	211,101	84,289	2.50
2017	232,487	93,741	2.48
2018	254,415	105,832	2.40
2019	272,455	115,792	2.35
2020	293,452	128,774	2.28
2021	320,087	138,764	2.31
2022	326,059	140,415	2.32
2023	329,861	141,764	2.33
2024	329,498	141,576	2.33
연평균 증가율(%)	7.05%	7.8%	2.33%

<표2> 세대수(가구) 당 인구 추이

하남시의 가구당 인구 추이를 살펴보면 2024년에는 2.33명으로 2022~2023년과 비교할 때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10년간의 변화를 보면, 2015년(2.5명)이 가장 높았고 2020년 2.28명까지 감소한 뒤, 2021년 2.3명대로 반등하여 현재까지 유사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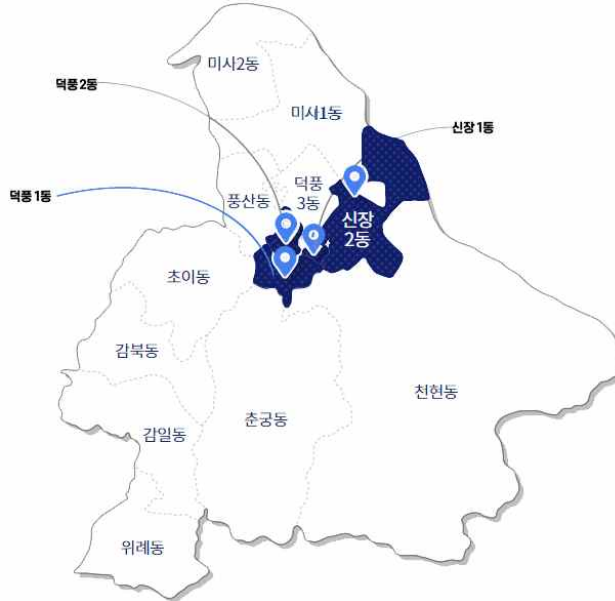
가구당 인구가 감소하는 이유는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이는데 결혼을 미루거나 혼자 사는 삶을 선호하는 1인 가구 증가, 출생률의 저하, 신도시를 중심으로 유입된 청년 1인 가구의 증가 등이 주요 요인으로 분석된다.

경기도 전체 평균인 2.26명보다 0.07명 높으며, 31개 시·군 중에서는 세대수와 가구당 인구 비율 모두 8번째로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4) 통계청 전국 출생아 수 증가율(2023 집계 데이터)

마. 원도심, 신도심의 인구 구성 비교

1) 원도심(신장1, 2동, 덕풍1~3동) 인구 현황



<그림5> 하남시 구도심 행정구역도

행정구역	인구수			2022년 인구(명)	2020년 대비 증감(명)
	계(명)	남(명)	여(명)		
합 계	111,204	55,350	55,854	111,605	▲401
신장1동	6,893	3,576	3,317	6,716	198
신장2동	45,118	22,231	22,887	46,346	▲1,127
덕풍1동	14,168	7,146	7,022	15,036	▲744
덕풍2동	17,425	8,742	8,683	18,553	▲1,016
덕풍3동	27,600	13,655	13,945	25,312	2,288

<표3> 원도심 인구 현황

하남시의 원도심은 신장1~2동, 덕풍1~3동으로 구성되어있으며 하남시청을 중심으로 생활권이 조성되어 있다.

인구는 총 111,204명으로 하남시 인구의 33.4%가 거주하고 있으며, 5개 동 중 신장2동 인구가 45,118명으로 가장 많고 덕풍3동, 덕풍2동, 덕풍1동, 신장1동 순으로 주민이 거주하고 있다.

원도심 인구는 매년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며 2022년 욕구조사 시점과 비교하면 401명이 감소했다. 이러한 추세는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하남시에서는 2035년 원도심 인구가 9만 1천여 명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2) 원도심, 신도심 내 연령별 인구 현황

구분	원도심 (신장1~2동, 덕풍1~3동)		신도심 (미사1~3동, 감일, 위례동)		하남시 전체	
	인구수(명)	비율(%)	인구수(명)	비율(%)	인구수(명)	비중(%)
합 계	111,204	33.7	204,890	62.2	329,498	100.0
0~4세	3,033	2.7	8,155	4.0	11,386	3.5
5~9세	3,821	3.4	13,511	6.6	17,535	5.3
10~14세	4,213	3.8	13,643	6.7	18,143	5.5
15~19세	4,186	3.8	9,814	4.8	14,314	4.3
20~24세	5,075	4.6	8,972	4.4	14,541	4.4
25~29세	6,651	6.0	12,834	6.3	20,316	6.2
30~34세	7,841	7.1	16,083	7.8	24,904	7.6
35~39세	7,587	6.8	17,457	8.5	25,820	7.8
40~44세	8,647	7.8	23,411	11.4	32,885	10.0
45~49세	7,716	6.9	19,292	9.4	27,770	8.4
50~54세	9,131	8.2	16,101	7.9	26,330	8.0
55~59세	8,905	8.0	12,307	6.0	22,653	6.9
60~64세	10,016	9.0	11,076	5.4	22,650	6.9
65~69세	9,242	8.3	8,977	4.4	19,641	6.0
70~74세	6,068	5.5	5,781	2.8	12,724	3.9
75~79세	4,400	4.0	3,756	1.8	8,715	2.6
80~84세	2,696	2.4	2,065	1.0	5,159	1.6
85세 이상	1,976	1.8	1,655	0.8	4,012	1.2

<표4> 원도심-신도심 5세 별 인구 현황

원도심과 신도심의 연령(5세)별 인구비를 살펴보면 원도심은 ‘60~64세’ 인구가 9%로 가장 많았고, ‘65~69세’ 8.3%, ‘50~54세’ 8.2%, ‘55~59세’ 8% 순으로 많았다.

신도심은 ‘40~44세’가 11.4%로 가장 많았으며 ‘45~49세’ 9.4%, ‘35~39세’ 8.5% 순으로 많았다.

원도심의 ‘19~39세’ 인구 비율은 27.9%, 신도심은 32.5%며 ‘50세 이상’은 원도심 47.2% 신도심 30.1%로 신도심의 연령대가 더욱 젊은 것을 알 수 있다.

원도심의 경우 노령화가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2022년 육구조사 시점 당시 65세 인구 비율은 19.1%였으나 현재는 21.9%로 2.8%(3,058명) 증가했으며 ‘60~64세’ 인구가 많아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

구분	원도심	신도심	하남시 전체	경기도	경기도 화성시
평균연령	45.8세	38.5세	41.5세	42.6세	39.3세

<표5> 하남시-경기도 평균연령 비교

원도심의 평균연령은 45.8세로 하남시(41.5세) 및 경기도(42.6세) 보다 높으며 경기도 31개 시·군과 비교하면 7번째로 높다.

반면에 신도심은 38.5세로 원도심과 약 7세의 차이가 나며 경기도에서 평균연령이 제일 어린 화성시보다도 젊은 것을 알 수 있다.⁵⁾

5) 경기데이터드림, 평균연령 집계 현황, 2024. 10.

바. 행정동별 기초생활수급권자 현황

행정구역	합계		일반수급자			2022년 수급자(명)
	가구	수급권자(명)	일반(명)	조건부(명)	특례(명)	
합 계	6,468	8,498	7,571	629	111	7,311
하남시	118	118	2	0	0	133
천현동	162	211	176	14	0	243
신장1동	295	378	351	18	8	306
신장2동	408	541	505	32	9	453
덕풍1동	313	414	366	40	4	367
덕풍2동	704	900	807	83	7	799
덕풍3동	774	1,211	1,049	138	9	986
감북동	56	77	72	2	19	51
감일동	743	951	862	79	1	792
위례동	72	86	81	3	7	49
춘궁동	82	86	80	4	0	110
초이동	87	106	97	6	0	89
미사1동	844	1,149	1,062	76	0	890
미사2동	1,655	2,048	1,887	120	10	1,915
미사3동	155	222	174	14	37	128

<표6> 행정동별 기초생활수급자 현황

2024년 하남시에 거주하는 기초생활수급권자는 총 8,498명이며 전체 인구의 2.6%를 차지하고 있다. 2022년(7,311명) 대비 1,187명(16.2%)이 증가했으며 매년 증가하는 추이를 보인다.

행정구역별로 살펴보면 신도심(미사1~3동, 감일동, 위례동)에 52.4%(4,456명)가 거주하고 있으며 원도심 및 그 외 지역에 4,042명이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은 수급자가 거주하는 행정동은 미사2동(2,048명)이며 다음으로 덕풍3동(1,211명), 미사1동(1,149명), 감일동(951명), 덕풍2동(900명) 순으로 조사되었다.

가장 적은 수급자가 거주하는 행정동은 위례동과 춘궁동(각각 86명)이며, 복지관이 위치한 신장2동에는 541명이 거주하고 있다.

사. 1인 가구 현황⁶⁾

(단위:명)

연령	2019년	2020년	전년도 증감	2021년	전년도 증감	2022년	전년도 증감	2023년	전년도 증감	5개년 평균
합 계	27,118	33,759	24.5%	38,063	12.7%	39,103	2.7%	40,682	4%	11%
20세 미만	66	75	13.6%	61	▲18.7%	58	▲4.9%	49	▲15.5%	▲6.4%
20~24세	926	1,349	45.7%	1,315	▲2.5%	1,138	▲13.5%	1,106	▲2.8%	6.7%
25~29세	3,334	5,112	53.3%	5,673	11%	5,416	▲4.5%	5,177	▲4.4%	13.8%
30~34세	3,292	4,731	43.7%	5,733	21.2%	6,059	5.7%	6,394	5.5%	19%
35~39세	3,152	3,825	21.4%	4,207	10%	4,271	1.5%	4,144	▲3.0%	7.5%
40~44세	2,312	2,876	24.4%	3,467	20.5%	3,605	4%	3,823	6%	13.7%
45~49세	2,358	2,625	11.3%	2,872	9.4%	2,858	▲0.5	2,846	▲0.4%	5%
50~54세	2,111	2,320	9.9%	2,580	11.2%	2,812	9%	2,933	4.3%	8.6%
55~59세	2,300	2,444	6.3%	2,543	4.1%	2,461	▲3.2%	2,662	8.2%	3.8%
60~64세	2,367	2,674	13%	3,041	13.7%	3,091	1.6%	3,238	4.8%	8.3%
65~69세	1,776	2,140	20.5%	2,489	16.3%	2,665	7.1%	3,088	15.9%	14.9%
70~74세	1,324	1,508	13.9%	1,679	11.3%	1,963	16.9%	2,140	9%	12.8%
75~79세	888	1,031	16.1%	1,181	14.5%	1,296	9.7%	1,516	17%	14.3%
80~84세	548	624	13.9%	712	14.1%	855	20.1%	929	8.7%	14.2%
85세 이상	364	425	16.8%	510	20%	555	8.8%	637	14.8%	15.1%

<표7> 하남시 1인 가구 현황(2019~2023)

2023 KOSIS 인구총조사 중 ‘성 및 연령별 1인 가구 통계’에 따르면 2023년 기준 하남시에 거주하는 1인 가구는 40,682명으로 지난 2022년 육구조사 시점 대비 6.9%(2,619명) 증가했으며 하남시 전체 인구의 약 12.3%를 차지하고 있다.

최근 5개년(2019~2023) 평균 증감률은 11%로 매년 증가하는 추이를 보이나 2022년부터는 증가 폭이 비교적 둔화하였다.

경기도 평균 증감률(7.4%)보다 약 3.6% 높으며 경기도 31개 시·군 중 양주시(11.7%), 평택시(11.01%)에 이어 세 번째로 높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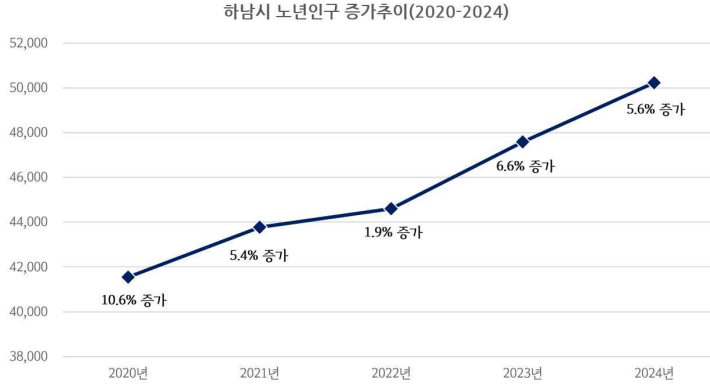
6) KOSIS 성 및 연령별 1인 가구 - 시군구, 인구총조사(2023)

연령(5세)별 증감 추이를 살펴보면, 2019~2020년 청년(20~39세) 가구의 증가율은 40.3%(4,313가구)로 매우 가파른 증가 추세를 보였으나 이후 급격히 감소하였다. (2021년 12.7%(1,911가구), 2022년 ▲0.25%(44가구), 2023년 ▲0.37%(63가구))

반면, 65세 이상 노인 1인 가구는 매년 꾸준히 증가하는 추이를 보이며, 2019년 4,900가구에서 2023년 8,310가구로 약 69.6% 증가했다. (연평균 14.1% 증가) 은퇴와 노년을 앞둔 장년층(50세~64세) 역시 매년 증가하고 있으므로 향후 5~10년 동안 어르신 1인 가구의 증가를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3. 인구학적 특성

가. 고령사회로 진입한 하남, 초고령사회 원도심



<그림6> 하남시 노년 인구 증가 추이

하남시의 고령 인구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최근 5개년 평균 증가율은 6%이며 당분간은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2023년 2분기부터 노령 인구 비율이 14%를 넘어 고령사회로 진입하게 되었고 현재는 15.3%(50,251명)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2022년 욕구조사 시점과 비교할 때 1.8% 증가한 수치다.

구분	원도심	하남시	경기도	대한민국
노령화 지수 ⁷⁾	214	100.3	138.7	184.9
고령 인구 비율	21.9%	15.3%	16.4%	19.8%
고령사회 구분 ⁸⁾	초고령사회	고령사회	고령사회	고령사회

<표8> 노령화 지수 및 고령사회 구분 비교분석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은 ‘원도심의 초고령화’다. 원도심 인구 중 고령자의 비율은 21.9%로 초고령사회 기준(20%)을 훌쩍 넘었으며 2022년보다 약 2.7%나 증가하였다. 이는 다른 시·도 보다 높은 증가율이다.

또한, 원도심을 구성하는 주민들의 주요 연령대가 50대~64세인 것을 고려하면 최근 2년 안에 25%를 넘을 것으로 분석된다.

따라서 하남시종합사회복지관은 초고령사회에서 발생할 수 있는 주요 문제와 현안, 주민들의 욕구를 분석하고 지자체의 원도심 개발 및 주요 복지계획을 반영하여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역량과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7) 노령화 지수 = (65세 이상 인구 ÷ 15세 미만 인구) × 100.

8) 고령사회 구분 = (65세 이상 인구) 7% 이상 고령화 사회, 14% 이상 고령사회, 20% 이상 초고령사회

나. 베이비부머가 온다!

1차 베이비부머(1955~1963년생)가 노령기에 접어들고, 2차 베이비부머(1964~1974년생)가 은퇴 연령에 진입했다. 이들의 수를 합산하면 약 1,660만 명, 우리나라 인구의 32%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인구구조에 따른 사회변화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들은 기존의 노년 세대와는 다른 특성을 보이는데 ▲높은 교육 수준(고졸 이상 학력자의 비중 82.5%로 전체 고령자(24.2%)보다 높음) ▲다양한 분야에서 일하며 전문 지식이나 기술을 보유 ▲정보기술(IT) 활용 및 디지털(스마트) 기기를 다루는데 익숙 ▲건강에 관심이 많고 관리에 적극적 ▲소득·자산 여건이 양호 ▲사회·문화 활동에 대한 수요도 크다.⁹⁾

기존 노년 세대가 ‘보호해야 할 대상 혹은 사회적 약자’로 인식됐다면 베이비부머는 은퇴 후에도 주도적으로 삶을 이끌어 갈 역량이 있고 사회참여나 소비 활동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들을 ‘신노년 세대’ 혹은 ‘액티브 시니어’라고 칭하기도 한다.

베이비부머를 주목해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지역사회에서 함께 할 수 있는 값진 인적·물적 자원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가장 큰 사례로 우리보다 먼저 베이비부머를 맞이한 일본은(단카이 세대라고 한다.) ‘지역데뷔’라는 개념으로 인구변화에 대응했고, 자연스럽게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장을 마련했다.

우리 하남시도 91,274명의 베이비부머 세대가 거주하고 있다. 이는 전체 인구의 27.7%이며 이들 역시 사회참여에 대한 욕구가 존재한다.

실제로 최근 복지관 자원봉사활동 문의를 살펴보면 60~69세의 활동 문의가 많다. 이들은 ▲은퇴 후 적적하고 집에만 있기 힘들어서 ▲사회에 도움이 되고 싶어서 ▲활동적인 일을 하고 싶어서 등의 이유로 활동하길 원하며 본인의 역량을 활용한 세무 교육이나 상담, 어르신 혹은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영어교실, 행정 업무 보조, 이웃과 함께하는 나눔활동 등 전문적이고 본인의 역량을 활용한 자원봉사를 실천하려고 한다.

우리는 위 특성을 잘 활용해 잠재적인 인적·물적 자원으로 개발하고 나아가 함께 연대하는 활동가로 양성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사회참여 욕구와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사업을 개발해야 하며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데이터와 역량을 마련해야 한다.

9) 2차 베이비부머의 은퇴연령 진입에 따른 경제적 영향 평가, BOK 이슈 노트, 한국산업은행



III

-

욕구조사 결과분석

1. 응답자의 일반현황
2. 복지관에 대한 일반적 질문
3. 지역사회와 주민 활동
4. 나눔의 실천: 후원과 자원봉사
5. 나와 지역사회에 필요한 복지서비스
6. 나와 가족에게 필요한 여가·교육·문화 프로그램



1. 응답자의 일반현황

구분		응답 수(명)	비율(%)	
성별	남성	114	21.3	
	여성	421	78.7	
연령	청년	20~29세	54	10.1
		30~39세	114	21.3
	중년	40~49세	169	31.6
		50~59세	66	12.3
	장년	60~64세	33	6.2
		65~69세	25	4.7
노년	70세 이상	74	13.8	
	장애 여부 (본인 혹은 가족 구성원)		해당됨	59
		해당되지 않음	476	89.0
거주지역	원도심 (원도심+기타지역)	신장1동	69	12.9
		신장2동	132	24.7
		덕풍1동	44	8.2
		덕풍2동	52	9.7
		덕풍3동	49	9.2
		천현동	7	1.3
		감북동	4	0.7
		초이동	3	0.6
		춘궁동	1	0.2
		신도심	미사1동	58
	미사2동		45	8.4
	미사3동		28	5.2
	위례동		17	3.2
	감일동		26	4.9

<표9-1> 설문참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다음 페이지 표 계속

	구분	응답 수(명)	비율(%)
혼인 여부	미혼	115	21.5
	기혼	348	65.0
	기타	72	13.5
거주기간	5년 미만	100	18.7
	5~10년 미만	143	26.7
	10~15년 미만	88	16.4
	15~20년 미만	59	11.0
	20년 이상	145	27.1
가족 구성원	부부	53	9.9
	부부+자녀	260	48.6
	부모+부부	7	1.3
	조부모+부모+자녀	23	4.3
	한부모 가정	44	8.2
	조부모 가정	7	1.3
	1인 가구	107	20.0
	개인+부모	27	5.0
가구원 수	개인+자녀	7	1.3
	1명(1인 가구)	113	21.1
	2명	88	16.4
	3명	143	26.7
	4명	139	26.0
	5명 이상	52	9.7
경제적 보호 구분	해당 없음	382	71.4
	저소득	49	9.2
	차상위	36	6.7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68	12.7
경제 활동유형	외벌이	258	48.2
	맞벌이	164	30.7
	해당 없음	113	21.1

<표9-2> 설문참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 일반영역에서는 하남시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성인 남, 여 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대해 살펴보기 위하여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 조사에 응한 대상자는 총 535명으로 성별 분포는 남성 114명(21.3%), 여성 421명(78.7%)으로 나타나, 대상자의 비율은 여성이 남성보다 많았다.
- 연령별로는 40~49세가 31.6%, 30~39세가 21.3%, 70세 이상이 13.8%, 50~59세가 12.3%, 20~29세가 10.1%, 60~64세가 6.2%, 65~69세가 4.7%로 나타났다.
- 중년 응답자가 52.9%로 가장 많았으며 장년, 노년 응답자 비율은 18.5%로 동일했고 청년 응답자는 10.1%로 나타났다.
- 본인 혹은 가족 구성원 중 장애 여부에 대해서는 해당 되지 않음이 89%, 해당됨이 11%로 나타났다.
- 복지관이 위치한 신장2동 지역주민이 24.7%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신장1동(12.9%), 미사1동(10.8%), 덕풍2동(9.7%) 덕풍3동(9.2%) 순으로 조사되었다. 원도심에 거주하는 지역주민 응답자가 67.5%이며, 신도심은 32.5%로 나타났다.
- 혼인 여부는 기혼자가 65.0%, 미혼자가 21.5%, 기타가 13.5%로 나타났다.
- 하남시 거주기간은 20년 이상이 27.1%로 가장 많았고, 5~10년 미만이 26.7%, 5년 미만이 18.7%, 10~15년 미만이 16.4%, 15~20년 미만이 11.0%로 나타났다.
- 가족 구성원은 부부+자녀가 48.6%로 가장 많았고, 가구원 수는 3명이 26.7%, 4명이 26%, 1명(1인 가구)도 21.1%로 높게 나타났다.
- 경제적 보호구분으로는 해당 없음이 71.4%로 가장 많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12.7%, 저소득계층이 9.2%, 차상위 계층이 6.7%로 나타났다.
- 경제활동으로는 외벌이가 48.2%, 맞벌이가 30.7%, 해당 없음이 21.1%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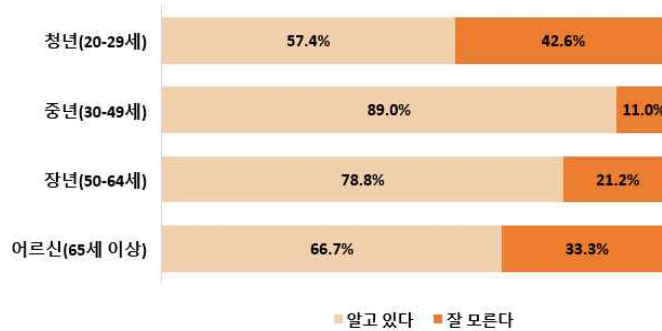
2. 복지관에 대한 일반적 질문

가. 복지관 인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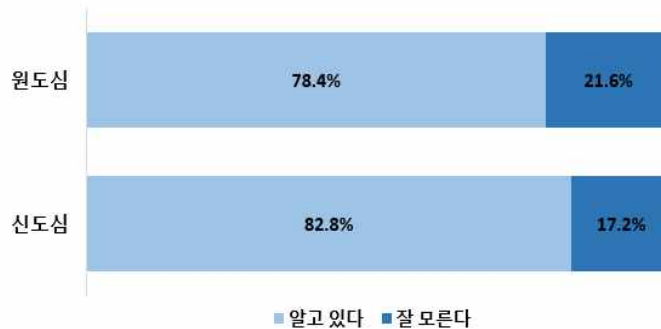
구분		인지도		χ^2	p	
		알고 있다	잘 모른다			
연령	청년(20~29세)	응답 수(명)	31명	23명	42.483	0.000
		비율(%)	57.4%	42.6%		
	중년(30~49세)	응답 수(명)	252명	31명		
		비율(%)	89.0%	11.0%		
	장년(50~64세)	응답 수(명)	78명	21명		
		비율(%)	78.8%	21.2%		
어르신 (65세 이상)	응답 수(명)	66명	33명			
	비율(%)	66.7%	33.3%			
도심 형태	원도심	응답 수(명)	283명	78명	1.389	0.239
		비율(%)	78.4%	21.6%		
	신도심	응답 수(명)	144명	30명		
		비율(%)	82.8%	17.2%		
거주 기간	5년 미만	응답 수(명)	78명	22명	3.837	0.429
		비율(%)	78.0%	22.0%		
	5~10년 미만	응답 수(명)	120명	23명		
		비율(%)	83.9%	16.1%		
	10~15년 미만	응답 수(명)	73명	15명		
		비율(%)	83.0%	17.0%		
	15~20년 미만	응답 수(명)	44명	15명		
		비율(%)	74.6%	25.4%		
	20년 이상	응답 수(명)	112명	33명		
		비율(%)	77.2%	22.8%		
전체			427	108		
			79.8%	20.2%		

<표10> 복지관 인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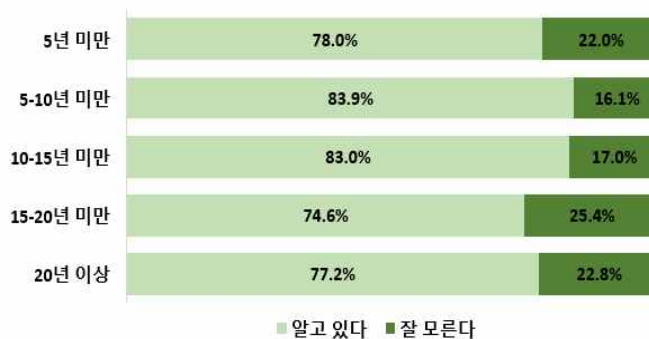
- 535명의 응답자에게 우리 복지관에 대한 인지도를 조사한 결과 ‘알고 있다’가 79.8%(427명), ‘잘 모른다’가 20.2%(108명)로 나타났다.



- 연령에 따른 복지관 인지도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는데, 중년(30~49세)의 경우 89%가 복지관을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장년 78.8%, 어르신 66.7% 순으로 나타났다. 청년의 경우 57.4%로 기관에 대한 인지가 가장 낮았다.



- 도심 형태별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신도심 응답자 중 82.8%가 복지관을 알고 있다고 응답했다. 이는 원도심 78.4%보다 높은 수치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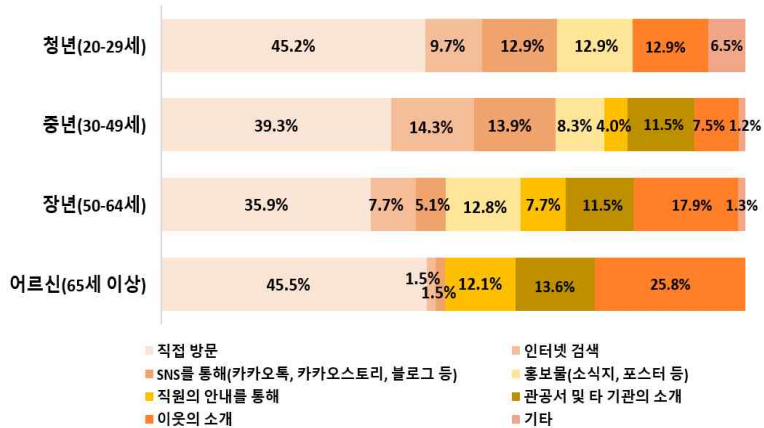
- 하남시 거주기간에 따른 복지관 인지 여부를 살펴보면 5~10년 미만 거주자가 83.9%로 가장 높았으며 10년~15년 미만 83%, 5년 미만이 78% 순으로 조사되었다. 15년~20년 미만은 74.6%, 20년 이상은 77.2%로 거주 기간과 복지관 인지도가 비례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나. 복지관을 알게 된 경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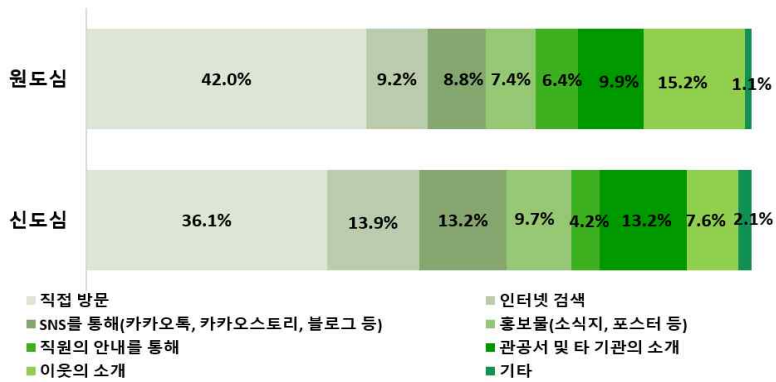
		직접 방문	인터넷 검색	SNS를 통해	홍보물	직원의 안내를 통해	관공서 및 타 기관의 소개	이웃의 소개	기타
연령	청년 (20~29세)	14명 45.2%	3명 9.7%	4명 12.9%	4명 12.9%	- -	- -	4명 12.9%	2명 6.5%
	중년 (30~49세)	99명 39.3%	36명 14.3%	35명 13.9%	21명 8.3%	10명 4.0%	29명 11.5%	19명 7.5%	3명 1.2%
	장년 (50~64세)	28명 35.9%	6명 7.7%	4명 5.1%	10명 12.8%	6명 7.7%	9명 11.5%	14명 17.9%	1명 1.3%
	어르신 (65세 이상)	30명 45.5%	1명 1.5%	1명 1.5%	- -	8명 12.1%	9명 13.6%	17명 25.8%	- -
거주지역	원도심	119명 42.0%	26명 9.2%	25명 8.8%	21명 7.4%	18명 6.4%	28명 9.9%	43명 15.2%	3명 1.1%
	신도심	52명 36.1%	20명 13.9%	19명 13.2%	14명 9.7%	6명 4.2%	19명 13.2%	11명 7.6%	3명 2.1%
전체		171명 40.0%	46명 10.8%	44명 10.3%	35명 8.2%	24명 5.6%	47명 11.0%	54명 12.6%	6명 1.4%

<표11> 하남시종합사회복지관을 알게 된 경로

- 하남시종합사회복지관을 알게 된 경로에 대해 ‘직접 방문’이 40%(171명)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그다음 순으로 ‘이웃의 소개’가 12.6%(54명), ‘관공서 및 타 기관의 소개’가 11%(47명), ‘인터넷 검색’이 10.8%로 나타났다.



- 전 연령대 모두 '직접 방문'을 통해 알게 된 경우(평균 41.4%)가 가장 많았다. 스마트폰 능숙하게 다루는 청년~중년은 '인터넷 검색'(24%)과 'SNS'(26.8%)를 통해 복지관을 알게 된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 장년의 경우 '이웃의 소개'가 17.9%로 '직접 방문'의 뒤를 이었으며 '홍보물' 12.8%, '관공서 및 타 기관의 소개' 11.5% 순으로 나타났다. 'SNS'를 통해 알게 된 경우는 5.1%로 가장 낮았다.
- 어르신의 '직접 방문'의 뒤를 이어 '이웃의 소개'가 25.8%, '관공서 및 타 기관의 소개' 13.6%, '직원의 안내' 12.1% 순으로 조사되었다. 인터넷 검색과 SNS를 통한 인지는 합산하여 3%로 전 연령 중 가장 낮은 수치를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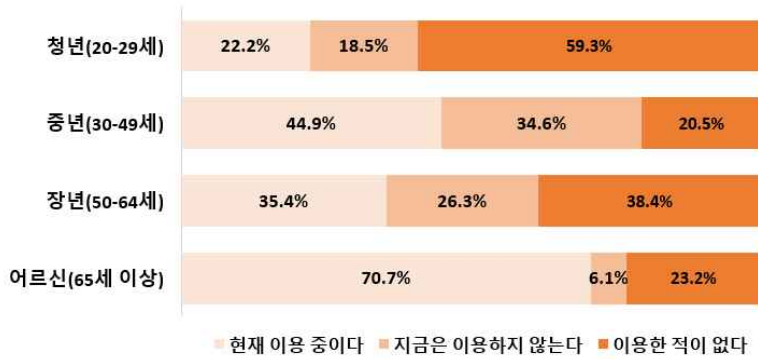
- 도심 형태로 살펴보면 원도심은 '직접 방문'이 42%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이웃의 소개' 15.2%, '관공서 및 타 기관의 소개' 9.9%, '인터넷 검색' 9.2%, 'SNS' 8.8% 순으로 조사되었다.
- 신도심 역시 '직접 방문'이 36.1%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만, 원도심과 비교할 때 '인터넷 검색'(13.9%)과 'SNS'(13.2%)로 알게 된 사례가 많았으며 '관공서 및 타 기관의 소개' 13.2%, '홍보물' 9.7% 순으로 나타나 도심 별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 복지관 이용 경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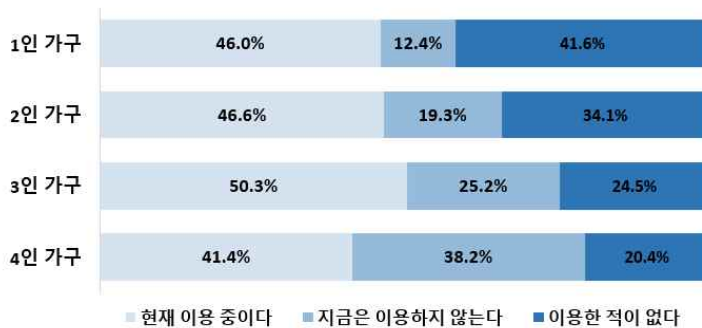
		현재 이용 중이다	지금은 이용하지 않는다	이용한 적이 없다	χ^2	p
연령	청년(20~29세)	12명	10명	32명	75.624	0.000
		22.2%	18.5%	59.3%		
	중년(30~49세)	127명	98명	58명		
		44.9%	34.6%	20.5%		
	장년(50~64세)	35명	26명	38명		
		35.4%	26.3%	38.4%		
	어르신 (65세 이상)	70명	6명	23명		
		70.7%	6.1%	23.2%		
가구 원수	1인 가구	52명	14명	47명	34.978	0.000
		46.0%	12.4%	41.6%		
	2인 가구	41명	17명	30명		
		46.6%	19.3%	34.1%		
	3인 가구	72명	36명	35명		
		50.3%	25.2%	24.5%		
	4인 가구	79명	73명	39명		
		41.4%	38.2%	20.4%		
도심 형태	원도심	189명	80명	92명	20.843	0.000
		52.4%	22.2%	25.5%		
	신도심	55명	60명	59명		
		31.6%	34.5%	33.9%		
거주 기간	5년 미만	33명	27명	40명	21.240	0.007
		33.0%	27.0%	40.0%		
	5~10년 미만	74명	38명	31명		
		51.7%	26.6%	21.7%		
	10~15년 미만	33명	29명	26명		
		37.5%	33.0%	29.5%		
	15~20년 미만	26명	19명	14명		
		44.1%	32.2%	23.7%		
	20년 이상	78명	27명	40명		
		53.8%	18.6%	27.6%		
전체		244명	140명	151명		
		45.6%	26.2%	28.2%		

<표12> 복지관 이용 경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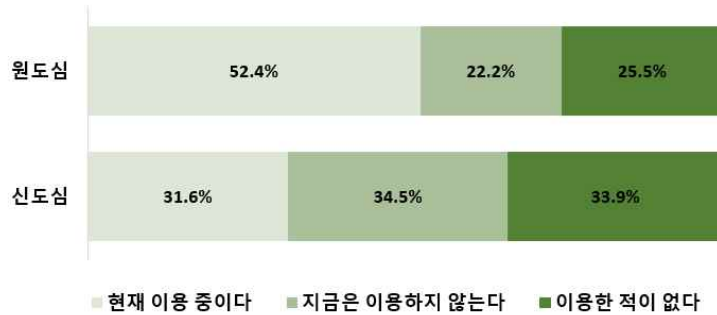
- 복지관 이용여부 조사 결과 ‘현재 이용 중이다’가 45.6%(244명)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다음으로 ‘이용한 적이 없다’가 28.2%(151명), ‘지금은 이용하지 않는다’가 26.2%(140명)로 조사되었다.
- 본 조사에서는 ‘현재 이용 중이다’ 문항과 ‘지금은 이용하지 않는다’ 문항을 ‘복지관 이용 경험’이라고 분석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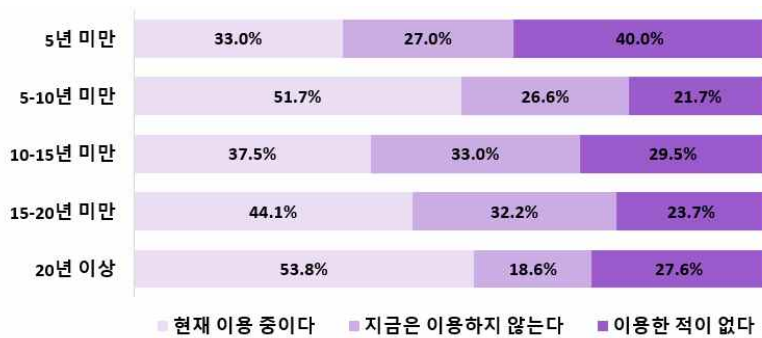
- 연령별로 살펴보면 어르신의 70.7%가 ‘현재 이용 중’으로 조사되었으며 중년은 44.9%, 장년 35.4%, 청년 22.2%가 이용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 청년의 경우 ‘이용한 적이 없다’가 59.3%로 다른 세대에 비해 복지관 이용률이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 가구 구성원에 따른 복지관 이용률을 분석해보면 3인 가구의 50.3%가 ‘현재 이용 중이다’라고 응답했으며 2인 가구 46.6%, 1인 가구 46%로 조사되었다. 4인 가구는 41.4%로 현재 이용률이 가장 낮았다.
- 이용 경험까지 확대해본다면 4인 가구가 79.6%로 가장 높았으며 3인 가구 75.8%, 2인 가구 65.9%, 1인 가구 58.4% 순으로 나타났다.



- 도심형태 별로 살펴보면 원도심 거주 응답자 중 52.4%가 ‘현재 복지관을 이용 중’이며 22.2%가 ‘이용한 적이 있다’라고 응답했다. 신도심의 경우 31.6%가 ‘현재 복지관을 이용 중’이며 34.5%가 ‘이용한 적이 있다’라고 응답했다. ‘이용한 적이 없다’ 응답은 원도심보다 8.4% 높은 33.9%로 조사되었다.



- 거주기간에 따른 복지관 이용 여부를 조사한 결과 ‘20년 이상 거주자’의 경우 53.8%가 복지관을 현재 이용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5~10년 미만’ 51.7%, ‘15~20년 미만’ 44.1% 순으로 조사되었으며 5년 미만 거주자의 복지관 이용률 33%로 가장 낮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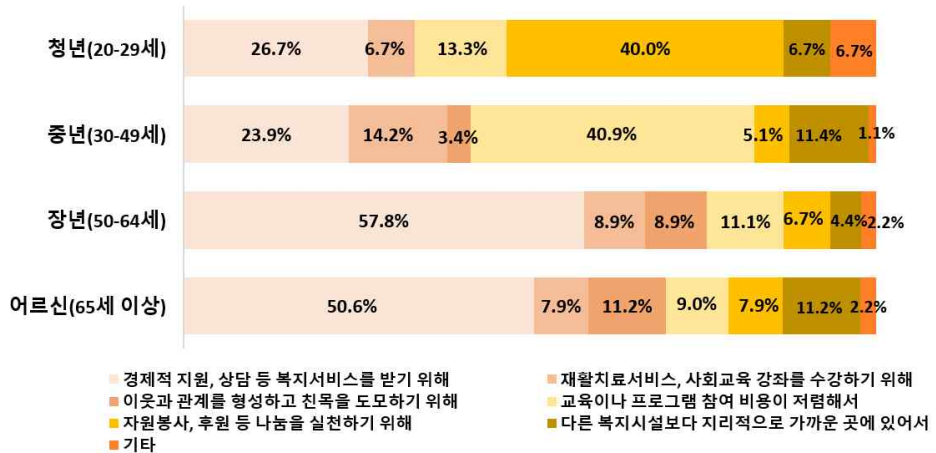
라. 복지관을 이용하는 이유(다중응답)

	경제적 지원 등 상당 복지 서비스를 받기 위해	재활 치료 사회교육 강좌를 수강하기 위해	이웃과 관계를 형성하고 친목을 도모하기 위해	교육, 프로그램 참여 비용이 저렴해서	자원봉사, 후원 등 나눔을 실천하기 위해	지리적 접근성 때문에	기타
청년(20~29세)	4명 26.7%	1명 6.7%	- -	2명 13.3%	6명 40.0%	1명 6.7%	1명 6.7%
중년(30~49세)	42명 23.9%	25명 14.2%	6명 3.4%	72명 40.9%	9명 5.1%	20명 11.4%	2명 1.1%
장년(50~64세)	26명 57.8%	4명 8.9%	4명 8.9%	5명 11.1%	3명 6.7%	2명 4.4%	1명 2.2%
어르신 (65세 이상)	45명 50.6%	7명 7.9%	10명 11.2%	8명 9.0%	7명 7.9%	10명 11.2%	2명 2.2%
1인 가구	34명 47.9%	9명 12.7%	8명 11.3%	8명 11.3%	6명 8.5%	5명 7.0%	1명 1.4%
2인 가구	27명 51.9%	4명 7.7%	4명 7.7%	9명 17.3%	3명 5.8%	4명 7.7%	1명 1.9%
3인 가구	33명 31.7%	15명 14.4%	5명 4.8%	28명 26.9%	9명 8.7%	12명 11.5%	2명 1.9%
4인 가구	23명 23.5%	9명 9.2%	3명 3.1%	42명 42.9%	7명 7.1%	12명 12.2%	2명 2.0%
원도심	98명 37.5%	30명 11.5%	13명 5.0%	67명 25.7%	19명 7.3%	29명 11.1%	5명 1.9%
신도심	19명 29.7%	7명 10.9%	7명 10.9%	20명 31.3%	6명 9.4%	4명 6.3%	1명 1.6%
5년 미만	8명 16.0%	9명 18.0%	4명 8.0%	18명 36.0%	4명 8.0%	6명 12.0%	1명 2.0%
5~10년 미만	29명 27.4%	16명 15.1%	6명 5.7%	35명 33.0%	7명 6.6%	11명 10.4%	2명 1.9%
10~15년 미만	13명 35.1%	2명 5.4%	3명 8.1%	11명 29.7%	3명 8.1%	5명 13.5%	- -
15~20년 미만	18명 48.6%	4명 10.8%	2명 5.4%	3명 8.1%	6명 16.2%	3명 8.1%	1명 2.7%
20년 이상	49명 51.6%	6명 6.3%	5명 5.3%	20명 21.1%	5명 5.3%	8명 8.4%	2명 2.1%
전체	117명 36.0%	37명 11.4%	20명 6.2%	87명 26.8%	25명 7.7%	33명 10.2%	6명 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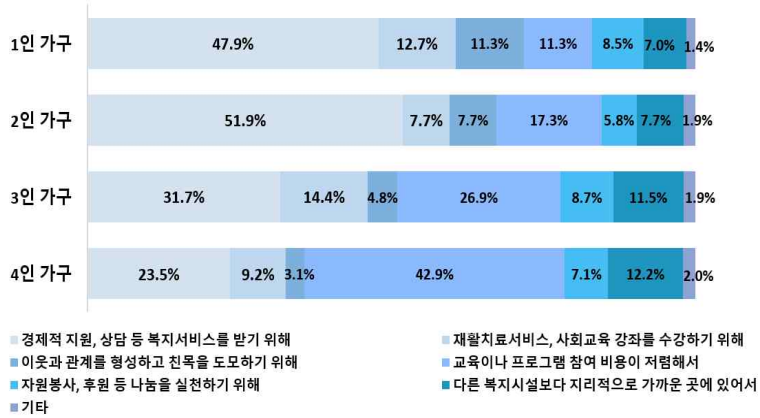
<표13> 복지관을 이용하는 이유(다중응답)

- 복지관을 이용하는 244명에게 이용하는 이유를 다중응답으로 조사한 결과 325건의 응답이 도출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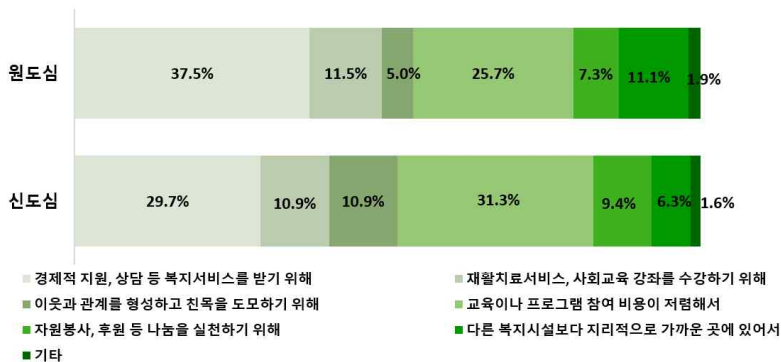
- 전체 응답 중 ‘경제적 지원, 상담 등 복지서비스를 받기 위해’가 117명 (36%)으로 가장 높았다.
- 다음으로 ‘교육이나 프로그램 참여 비용이 저렴해서’가 87명(26.8%), ‘재활 치료 서비스·사회교육 수강을 위해’ 37명(11.4%), ‘다른 복지시설보다 가까워서’ 33명(10.2%) 순으로 조사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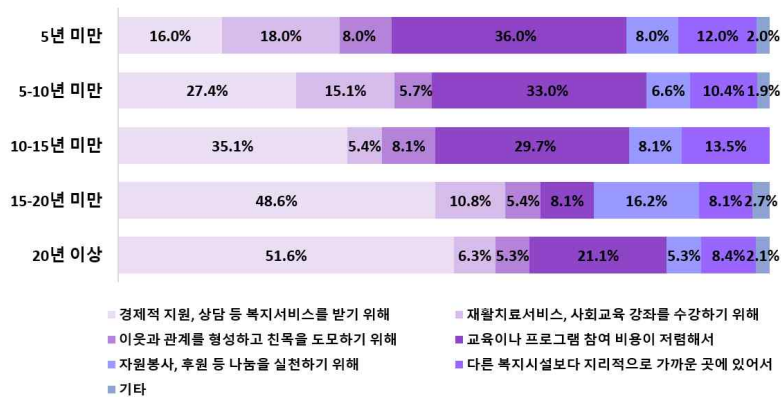
-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장년·어르신은 ‘경제적 지원, 상담 등 복지서비스를 받기 위해’가 57.8%(장년)와 50.6%(어르신)로 가장 높았다. 가장 적은 응답으로 장년층은 ‘지리적 접근성’이 4.4%, 어르신은 ‘자원봉사·후원참여’, ‘재활 치료, 사회교육 강좌 수강’이 각 7.9%로 조사되었다.
- 청년의 경우 ‘자원봉사, 후원 등 나눔 실천을 위해’가 40%로 가장 높았고, ‘지리적 접근성’과 ‘이웃과의 관계형성·친목도모’가 각 6.7%로 가장 낮았다.
- 중년의 경우 ‘교육이나 프로그램 참여 비용이 저렴해서’가 40.9%로 가장 높았고 ‘이웃과의 관계형성·친목도모’가 3.4%로 가장 낮았다.
- 위 응답을 통해 연령대별로 복지관을 이용하는 주된 이유가 다르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 가구원에 따른 응답결과를 살펴보면 1~2인 가구는 ‘경제적 지원, 상담 등 복지서비스를 받기 위해’가 47.9%(1인), 51.9%(2인)로 조사되었다. 가장 적은 응답으로 1인 가구는 ‘지리적 접근성’이 7%, 2인 가구는 ‘자원봉사, 후원 등 나눔 실천’ 5.8%로 조사되었다.
- 3인 가구의 경우 역시 ‘경제적 지원, 상담 등 복지서비스를 받기 위해’가 31.7%로 가장 높았으며 이어서 ‘교육이나 프로그램이 저렴해서’ 26.9%, ‘재활 치료 서비스, 사회교육 강좌 수강’ 14.4% 순으로 조사되었다.
- 4인 가구의 경우 ‘교육이나 프로그램이 저렴해서’가 42.9%로 조사되었으며 이어서 ‘경제적 지원, 상담 등 복지서비스를 받기 위해’ 23.5%, ‘지리적 접근성 때문에 ’ 12.2% 순으로 조사되었다.



- 도심형태에 따른 결과는 유사한 값을 보이는데 원도심·신도심 모두 ‘경제적 지원, 상담 등 복지서비스를 받기 위해’, ‘교육이나 프로그램이 저렴해서’, ‘재활 치료 서비스, 사회교육 강좌 수강’ 순으로 높았다. 다만, 원도심의 경우 ‘지리적 접근성 때문에’ 응답이 신도심보다 4.8% 높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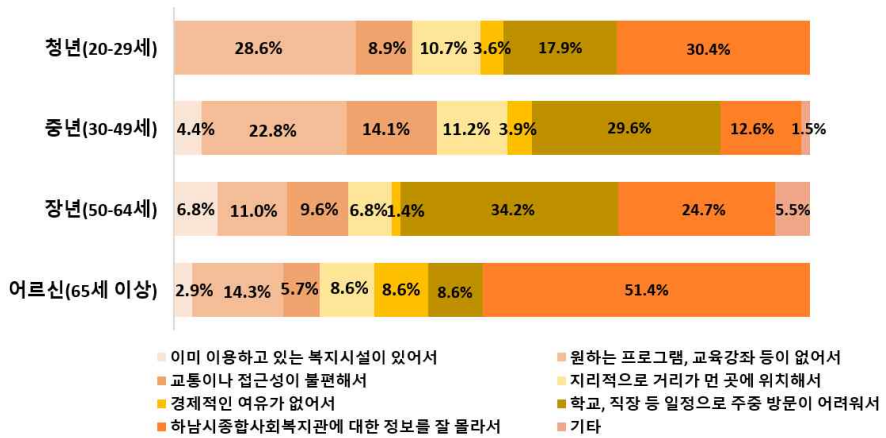
- 하남시 거주기간에 따라 분석해보면 ‘경제적 지원, 상담 등 복지서비스를 받기 위해’ 응답이 기간과 비례하여 증가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0년 이상 거주 주민에게서 51.6%, 5년 미만은 16%로 조사되었다.
- 두 번째로 높은 응답은 ‘교육이나 프로그램 참여 비용이 저렴해서’로 나타났다. 특히 5년 미만(36%), 5~10년 미만(33%)에서는 이 응답이 가장 높았다.
- 15~20년 미만 거주자의 경우 ‘자원봉사, 후원 등 나눔 실천을 위해’가 16.2%로 다른 주민보다 높은 수치를 보였다.
- 그 외 ‘재활 치료서비스, 사회교육 강좌 수강’(평균 11.1%), ‘지리적 접근성 때문에’(평균 10.5%), ‘자원봉사, 후원 등 나눔을 위해’(평균 8.84%) 순으로 조사되었다.
- 기타 응답이 6건 있었으나 ‘노인 일자리’, ‘자녀 치료서비스’, ‘자원봉사’ 등 문항과 중복되는 값이기 때문에 제외하였다.

마. 이용을 중단하거나 이용한 적이 없는 이유(다중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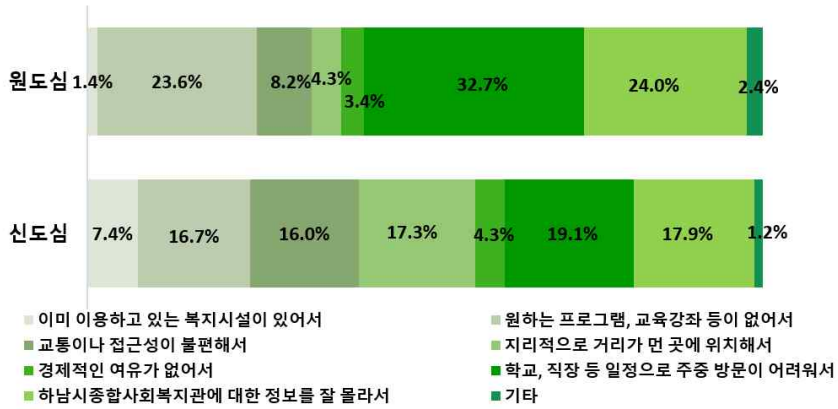
	이미 이용하고 있는 복지시설이 있어서	원하는 프로그램, 교육강좌 등이 없어서	교통이나 접근성이 불편해서	지리적으로 거리가 먼 곳에 위치해서	경제적인 여유가 없어서	학교, 직장 등 일정으로 주중 방문이 어려워서	복지관에 대한 정보를 잘 몰라서	기타
청년 (20~29세)	-	16명	5명	6명	2명	10명	17명	-
	-	28.6%	8.9%	10.7%	3.6%	17.9%	30.4%	-
중년 (30~49세)	9명	47명	29명	23명	8명	61명	26명	3명
	4.4%	22.8%	14.1%	11.2%	3.9%	29.6%	12.6%	1.5%
장년 (50~64세)	5명	8명	7명	5명	1명	25명	18명	4명
	6.8%	11.0%	9.6%	6.8%	1.4%	34.2%	24.7%	5.5%
어르신 (65세 이상)	1명	5명	2명	3명	3명	3명	18명	-
	2.9%	14.3%	5.7%	8.6%	8.6%	8.6%	51.4%	-
원도심	3명	49명	17명	9명	7명	68명	50명	5명
	1.4%	23.6%	8.2%	4.3%	3.4%	32.7%	24.0%	2.4%
신도심	12명	27명	26명	28명	7명	31명	29명	2명
	7.4%	16.7%	16.0%	17.3%	4.3%	19.1%	17.9%	1.2%
전체	15명	76명	43명	37명	14명	99명	79명	7명
	4.1%	20.5%	11.6%	10.0%	3.8%	26.8%	21.4%	1.9%

<표14> 이용을 중단하거나 이용한 적이 없는 이유(다중응답)

- 이용을 중단하거나 이용한 적이 없는 291명에게 다중응답으로 이유를 물어본 결과 370건의 응답이 도출되었다.
- 가장 많은 응답으로는 ‘학교, 직장 등 일정으로 주중 방문이 어려워서’가 99명(26.8%)이었으며 다음으로 ‘하남시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한 정보를 잘 몰라서’ 79명(21.4%), ‘원하는 프로그램, 교육 등 강좌가 없어서’ 76명(20.5%) 순으로 조사되었다.
- ‘기타’ 응답 7건은 ‘무응답(빈칸)’이 4건, 1건은 ‘이용자의 사망’, 2건은 응답지와 중복(주중 방문이 어려워서)으로 조사되었음.



- 연령대별 조사 결과 어르신의 경우 51.4%가 ‘복지관에 대한 정보를 잘 몰라서’라고 응답했다. 다음으로는 ‘원하는 프로그램, 교육강좌 등이 없어서’가 14.3%로 높았다.
- 근로·사회활동이 많은 중·장년층은 ‘학교, 직장 등 일정으로 주중 방문이 어려워’를 1순위로 꼽았다. 2순위로는 장년-‘복지관에 대한 정보를 잘 몰라서’ 24.7%, 중년-‘교통이나 접근성이 불편해서’ 22.8%로 응답했다.
- 청년의 경우 ‘복지관에 대한 정보를 잘 몰라서’가 30.4%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교통이나 접근성이 불편해서’ 28.6%, ‘학교, 직장 등 일정으로 주중 방문이 어려워’ 17.9% 순으로 조사되었다.
- 평균값으로 봤을 때 ‘복지관에 대한 정보를 잘 몰라서’가 29.7%로 가장 높았고 ‘학교, 직장 등 일정으로 주중 방문이 어려워’가 22.5%, ‘원하는 프로그램, 교육강좌 등이 없어서’ 16.7% 순으로 조사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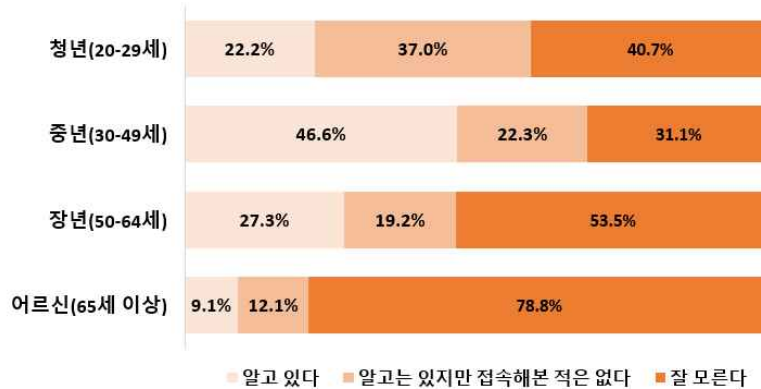
- 도심형태 별 분석값을 비교한 결과 원도심과 신도심 모두 ‘학교, 직장 등 일정으로 주중 방문이 어려워서’를 1순위(원도심 32.7%, 신도심 19.1%), ‘복지관에 대한 정보를 잘 몰라서’를 2순위(원도심 24%, 신도심 17.9%)로 꼽았다.
- 3순위부터는 응답 값에 차이를 보이는데 원도심의 경우 ‘원하는 프로그램, 교육강좌 등이 없어서’(23.6%)라고 한 반면 신도심은 ‘지리적으로 거리가 먼 곳에 위치해서’(17.3%)라고 응답하였다.

바. 복지관에서 운영 중이 SNS 채널 인지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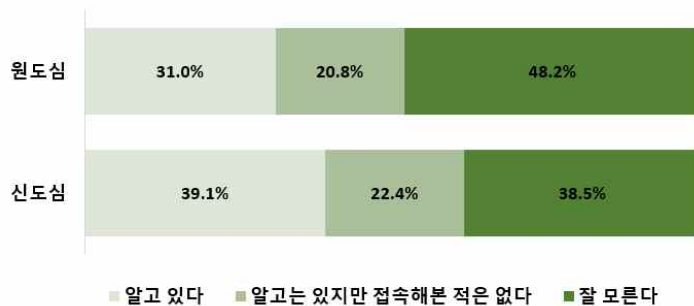
		알고 있다	알고는 있지만 접속해본 적은 없다	잘 모른다	χ^2	p
연령	청년 (20~29세)	12명 22.2%	20명 37.0%	22명 40.7%	84.814	0.000
	중년 (30~49세)	132명 46.6%	63명 22.3%	88명 31.1%		
	장년 (50~64세)	27명 27.3%	19명 19.2%	53명 53.5%		
	어르신 (65세 이상)	9명 9.1%	12명 12.1%	78명 78.8%		
도심 형태	원도심	112명 31.0%	75명 20.8%	174명 48.2%	4.862	0.088
	신도심	68명 39.1%	39명 22.4%	67명 38.5%		
전체		180명 33.6%	114명 21.3%	241명 45.0%		

<표15> 복지관 SNS 채널 인지 여부

- 복지관에서 운영 중인 SNS 채널(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블로그, 유튜브 등) 인지 여부를 묻은 결과 ‘잘 모른다’가 45%(241명)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그다음 ‘알고 있다’가 33.6%(180명), ‘알고는 있지만 접속해본 적은 없다’가 21.3%(114명)로 나타났다.



- 연령에 따른 SNS 채널 인지 여부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년 응답자의 46.6%가 ‘알고 있다’에 가장 많은 응답 결과를 보였으며 장년 27.3%, 청년 22.2%, 어르신 9.1% 순으로 조사되었다.
- ‘잘 모른다’의 경우 어르신이 78.8%로 가장 많았으며 장년 53.5%, 청년 40.7%, 중년 31.1% 순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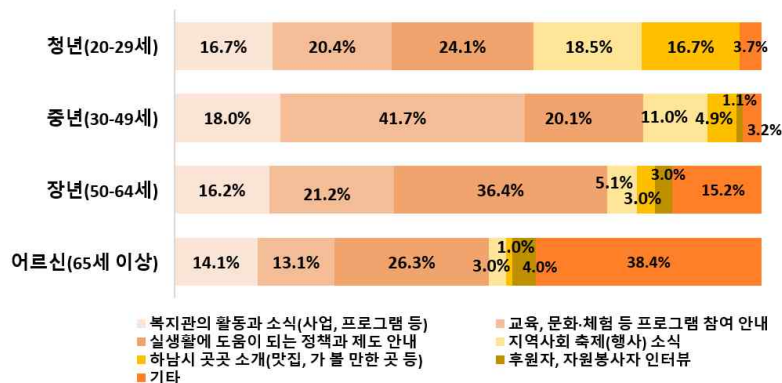
- 도심별로 SNS 채널 인지 여부를 살펴보면 원도심 응답자 48.2%가 ‘잘 모른다’라고 응답했으며 31%가 ‘알고 있다’, 20.8%가 ‘알고는 있지만 접속한 적이 없다’고 응답했다. 신도심의 경우 39.1%가 ‘알고 있다’라고 응답했고 22.4%가 “알고는 있지만 접속한 적이 없다”라고 답변하였다.
- 위 조사 결과를 볼 때 원도심보다 신도심 주민들이 복지관 SNS 채널을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사. 복지관에서 SNS 채널에서 다루었으면 하는 정보

	복지관의 활동과 소식(사업, 프로그램 등)	교육, 문화체험 등 프로그램 참여 안내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정책과 제도 안내	지역사회 축제(행사) 소식	하남시 곳곳 소개(맛집, 가 볼 만한 곳 등)	후원자, 자원봉사자 인터뷰	기타
청년 (20~29세)	9명	11명	13명	10명	9명	-	2명
	16.7%	20.4%	24.1%	18.5%	16.7%	-	3.7%
중년 (30~49세)	51명	118명	57명	31명	14명	3명	9명
	18.0%	41.7%	20.1%	11.0%	4.9%	1.1%	3.2%
장년 (50~64세)	16명	21명	36명	5명	3명	3명	15명
	16.2%	21.2%	36.4%	5.1%	3.0%	3.0%	15.2%
어르신 (65세 이상)	14명	13명	26명	3명	1명	4명	38명
	14.1%	13.1%	26.3%	3.0%	1.0%	4.0%	38.4%
원도심	58명	102명	94명	27명	20명	8명	52명
	16.1%	28.3%	26.0%	7.5%	5.5%	2.2%	14.4%
신도심	32명	61명	38명	22명	7명	2명	12명
	18.4%	35.1%	21.8%	12.6%	4.0%	1.1%	6.9%
전체	90명	163명	132명	49명	27명	10명	64명
	16.8%	30.5%	24.7%	9.2%	5.0%	1.9%	1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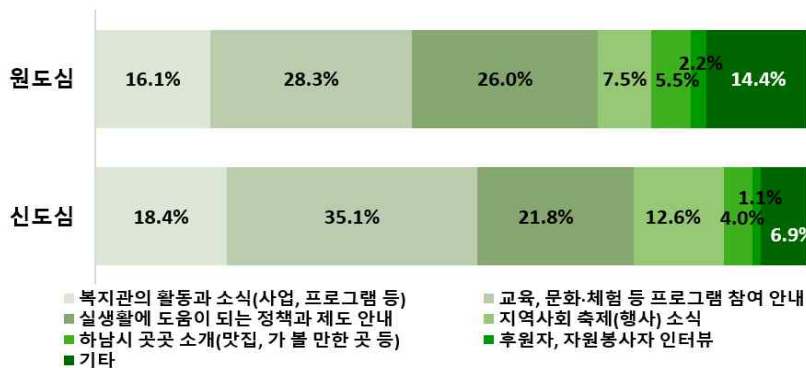
<표16> 복지관 SNS 채널에서 다루었으면 하는 정보

- 복지관 SNS 채널을 통해 전달되었으면 하는 정보를 묻은 문항에 ‘교육, 문화·체험 등 프로그램 참여 안내’ 30.5%(163명)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냈으며 그다음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정책과 제도 안내’가 24.7%(132명), ‘복지관의 활동과 소식(사업, 프로그램 등)’가 16.8%(90명) 순으로 조사되었다.



- 연령별로 조사 데이터를 분석하면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다. 이 문항에서 ‘기타’ 값은 ‘SNS에 대해 잘 모른다’라고 분석한다.(설문 조사 중 SNS를 몰라서 응답이 어렵다는 의견이 많아 기타를 ‘잘 모른다’라고 대체하여 조사함.)

- 어르신은 38.4%가 ‘잘 모른다(기타)’라고 응답했으며 26.3%가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정책과 제도 안내’, 14.1%가 ‘복지관의 활동과 소식’, 13.1%가 ‘교육, 문화체험 등 프로그램 참여 안내’라고 응답하였다.
- 장년의 ‘잘 모른다(기타)’가 15.2%로 어르신보다 적었다.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정책과 제도 안내’가 36.4%로 가장 많았으며, 21.2%가 ‘교육, 문화체험 등 프로그램 참여 안내’, 16.2%가 ‘복지관의 활동과 소식’에 응답하였다.
- 중년의 경우 ‘교육, 문화체험 등 프로그램 참여 안내’가 41.7%로 가장 많았으며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정책과 제도 안내’가 20.1%, ‘복지관의 활동과 소식’이 18% 순으로 조사되었다.
- 청년의 경우 응답이 고르게 분포되었다. 가장 많은 응답은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정책과 제도 안내’(24.1%)였으며 ‘교육, 문화체험 등 프로그램 참여 안내’(20.4%)가 2순위, ‘복지관의 활동과 소식’(16.7%)이 3순위로 조사되었다.



- 도심별 조사 값은 유사한 수치를 보인다. 원도심, 신도심 모두 ‘교육, 문화, 체험 등 프로그램 참여 안내’를 1순위로 꼽았으며, 2순위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정책과 제도 안내’, 3순위 ‘복지관의 활동과 소식(사업, 프로그램 등)’으로 조사되었다.
- 원도심의 경우 ‘하남시 곳곳 소개(맛집, 가볼 만한 곳 등)’가 4순위(14.4%)로 조사되었으나 신도심의 경우 ‘지역사회 축제(행사) 소식’을 4순위로(12.6%) 선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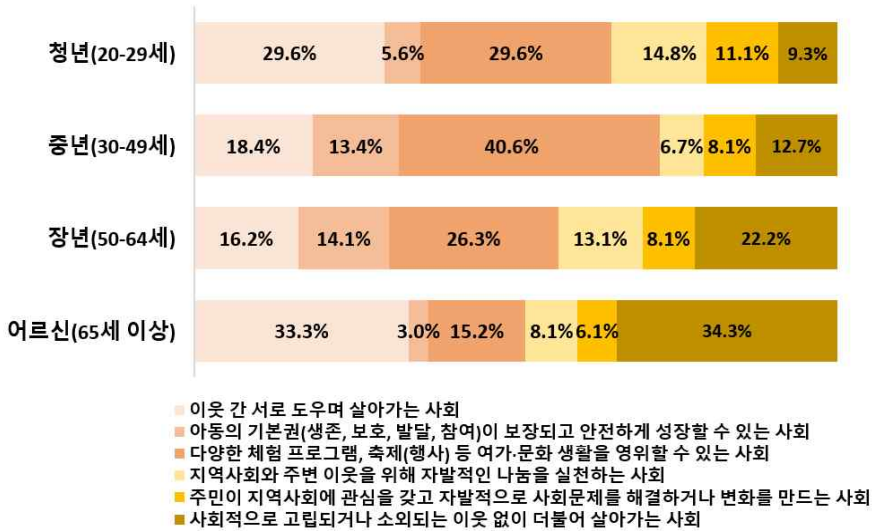
3. 지역사회와 주민 활동

가. 주민이 바라는 지역사회의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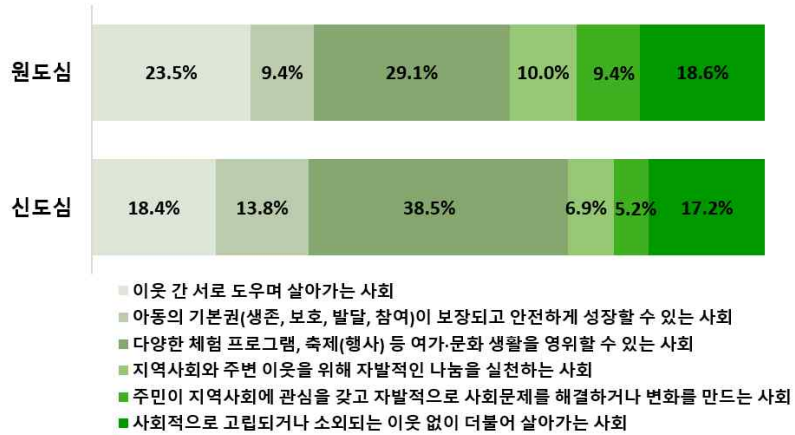
	이웃 간 서로 도우며 살아가는 사회	아동의 기본권이 보장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사회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 축제 등 여가·문화 생활을 영위 하는 사회	지역사회와 이웃을 위해 자발적인 나눔을 실천 하는 사회	주민이 지역에 관심을 갖고 자발적으로 사회문제를 해결하거나 변화를 만드는 사회	사회적으로 고립되거나 소외되는 이웃 없이 더불어 살아 가는 사회
청년 (20~29세)	16명	3명	16명	8명	6명	5명
	29.6%	5.6%	29.6%	14.8%	11.1%	9.3%
중년 (30~49세)	52명	38명	115명	19명	23명	36명
	18.4%	13.4%	40.6%	6.7%	8.1%	12.7%
장년 (50~64세)	16명	14명	26명	13명	8명	22명
	16.2%	14.1%	26.3%	13.1%	8.1%	22.2%
어르신 (65세 이상)	33명	3명	15명	8명	6명	34명
	33.3%	3.0%	15.2%	8.1%	6.1%	34.3%
원도심	85명	34명	105명	36명	34명	67명
	23.5%	9.4%	29.1%	10.0%	9.4%	18.6%
신도심	32명	24명	67명	12명	9명	30명
	18.4%	13.8%	38.5%	6.9%	5.2%	17.2%
전체	117명	58명	172명	48명	43명	97명
	21.9%	10.8%	32.1%	9.0%	8.0%	18.1%

<표17> 지역주민이 바라는 지역사회의 모습

- 지역주민이 바라는 지역사회를 조사한 결과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 축제(행사) 등 여가·문화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사회’(응답 172명, 32.1%)를 가장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이어서 ‘이웃 간 서로 도우며 살아가는 사회’가 21.9%(117명), ‘사회적으로 고립되거나 소외되는 이웃 없이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가 18.1%(97명)로 나타났다. 연령에 따른 하남시민들이 희망하는 지역사회의 모습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 청년과 중년, 장년층에서는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 축제(행사) 등 여가·문화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사회’ 응답이 가장 많았다. 특히 중년의 경우 40.6%가 넘는 응답을 보였다.
- 청년의 경우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 축제(행사) 등 여가·문화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사회’와 ‘이웃 간 서로 도우며 살아가는 사회’가 각 29.6%로 동일한 응답을 보였다. 다음으로 ‘지역사회와 주변 이웃을 위해 자발적인 나눔을 실천하는 사회’가 14.8%로 높았다.
- 장년은 2순위로 ‘이웃간 서로 도우며 살아가는 사회’ (22.2%)를 꼽았다. 다음으로 ‘이웃 간 서로 도우며 살아가는 사회’(16.2%), ‘아동의 기본권이 보장되고 성장할 수 있는 사회’(13.4%) 순으로 조사되었다.
- 어르신의 경우 ‘사회적으로 고립되거나 소외되는 이웃 없이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1순위(34.3%)로 꼽았다. 이어 ‘이웃 간 서로 도우며 살아가는 사회’ (33.3%),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 축제(행사) 등 여가·문화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사회’(15.2%) 순으로 조사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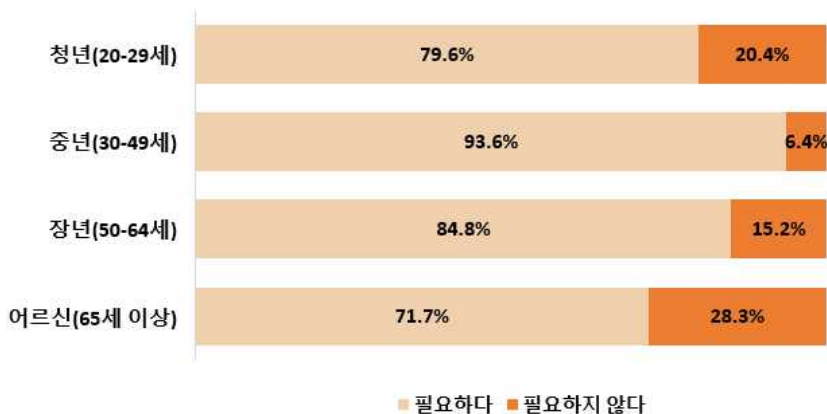
- 도심형태별로 분석한 결과에선 원도심·신도심이 유사한 값을 보였다. 1순위로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 축제(행사) 등 여가·문화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사회’를 꼽았으며 2순위로 ‘이웃 간 서로 도우며 살아가는 사회’, 3순위로 ‘사회적으로 고립되거나 소외되는 이웃 없이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로 조사되었다.

나. 지역사회 변화를 위한 주민의 역할과 활동의 필요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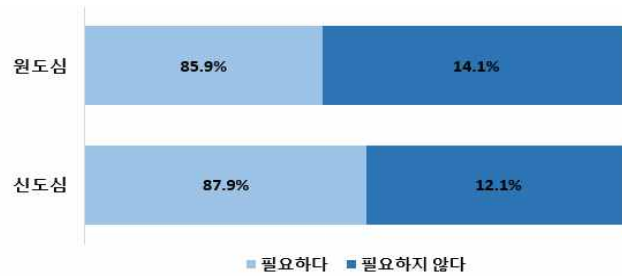
- 지역사회 변화를 만들기 위해 주민의 역할과 활동이 필요한지를 묻는 문항에 ‘필요하다’가 463명(86.5%), ‘필요하지 않다’가 72명(13.5%)으로 나타났다.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χ^2	P
청년(20~29세)	43명	11명	33.381	0.000
	79.6%	20.4%		
중년(30~49세)	265명	18명		
	93.6%	6.4%		
장년(50~64세)	84명	15명		
	84.8%	15.2%		
어르신(65세 이상)	71명	28명		
	71.7%	28.3%		
원도심	310명	51명	.427	0.513
	85.9%	14.1%		
신도심	153명	21명		
	87.9%	12.1%		
5년 미만	95명	5명	23.245	0.000
	95.0%	5.0%		
5~10년 미만	133명	10명		
	93.0%	7.0%		
10~15년 미만	74명	14명		
	84.1%	15.9%		
15~20년 미만	44명	15명		
	74.6%	25.4%		
20년 이상	117명	28명		
	80.7%	19.3%		
전체	463명	72명		
	86.5%	13.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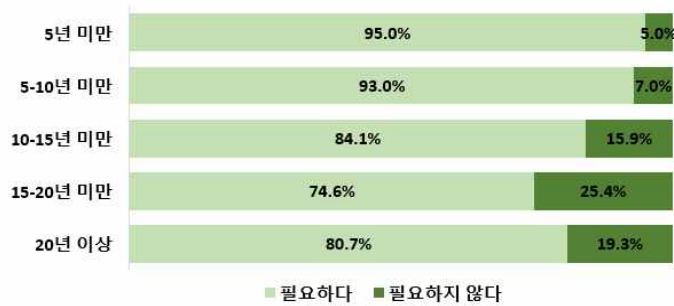
<표18> 주민이 바라는 지역사회 변화를 위해 주민 역할과 활동의 필요성



- 연령대로 살펴보면 중년의 93.6%가 '필요하다'라고 응답했으며 장년 84.8%, 청년 79.6%, 어르신 71.7% 순으로 조사되었다.



- 도심형태로 살펴볼 때 원도심·신도심의 응답 결과는 유사하다. 신도심은 87.9%가 원도심은 85.9%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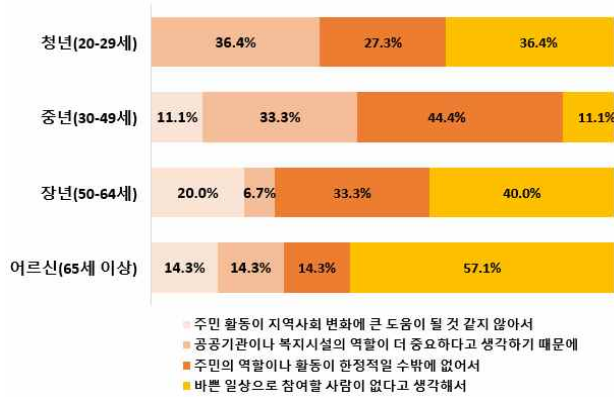
- 거주기간으로 살펴보면 5년 미만 거주자 95%가 '필요하다'라고 응답했으며 5~10년 미만 93%, 10~15년 84.1% 순으로 높았다. 15~20년 미만은 74.6%에 그쳤다.

다. 주민의 역할과 활동이 필요하지 않은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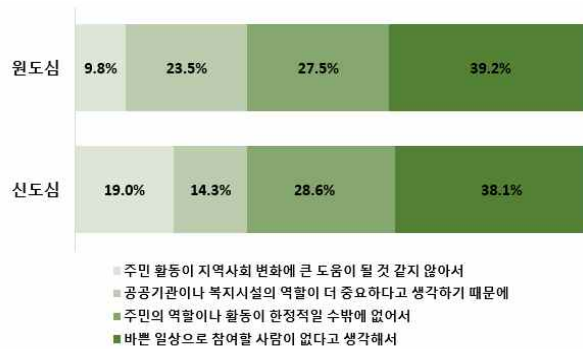
- 지역사회 변화를 만들기 위해 주민의 역할과 활동이 필요하지 않다고 응답한 72명을 대상으로 필요하지 않은 이유를 물었고, 이 중 28명(38.9%)이 ‘바쁜 일상으로 참여할 사람이 없다고 생각해서’라고 응답했다.
- 다음으로 20명(27.8%)이 ‘주민의 역할이나 활동이 한정적일 수밖에 없어서’라고 했으며 ‘공공기관이나 복지시설의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에’ 15명(20.8%), ‘주민 활동이 큰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아서’ 9명(12.5%) 순으로 조사되었다.

	주민 활동이 지역사회 변 화에 큰 도 움이 될 것 같지 않아서	공공기관이나 복지시설의 역할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주민의 역할 이나 활동이 한정적일 수 밖에 없어서	바쁜 일상으 로 참여할 사람이 없 다고 생각해서	χ^2	P
청년(20~29세)	-	4명	3명	4명	16.590	0.056
	-	36.4%	27.3%	36.4%		
중년(30~49세)	2명	6명	8명	2명		
	11.1%	33.3%	44.4%	11.1%		
장년(50~64세)	3명	1명	5명	6명		
	20.0%	6.7%	33.3%	40.0%		
어르신 (65세 이상)	4명	4명	4명	16명		
	14.3%	14.3%	14.3%	57.1%		
원도심	5명	12명	14명	20명	1.638	0.651
	9.8%	23.5%	27.5%	39.2%		
신도심	4명	3명	6명	8명		
	19.0%	14.3%	28.6%	38.1%		
전체	9명	15명	20명	28명		
	12.5%	20.8%	27.8%	38.9%		

<표19> 지역사회의 변화에 주민의 역할이나 활동이 필요 없는 이유



- 연령대로 살펴보면 응답 비율이 가장 높은 ‘바쁜 일상으로 참여할 사람이 없다고 생각해서’ 선택지는 어르신이 57.1%로 가장 많았으며 중년은 11.1%로 세대에서 가장 적은 응답을 보였다.
- 장년 역시 위 선택지가 40%로 가장 많았으며 ‘주민의 역할이나 활동이 한정적일 수밖에 없어서’가 33.3%로 다음 순위를 기록했다.
- 중년의 경우 다른 세대와 다르게 ‘주민의 역할이나 활동이 한정적일 수밖에 없어서’라는 응답이 44.4%로 가장 높았다.
- 청년의 경우 ‘바쁜 일상으로 참여할 사람이 없다고 생각해서’와 ‘공공기관이나 복지시설의 역할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가 각 36.4%로 조사되었고, ‘주민 활동이 지역사회 변화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아서’라는 응답하지 않았다.



- 도심 형태로 분석해보면 유사함을 알 수 있음. 원도심·신도심 모두 ‘바쁜 일상으로 참여할 사람이 없다고 생각해서’가 가장 많았으며 ‘주민의 역할이나 활동이 한정적일 수밖에 없어서’가 2순위로 조사되었다.
- 다만, 신도심은 ‘주민 활동이 지역사회 변화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아서’를 3순위로 꼽았으며 원도심에서는 4순위로 응답하였다.

라. 변화를 위해 필요한 주민 활동(다중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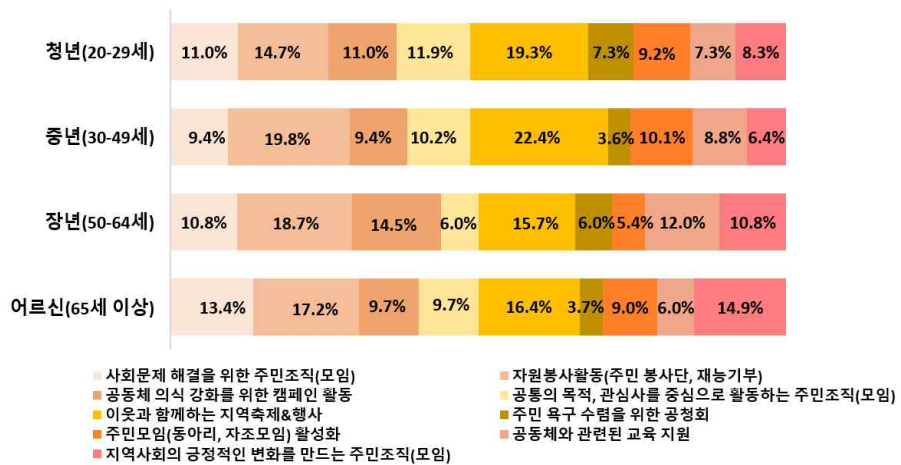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주민조직(모임)	자원봉사 활동(주민 봉사단, 재능기부)	공동체 의식 강화를 위한 캠페인 활동	공통의 목적, 관심사를 중심으로 활동하는 주민조직(모임)
청년 (20~29세)	12명	16명	12명	13명
	11.0%	14.7%	11.0%	11.9%
중년 (30~49세)	54명	114명	54명	59명
	9.4%	19.8%	9.4%	10.2%
장년 (50~64세)	18명	31명	24명	10명
	10.8%	18.7%	14.5%	6.0%
어르신 (65세 이상)	18명	23명	13명	13명
	13.4%	17.2%	9.7%	9.7%
원도심	64명	125명	66명	60명
	10.0%	19.6%	10.3%	9.4%
신도심	38명	59명	37명	35명
	11.0%	17.0%	10.7%	10.1%
전체	102명	184명	103명	95명
	10.3%	18.7%	10.4%	9.6%

<표20-1> 변화를 위해 필요한 주민 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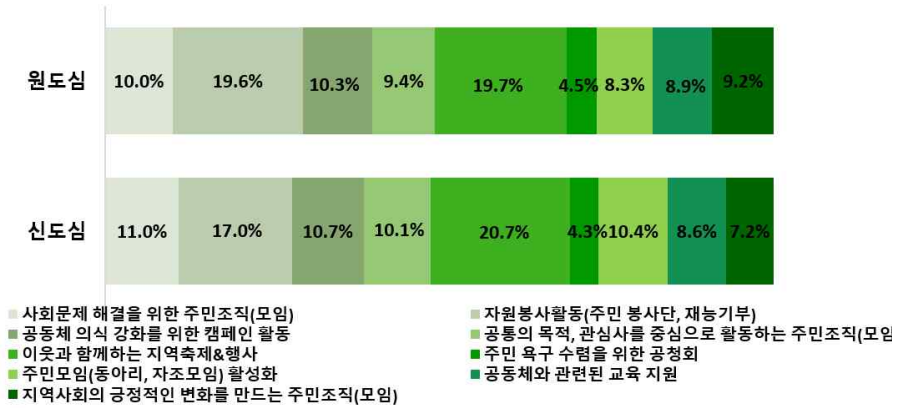
	이웃과 함께하는 지역축제&행사	주민 욕구 수렴을 위한 공청회	주민모임 (동아리, 자조 모임) 활성화	공동체와 관련된 교육 지원	지역사회의 긍정적인 변화를 만드는 주민조직(모임)
청년 (20~29세)	21명	8명	10명	8명	9명
	19.3%	7.3%	9.2%	7.3%	8.3%
중년 (30~49세)	129명	21명	58명	51명	37명
	22.4%	3.6%	10.1%	8.8%	6.4%
장년 (50~64세)	26명	10명	9명	20명	18명
	15.7%	6.0%	5.4%	12.0%	10.8%
어르신 (65세 이상)	22명	5명	12명	8명	20명
	16.4%	3.7%	9.0%	6.0%	14.9%
원도심	126명	29명	53명	57명	59명
	19.7%	4.5%	8.3%	8.9%	9.2%
신도심	72명	15명	36명	30명	25명
	20.7%	4.3%	10.4%	8.6%	7.2%
전체	198명	44명	89명	87명	84명
	20.1%	4.5%	9.0%	8.8%	8.5%

<표20-2> 변화를 위해 필요한 주민 활동

- ‘지역사회 변화를 위해 필요한 주민 활동은 무엇인지’ 묻기 위해 다중응답으로 구성했으며 986건의 응답이 나왔다.
- ‘이웃과 함께하는 지역축제&행사’가 198명(20.1%)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 다음으로 ‘자원봉사활동(주민 봉사단, 재능기부)’가 18.7%(184명), ‘공동체 의식 강화를 위한 캠페인 활동’이 10.4%(103명),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주민조직(모임)’이 10.3%(102명) 순으로 조사되었다.
- 가장 적은 응답을 받은 것은 ‘주민 욕구 수렴을 위한 공청회’로 전체 응답의 4.5%(44명)에 그쳤다.



- 연령대별 응답을 살펴보면 비교적 유사한 응답 결과를 보이는데 ‘이웃과 함께하는 지역축제&행사’, ‘자원봉사활동’, ‘공동체 의식 강화를 위한 캠페인 활동’,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주민조직(모임)’ 응답 비율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 연령대별 응답을 살펴보면 청년과 중년은 ‘이웃과 함께하는 지역축제&행사’가 1순위였으며 장년과 어르신은 ‘자원봉사활동(주민 봉사단, 재능기부)’가 가장 높은 응답을 보였다.
- 청년, 중년, 어르신 모두 ‘주민 욕구 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가장 후 순위로 선택했으며 장년의 경우 ‘주민모임(동아리, 자조 모임) 활성화’에 대한 응답이 가장 낮았다.
- 장년층은 ‘공동체와 관련된 교육 지원’이 12%로 다른 세대에 비해 높았으며 어르신은 ‘지역사회의 긍정적인 변화를 만드는 주민조직’이 14.9%로 높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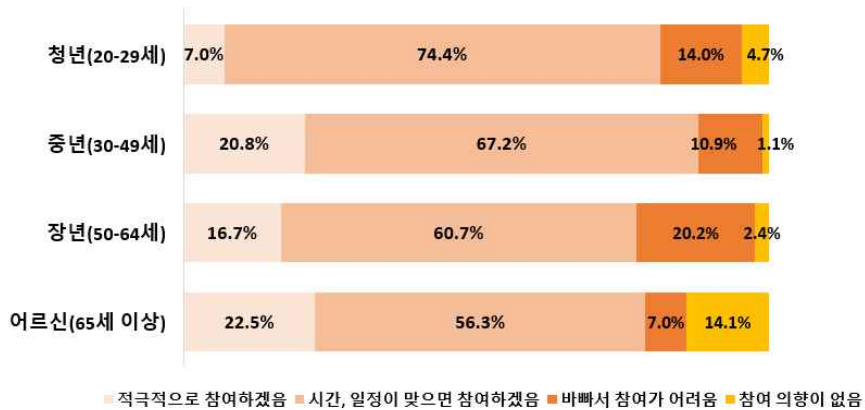
- 도심형태 별 분석값을 살펴보면 거의 동일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이웃과 함께하는 지역축제&행사’가 가장 많았으며 ‘자원봉사활동(주민 봉사단, 재능기부)’가 2순위로 조사되었다.
- 3순위부터는 미세한 차이가 있는데, 원도심의 경우 ‘공동체 의식 강화를 위한 캠페인 활동’(10.3%)을 신도심은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주민조직(모임)’을 꼽았다. 그러나 결괏값의 차이가 작으므로 유의미한 값으로 분석될 수는 없다.
- 원도심, 신도심 모두 ‘주민 욕구 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후 순위로 두었다.

마. 주민 활동 참여 의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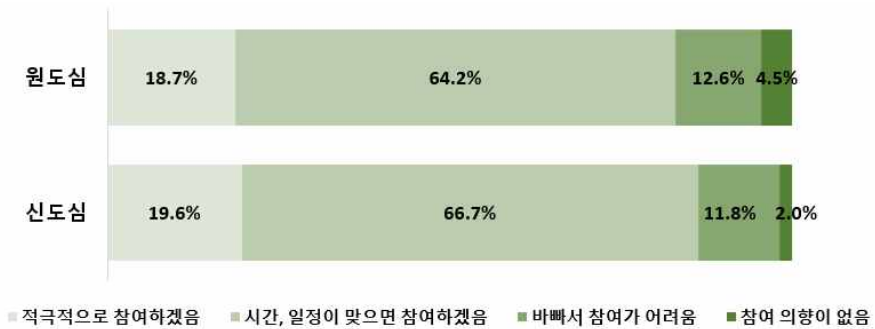
	적극적으로 참여하겠음	시간, 일정이 맞으면 참여하겠음	바빠서 참여가 어려움	참여 의향이 없음	χ^2	p
청년(20~29세)	3명	32명	6명	2명	38.743	0.000
	7.0%	74.4%	14.0%	4.7%		
중년(30~49세)	55명	178명	29명	3명		
	20.8%	67.2%	10.9%	1.1%		
장년(50~64세)	14명	51명	17명	2명		
	16.7%	60.7%	20.2%	2.4%		
어르신(65세 이상)	16명	40명	5명	10명		
	22.5%	56.3%	7.0%	14.1%		
원도심	58명	199명	39명	14명	2.017	0.569
	18.7%	64.2%	12.6%	4.5%		
신도심	30명	102명	18명	3명		
	19.6%	66.7%	11.8%	2.0%		
5년 미만	20명	64명	9명	2명	34.055	0.001
	21.1%	67.4%	9.5%	2.1%		
5~10년 미만	28명	92명	11명	2명		
	21.1%	69.2%	8.3%	1.5%		
10~15년 미만	10명	46명	17명	1명		
	13.5%	62.2%	23.0%	1.4%		
15~20년 미만	5명	32명	7명	-		
	11.4%	72.7%	15.9%	-		
20년 이상	25명	67명	13명	12명		
	21.4%	57.3%	11.1%	10.3%		
전체	88명	301명	57명	17명		
	19.0%	65.0%	12.3%	3.7%		

<표21> 주민 활동 참여 의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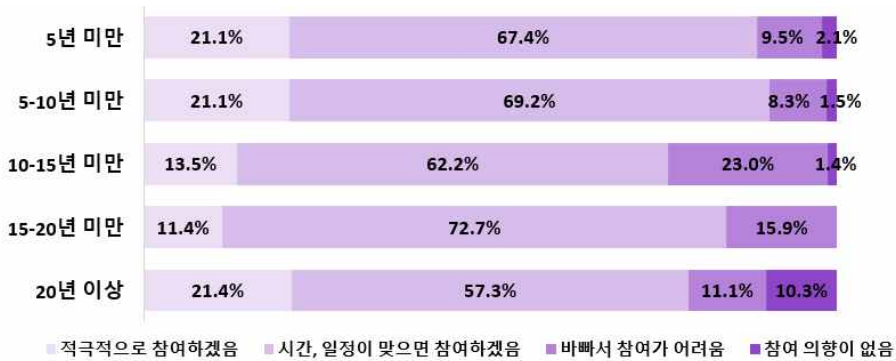
- 주민 활동의 필요성을 느낀 463명의 응답자에게 원하는 활동이 마련되면 참여할 것인지를 물어본 결과 301명(65%)이 ‘시간, 일정이 맞으면 참여하겠다’, 88명(19%)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라고 조사되었다.
- ‘바빠서 참여가 어렵다’라고 응답한 인원은 57명(12.3%)이었으며 ‘참여 의향이 없다’라고 밝히나 응답자는 17명(3.7%)에 그쳤다.



- 연령대별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에 가장 많이 응답한 세대는 어르신(22.5%)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중년(20.8%), 장년(16.7%), 청년(7%) 순이었다.
- 청년의 경우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라는 연령대 중 가장 낮았지만 ‘시간과 일정이 맞으면 참여하겠다’는 74.4%로 가장 많았다.
- ‘바빠서 참여가 어려움’에 가장 많은 응답을 보인 연령은 장년(20.2%)이었으며 ‘참여 의향이 없음’은 어르신(14.1%)이 가장 많았다.



- 도심 유형별로 응답 결과를 살펴볼 때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라는 신도심(19.6%)이 원도심(18.7%)보다 0.9% 많았고 ‘참여 의향이 없음’은 원도심(4.5%)이 신도심(2%)보다 2.5% 높았다.



- 거주기간에 따른 응답 결과를 분석했을 때 5년 미만과 5~10년 미만, 20년 이상의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 응답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 '바빠서 참여가 어렵다'의 응답은 10~15년 미만이 23%로 가장 많았으며 15~20년 미만 15.9%, 20년 이상 11.1% 순으로 많았다.
- 15~20년 미만의 경우 '참여 의향이 없다'라고 답한 응답자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20년 이상 거주자에서 '참여 의향이 없음'(10.3%) 응답이 가장 많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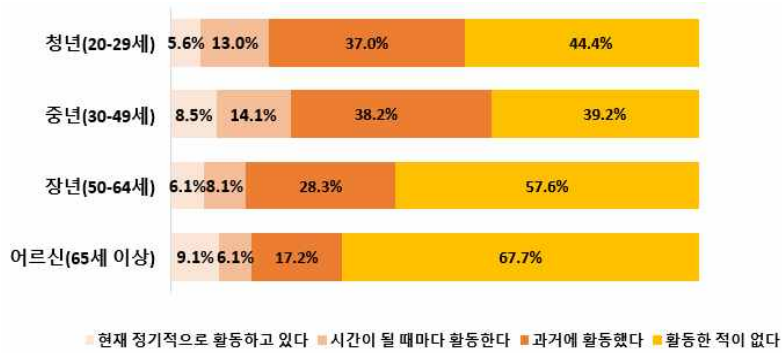
4. 나눔의 실천: 후원과 자원봉사

가. 자원봉사활동 경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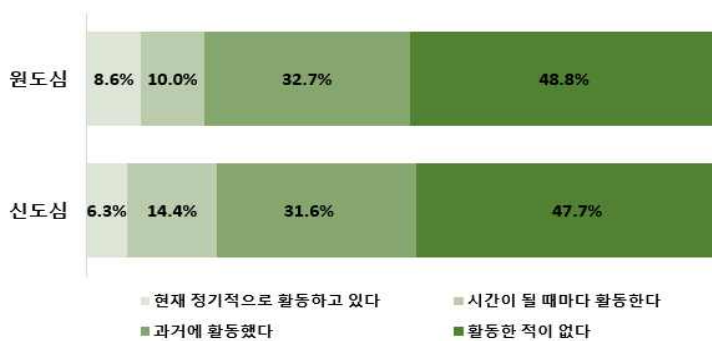
	현재 정기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시간이 될 때마다 활동한다	과거에 활동했다	활동한 적이 없다	χ^2	p
청년 (20~29세)	3명	7명	20명	24명	31.809	0.000
	5.6%	13.0%	37.0%	44.4%		
중년 (30~49세)	24명	40명	108명	111명		
	8.5%	14.1%	38.2%	39.2%		
장년 (50~64세)	6명	8명	28명	57명		
	6.1%	8.1%	28.3%	57.6%		
어르신 (65세 이상)	9명	6명	17명	67명		
	9.1%	6.1%	17.2%	67.7%		
원도심	31명	36명	118명	176명	2.826	0.419
	8.6%	10.0%	32.7%	48.8%		
신도심	11명	25명	55명	83명		
	6.3%	14.4%	31.6%	47.7%		
5년 미만	6명	11명	47명	36명	28.928	0.004
	6.0%	11.0%	47.0%	36.0%		
5~10년 미만	15명	14명	52명	62명		
	10.5%	9.8%	36.4%	43.4%		
10~15년 미만	4명	13명	27명	44명		
	4.5%	14.8%	30.7%	50.0%		
15~20년 미만	6명	8명	18명	27명		
	10.2%	13.6%	30.5%	45.8%		
20년 이상	11명	15명	29명	90명		
	7.6%	10.3%	20.0%	62.1%		
전체	42명	61명	173명	259명		
	7.9%	11.4%	32.3%	48.4%		

<표22> 자원봉사활동 경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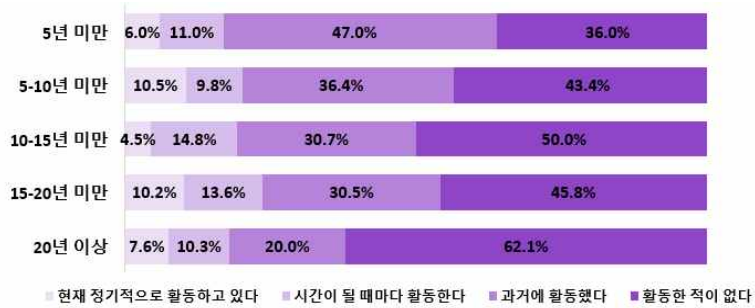
- 535명의 응답자에게 자원봉사활동 경험을 조사한 결과 ‘활동한 적이 없다’가 48.4%(259명)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 다음으로 ‘과거에 활동했다’가 32.3%(173명), ‘시간이 될 때마다 활동한다’가 11.4%(61명)로 나타났다.
- 현재 정기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응답자는 7.9%(42명)로 가장 적었다.
- 연령, 거주기간에 따른 자원봉사활동 경험 유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 어르신의 경우 67.7%가 ‘활동한 적이 없다’라고 응답하여 세대에서 활동 경험이 가장 적으면서 동시에 정기적으로 활동(9.1%)하고 있는 봉사자도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 장년의 경우 57.6%가 ‘활동한 적이 없다’라고 응답하였으며 6.1%가 ‘현재 정기적으로 활동하고 있다’라고 답했다. 단순 활동 여부(*현재 활동 중&시간이 될 때마다 활동 여부)를 보면 14.2%로 가장 낮았다.
- 중년의 경우 ‘과거에 활동했다’(38.2%), ‘활동한 적이 없다’(39.2%) 응답이 유사하게 나타났다. 단순 활동 여부(*현재 활동 중&시간이 될 때마다 활동 여부)를 따지면 22.6%로 가장 높았다.
- 청년의 경우 44.4%가 활동 경험이 없으며 37%가 과거에 활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활동 중이다’는 5.6%로 모든 세대에서 가장 적었다.



- 도심 형태로 분석한 값은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활동한 적이 없다’가 가장 많았으며 ‘과거에 활동했다’, ‘시간이 될 때마다 활동한다’, ‘현재 정기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순으로 조사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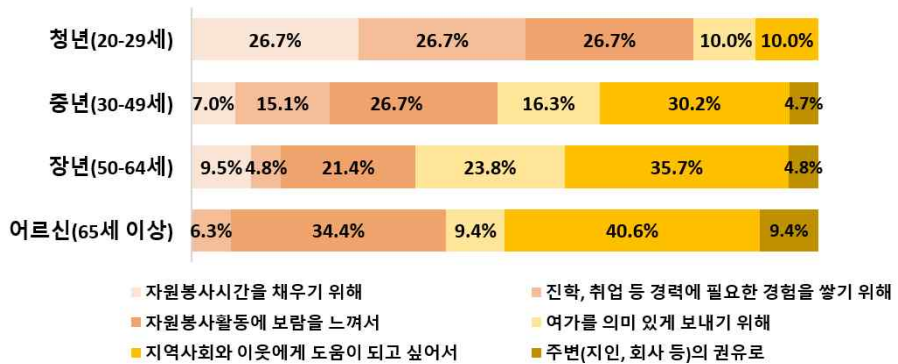
- 하남시 거주기간에 따른 분석값을 살펴보면 20년 이상 거주한 시민의 '활동한 적이 없다' 비율이 62.1%로 가장 높았다. 이어 10~15년 미만 50%, 15~20년 미만 45.8%, 5~10년 미만 43.4%, 5년 미만 36% 순으로 조사되어 거주기간과 활동 경험이 비례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현재 정기적으로 활동 중인 시민 중에는 5~10년 미만 거주자가 10.5%로 가장 많았으며 15~20년 미만 10.2%, 20년 이상이 7.6%로 조사되었다. 10~15년 미만 거주자가 4.5%로 가장 적게 활동 중이다.
- 단순 활동 여부(*현재 활동 중&시간이 될 때마다 활동 여부)를 살펴보면 15~20년 미만이 23.8%로 가장 높았으며 5~10년 미만이 20.3%로 2순위로 조사되었다. 5년 미만 거주자는 17%로 가장 낮았다.

나.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주된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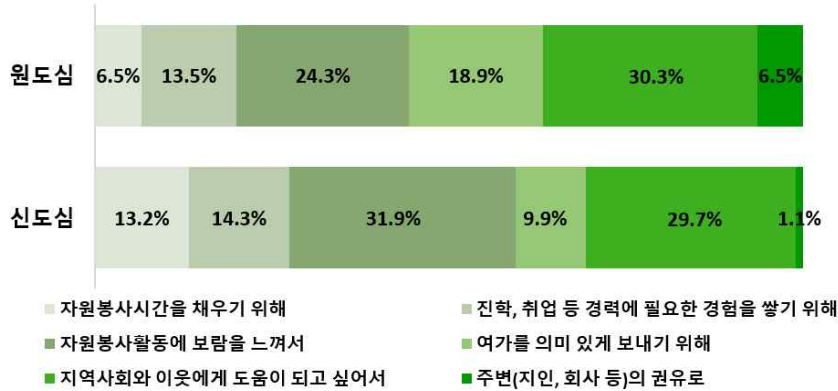
	자원봉사시간을 채우기 위해	진학, 취업 등 경력에 필요한 경험을 위해	자원봉사활동에 보람을 느껴서	여가를 의미 있게 보내기 위해	지역사회& 이웃에 도움이 되고 싶어서	주변(지인, 회사 등)의 권유로
청년 (20~29세)	8명	8명	8명	3명	3명	0명
	26.7%	26.7%	26.7%	10.0%	10.0%	0.0%
중년 (30~49세)	12명	26명	46명	28명	52명	8명
	7.0%	15.1%	26.7%	16.3%	30.2%	4.7%
장년 (50~64세)	4명	2명	9명	10명	15명	2명
	9.5%	4.8%	21.4%	23.8%	35.7%	4.8%
어르신 (65세 이상)	0명	2명	11명	3명	13명	3명
	0.0%	6.3%	34.4%	9.4%	40.6%	9.4%
원도심	12명	25명	45명	35명	56명	12명
	6.5%	13.5%	24.3%	18.9%	30.3%	6.5%
신도심	12명	13명	29명	9명	27명	1명
	13.2%	14.3%	31.9%	9.9%	29.7%	1.1%
전체	24명	38명	74명	44명	83명	13명
	8.7%	13.8%	26.8%	15.9%	30.1%	4.7%

<표23>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는 주된 이유

- 자원봉사 활동경험(현재 활동하거나, 과거에 활동)이 있는 276명의 응답자에게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주된 이유를 물어본 결과 ‘지역사회와 이웃에게 도움이 되고 싶어서’가 30.1%(83명)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 다음으로 ‘자원봉사활동에 보람을 느껴서’가 26.8%(74명), ‘여가를 의미 있게 보내기 위해’가 15.9%(44명)로 나타났다. 연령, 도심형태에 따른 자원봉사 활동을 하는 주된 이유(활동 경험이 있는 경우)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 연령별 분석데이터를 살펴보면 어르신, 장년, 중년에는 ‘지역사회와 이웃에게 도움이 되고 싶어서’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 2순위로 어르신과 중년은 ‘자원봉사활동에 보람을 느껴서’에 응답했고 장년은 ‘여가를 의미 있게 보내기 위해’가 많았다.
- 청년의 경우 응답이 고르게 분포된 것을 알 수 있다. ‘자원봉사시간을 채우기 위해’, ‘진학, 취업 등 경력에 필요한 경험을 쌓기 위해’, ‘자원봉사활동에 보람을 느껴서’가 동일한 26.7%로 조사되었고, ‘여가를 의미 있게 보내기 위해’와 ‘지역사회와 이웃에 도움이 되고 싶어서’는 각각 10%로 조사되었다.
- 모든 세대에서 가장 적은 응답은 ‘주변(지인, 회사 등)의 권유’였다.
- 어르신의 경우 ‘자원봉사시간을 채우기 위해’라는 응답은 없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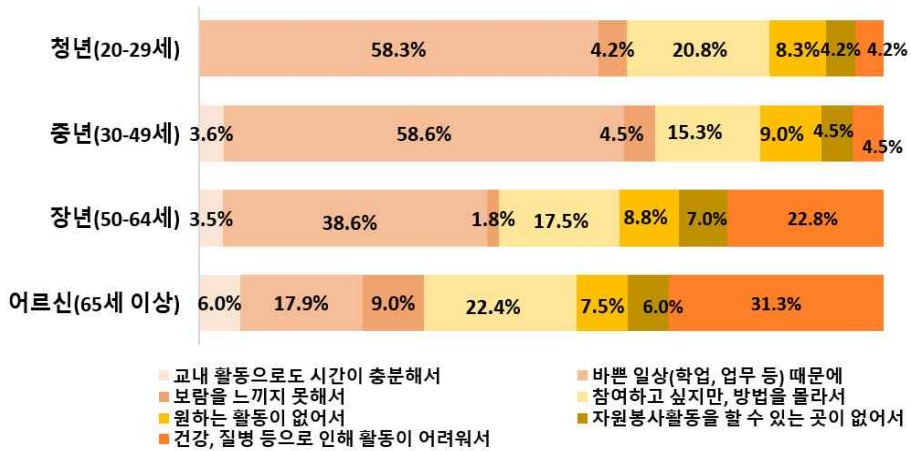
- 지역별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원도심에서는 ‘지역사회와 이웃에게 도움이 되고 싶어서’(30.3%)가 가장 많았고, 신도심은 ‘자원봉사활동에 보람을 느껴서’(31.9%)가 가장 많았다.
- 다음으로 원도심은 ‘자원봉사활동에 보람을 느껴서’(24.3%)가 2순위, ‘여가를 의미 있게 보내기 위해’(18.9%)가 3순위로 조사되었으며 신도심은 ‘지역사회와 이웃에게 도움이 되고 싶어서’(29.7%), ‘진학, 취업 등 경력에 필요한 경험을 쌓기 위해’(14.3%) 순으로 조사되었다.

다. 자원봉사활동 경험이 없는 이유

	교내 활동으로 시간도 충분해서	바쁜 일상(학업, 업무 등) 때문에	보람을 느끼지 못해서	참여하고 싶지만 방법을 몰라서	원하는 활동이 없어서	자원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 곳이 없어서
청년 (20~29세)	-	14명	1명	5명	2명	1명
	-	58.3%	4.2%	20.8%	8.3%	4.2%
중년 (30~49세)	4명	65명	5명	17명	10명	5명
	3.6%	58.6%	4.5%	15.3%	9.0%	4.5%
장년 (50~64세)	2명	22명	1명	10명	5명	4명
	3.5%	38.6%	1.8%	17.5%	8.8%	7.0%
어르신 (65세 이상)	4명	12명	6명	15명	5명	4명
	6.0%	17.9%	9.0%	22.4%	7.5%	6.0%
원도심	6명	72명	10명	35명	15명	8명
	3.4%	40.9%	5.7%	19.9%	8.5%	4.5%
신도심	4명	41명	3명	12명	7명	6명
	4.8%	49.4%	3.6%	14.5%	8.4%	7.2%
전체	10명	113명	13명	47명	22명	14명
	3.9%	43.6%	5.0%	18.1%	8.5%	5.4%

<표24> 자원봉사활동 경험이 없는 이유

- 자원봉사활동 경험이 없다고 응답한 259명의 응답자에게 자원봉사활동 경험이 없는 이유를 묻은 결과, ‘바쁜 일상(학업, 업무 등) 때문에’가 43.6%(113명)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 다음으로 ‘참여하고 싶지만, 방법을 몰라서’가 18.1%(47명), ‘건강, 질병 등으로 인해 활동이 어려워서’가 15.4%(40명) 순으로 조사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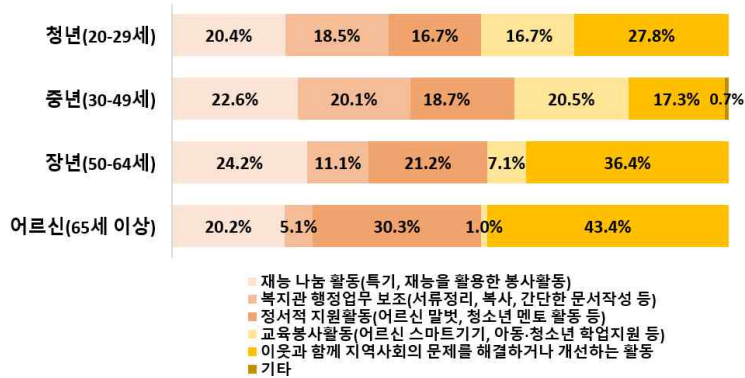
- 연령별 결과를 살펴보면 청년과 중년은 유사한 형태를 보인다. 이들의 약 58%는 ‘바쁜 일상(학업, 업무 등) 때문에’를 이유로 활동이 어려운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참여하고 싶지만, 이 방법을 몰라서’가 2순위 ‘원하는 활동이 없어서’가 3순위로 조사되었다.
- 장년은 ‘바쁜 일상(학업, 업무 등) 때문에’가 38.6%로 가장 많았으며 ‘건강, 질병 등으로 인해 활동이 어려워서’ 22.8%, ‘참여하고 싶지만, 이 방법을 몰라서’ 17.5%, ‘원하는 활동이 없어서’ 8.8% 순으로 조사되었다.
- 어르신의 경우 ‘건강, 질병 등으로 인해 활동이 어려워서’라는 응답이 31.3%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참여하고 싶지만, 이 방법을 몰라서’가 22.4%, ‘바쁜 일상(학업, 업무 등) 때문에’가 17.9% 순으로 조사되었다.

라. 활동하고 싶은 자원봉사의 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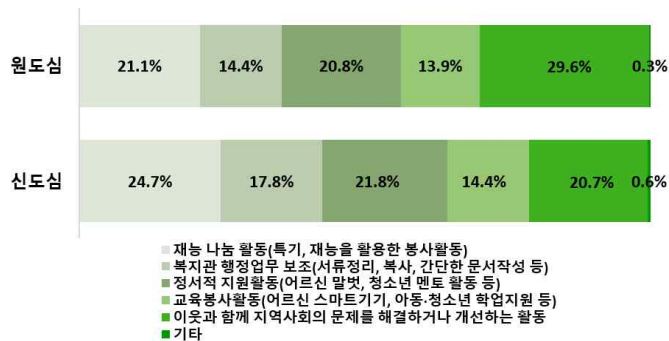
	재능 나눔 활동(특기, 재능을 활용한 봉사활동)	복지관 행정 업무 보조(서류정리, 복사, 간단한 문서작성 등)	정서적 지원 활동(어르신 말벗, 청소년 멘토 활동 등)	교육 봉사활동(어르신 스마트기기, 아동·청소년 학업지원 등)	이웃과 함께 지역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거나 개선하는 활동	기타
청년 (20~29세)	11명	10명	9명	9명	15명	-
	20.4%	18.5%	16.7%	16.7%	27.8%	-
중년 (30~49세)	64명	57명	53명	58명	49명	2명
	22.6%	20.1%	18.7%	20.5%	17.3%	0.7%
장년 (50~64세)	24명	11명	21명	7명	36명	-
	24.2%	11.1%	21.2%	7.1%	36.4%	-
어르신 (65세 이상)	20명	5명	30명	1명	43명	-
	20.2%	5.1%	30.3%	1.0%	43.4%	-
원도심	76명	52명	75명	50명	107명	1명
	21.1%	14.4%	20.8%	13.9%	29.6%	0.3%
신도심	43명	31명	38명	25명	36명	1명
	24.7%	17.8%	21.8%	14.4%	20.7%	0.6%
5년 미만	30명	20명	15명	16명	19명	-
	30.0%	20.0%	15.0%	16.0%	19.0%	-
5~10년 미만	35명	27명	31명	20명	29명	1
	24.5%	18.9%	21.7%	14.0%	20.3%	0.7%
10~15년 미만	18명	14명	18명	18명	20명	-
	20.5%	15.9%	20.5%	20.5%	22.7%	-
15~20년 미만	12명	5명	11명	10명	20명	1
	20.3%	8.5%	18.6%	16.9%	33.9%	1.7%
20년 이상	24명	17명	38명	11명	55명	-
	16.6%	11.7%	26.2%	7.6%	37.9%	-
전체	119명	83명	113명	75명	143명	2명
	22.2%	15.5%	21.1%	14.0%	26.7%	0.4%

<표25> 활동하고 싶은 자원봉사활동

- 535명에게 활동하고 싶은 자원봉사를 물은 결과 ‘이웃과 함께 지역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거나 개선하는 활동’이 143명(26.7%)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 다음으로 ‘재능 나눔 활동(특기, 재능을 활용한 봉사활동)’이 119명(22.2%), ‘정서적 지원 활동(어르신 말벗, 청소년 멘토 활동 등)’이 113명(21.1%) 순으로 조사되었다.
- 가장 적은 응답은 ‘교육봉사활동’(14%)이었으며 ‘기타’ 응답의 경우 1건은 무응답, 1건은 ‘환경미화’로 답했다.



- 연령별 결과를 살펴보면 어르신의 43.4%가 ‘이웃과 함께 지역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거나 개선하는 활동’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정서적 지원 활동’이 30.3%, ‘재능나눔활동’이 20.2% 순으로 조사되었다.
- 장년 역시 ‘이웃과 함께 지역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거나 개선하는 활동’이 36.4%로 가장 많았으며 ‘재능나눔활동’ 2순위(24.2%), ‘정서적 지원 활동’ 3순위(21.2%)로 조사되었다.
- 중년의 경우 ‘재능나눔활동’이 22.6%로 가장 많았으며 그 외 응답은 유사한 값을 보이고 있다.
- 청년은 ‘이웃과 함께 지역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거나 개선하는 활동’이 27.8%로 가장 많았고, 다른 응답은 유사한 값을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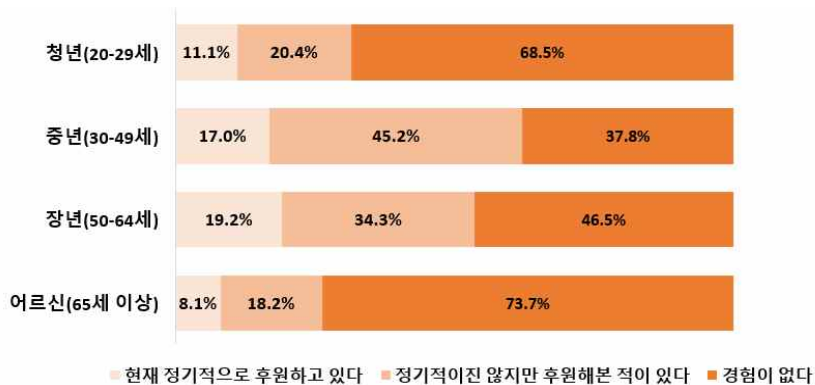
- 지역별 결과를 살펴보면 원도심에서는 ‘이웃과 함께 지역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거나 개선하는 활동’이 29.6%로 가장 많았으며 신도심은 ‘재능나눔 활동’이 24.7%로 많았다.
- 기타를 제외하고 가장 적은 응답은 두 지역 모두 ‘교육봉사활동’으로 나타났다.

마. 후원(기부)에 참여한 경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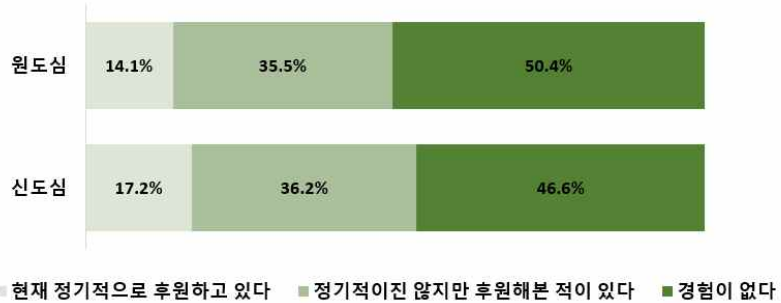
	현재 정기적으로 후원하고 있다	정기적이진 않지만 후원해본 적이 있다	경험이 없다	χ^2	p
청년 (20~29세)	6명	11명	37명	48.690	0.000
	11.1%	20.4%	68.5%		
중년 (30~49세)	48명	128명	107명		
	17.0%	45.2%	37.8%		
장년 (50~64세)	19명	34명	46명		
	19.2%	34.3%	46.5%		
어르신 (65세 이상)	8명	18명	73명		
	8.1%	18.2%	73.7%		
원도심	51명	128명	182명	1.127	0.569
	14.1%	35.5%	50.4%		
신도심	30명	63명	81명		
	17.2%	36.2%	46.6%		
전체	81명	191명	263명		
	15.1%	35.7%	49.2%		

<표26> 후원(기부)에 참여한 경험

- 후원(기부)에 참여한 경험 유무를 조사한 결과 ‘경험이 없다’가 263명(49.2%)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 다음으로 ‘정기적이진 않지만 후원해본 적이 있다’가 191명(35.7%), ‘현재 정기적으로 후원하고 있다’가 81명(15.1%) 순으로 조사되었다.



- 후원 경험(현재 하고 있거나 해본 적이 있는 경우)은 중년층이 62.2%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장년(53.5%), 청년(31.5%), 어르신(26.3%) 순으로 조사되었다.
- 후원 경험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은 어르신이 73.7%로 가장 많았고, 청년 68.5%, 장년 46.5%, 중년 37.8% 순으로 나타났다.



- 원도심과 신도심을 비교한 결과 큰 차이는 없었다. 두 지역 다 경험이 없는 경우가 많았으며 후원 경험은 신도심이 53.4%로 원도심(49.6%)보다 3.8%로 많았다.

바. 후원을 통해 기대하는 변화(후원 경험이 있는 경우)

	개인적인 행복감	종교적 신념 증대	도움받는 이웃의 행복	지역사회의 복지증진	기타	χ^2	p
청년 (20~29세)	4명	1명	8명	4명	0명	15.146	0.000
	23.5%	5.9%	47.1%	23.5%	0.0%		
중년 (30~49세)	45명	9명	80명	41명	1명		
	25.6%	5.1%	45.5%	23.3%	0.6%		
장년 (50~64세)	7명	4명	27명	15명	0명		
	13.2%	7.5%	50.9%	28.3%	0.0%		
어르신 (65세 이상)	6명	6명	10명	4명	0명		
	23.1%	23.1%	38.5%	15.4%	0.0%		
원도심	43명	15명	82명	39명	0명	3.699	0.569
	24.0%	8.4%	45.8%	21.8%	0.0%		
신도심	19명	5명	43명	25명	1명		
	20.4%	5.4%	46.2%	26.9%	1.1%		
전체	62명	20명	125명	64명	1명		
	22.8%	7.4%	46.0%	23.5%	0.4%		

<표27> 후원(기부)에 참여한 경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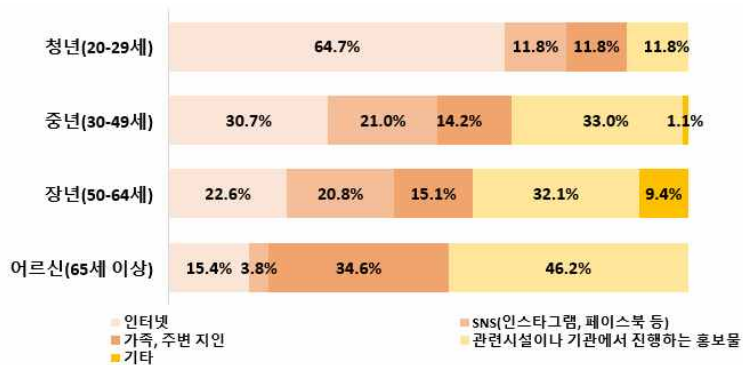
- 후원 경험(현재 후원하거나 과거 한 적이 있는 경우)이 있다고 응답한 272 명에게 후원을 통해 기대하는 변화를 물어본 결과 ‘도움받는 이웃의 행복’이 46%(125명)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 다음으로 ‘지역사회의 복지증진’이 23.5%(64명), ‘개인적인 행복감’이 22.8%(62명)로 나타났다. 연령, 도심형태에 따른 후원을 통해 기대하는 변화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 후원처에 대한 정보 습득

	인터넷	SNS(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	가족, 주변 지인	관련시설이나 기관에서 진행하는 홍보물	기타	χ^2	p
청년 (20~29세)	11명 64.7%	2명 11.8%	2명 11.8%	2명 11.8%	0명 0.0%	35.916	0.000
중년 (30~49세)	54명 30.7%	37명 21.0%	25명 14.2%	58명 33.0%	2명 1.1%		
장년 (50~64세)	12명 22.6%	11명 20.8%	8명 15.1%	17명 32.1%	5명 9.4%		
어르신 (65세 이상)	4명 15.4%	1명 3.8%	9명 34.6%	12명 46.2%	0명 0.0%		
원도심	48명 26.8%	35명 19.6%	30명 16.8%	60명 33.5%	6명 3.4%		
신도심	33명 35.5%	16명 17.2%	14명 15.1%	29명 31.2%	1명 1.1%	3.169	0.530
전체	81명 29.8%	51명 18.8%	44명 16.2%	89명 32.7%	7명 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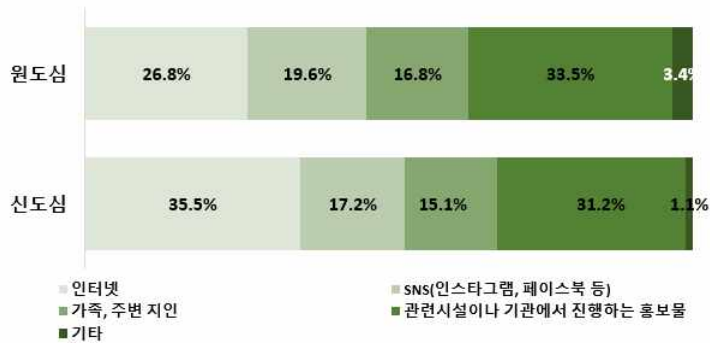
<표28> 후원처에 대한 정보 습득

- 후원처, 기부에 대한 정보를 어떠한 경로로 습득하는지를 묻는 문항에 ‘관련시설이나 기관에서 진행하는 홍보물’이 32.7%(89명)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 다음으로 ‘인터넷’이 29.8%(81명), ‘SNS(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가 18.8%(51명)로 조사되었다. 연령에 따른 후원처에 대한 정보 경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 청년의 경우 다른 세대에 비해 ‘인터넷’(64.7%)을 통해 얻는 정보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 응답은 각각 11.8%로 동일하게 조사되었다.

- 중년과 장년 역시 주로 온라인 매체(인터넷&SNS)를 통해 정보를 습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관련시설이나 기관에서 진행되는 홍보물’, ‘가족과 주변 지인을 통해’ 순으로 조사되었다.
- 어르신은 ‘관련 시설이나 기관에서 진행되는 홍보물’이 46.2%로 가장 많았으며 ‘가족이나 주변 지인’ 34.6%, ‘인터넷’ 15.4%, ‘SNS’ 38% 순으로 많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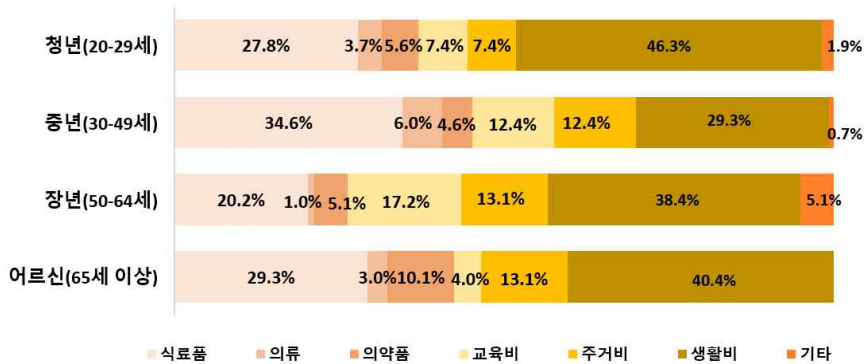
- 지역별로 살펴보면 신도심은 ‘인터넷’을 통한 정보 습득이 35.5%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관련 시설이나 기관에서 진행되는 홍보물’, ‘SNS’ 순으로 조사되었다.
- 원도심은 ‘관련 시설이나 기관에서 진행되는 홍보물’이 33.5%로 가장 많았고 ‘인터넷’ 26.8%, ‘SNS’ 19.6% 순으로 조사되었다.

아. 지역사회와 주민에게 필요한 후원금·품의 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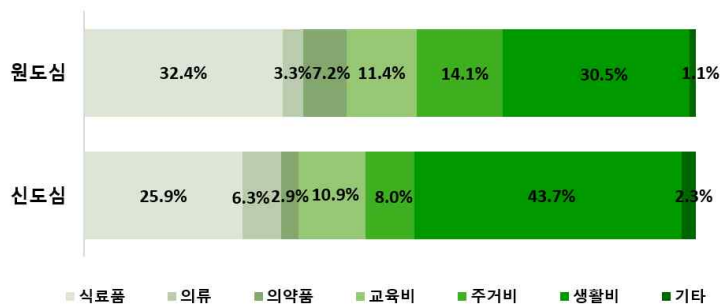
	식료품	의류	의약품	교육비	주거비	생활비	기타
청년 (20~29세)	15명	2명	3명	4명	4명	25명	1명
	27.8%	3.7%	5.6%	7.4%	7.4%	46.3%	1.9%
중년 (30~49세)	98명	17명	13명	35명	35명	83명	2명
	34.6%	6.0%	4.6%	12.4%	12.4%	29.3%	0.7%
장년 (50~64세)	20명	1명	5명	17명	13명	38명	5명
	20.2%	1.0%	5.1%	17.2%	13.1%	38.4%	5.1%
어르신 (65세 이상)	29명	3명	10명	4명	13명	40명	-
	29.3%	3.0%	10.1%	4.0%	13.1%	40.4%	-
원도심	117명	명12	26명	41명	51명	110명	4명
	32.4%	3.3%	7.2%	11.4%	14.1%	30.5%	1.1%
신도심	45명	11명	5명	19명	14명	76명	4명
	25.9%	6.3%	2.9%	10.9%	8.0%	43.7%	2.3%
전체	162명	23명	31명	60명	65명	186명	8명
	30.3%	4.3%	5.8%	11.2%	12.1%	34.8%	1.5%

<표29> 지역사회와 주민에게 필요한 후원금·품의 유형

- 응답자 전원에게 지역사회와 주민에게 필요할 것 같은 후원금(후원품)을 물은 결과 ‘생활비’가 34.8%(186명)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 다음으로 ‘식료품’이 30.3%(162명), ‘주거비’가 12.1%(65명)로 나타났다.
- 연령, 도심형태에 따른 지역사회와 주민에게 필요한 후원금(혹은 후원품)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 세대별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청년과 장년, 어르신의 응답 결과가 유사한 것을 알 수 있다. 1순위가 ‘생활비’로 조사되었으며 2순위 ‘식료품’, 3순위 ‘교육비’로 조사되었다.
- 중년의 경우 ‘식료품’이 34.6%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생활비’ 29.3%, ‘교육비’, ‘주거비’ 각 12.4%로 조사되었다.



- 지역별로 살펴보면 신도심에서는 ‘생활비’가 43.7%로 가장 많았고 ‘식료품’이 25.9% ‘교육비’ 10.9% 순으로 조사되었다.
- 원도심의 경우 ‘식료품’이 32.4%로 가장 많았으며 ‘생활비’ 30.5%, ‘주거비’ 14.1% 순으로 많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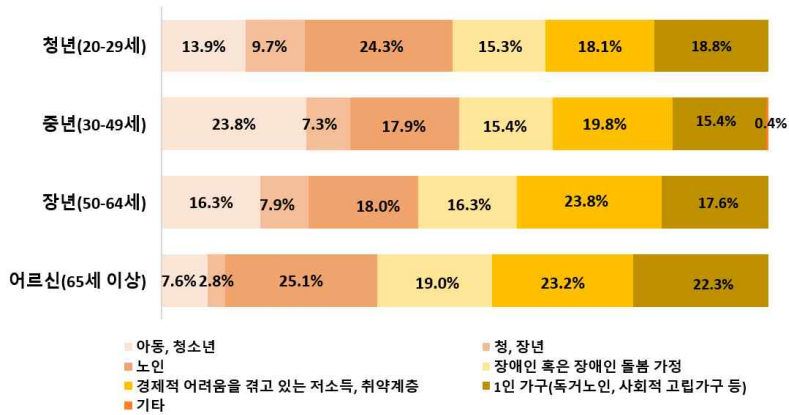
5. 나와 지역사회에 필요한 복지서비스

가. 우리 사회에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대상(다중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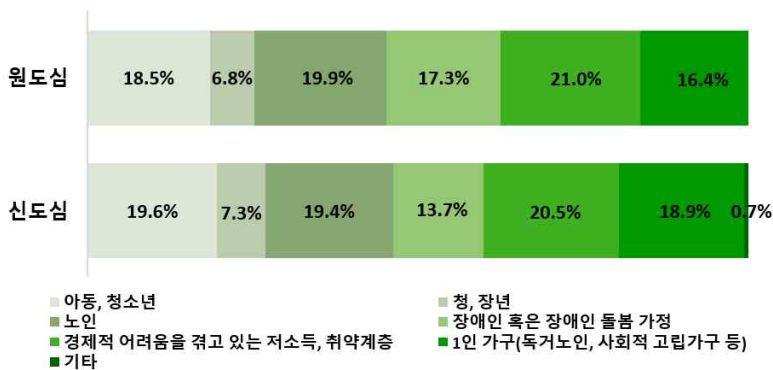
	아동, 청소년	청, 장년	노인	장애인 혹은 장애인 돌봄 가정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취약계층	1인 가구 (독거노인, 사회적 고립 가구 등)	기타
청년 (20~29세)	20명	14명	35명	22명	26명	27명	-
	13.9%	9.7%	24.3%	15.3%	18.1%	18.8%	-
중년 (30~49세)	176명	54명	132명	114명	146명	114명	3명
	23.8%	7.3%	17.9%	15.4%	19.8%	15.4%	0.4%
장년 (50~64세)	39명	19명	43명	39명	57명	42명	-
	16.3%	7.9%	18.0%	16.3%	23.8%	17.6%	-
어르신 (65세 이상)	16명	6명	53명	40명	49명	47명	-
	7.6%	2.8%	25.1%	19.0%	23.2%	22.3%	-
원도심	165명	61명	178명	155명	188명	147명	-
	18.5%	6.8%	19.9%	17.3%	21.0%	16.4%	-
신도심	86명	32명	85명	60명	90명	83명	3명
	19.6%	7.3%	19.4%	13.7%	20.5%	18.9%	0.7%
전체	251명	93명	263명	215명	278명	230명	3명
	18.8%	7.0%	19.7%	16.1%	20.9%	17.3%	0.2%

<표30> 우리 사회에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대상

- 우리 지역사회에서 우선하여 지원이 필요하거나 관심이 필요한 대상을 다중 응답으로 조사한 결과(응답 건수 1,333)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취약계층이 20.9%(278명)로 가장 많았다.
- 다음으로 ‘노인’이 19.7%(263명), ‘아동, 청소년’이 18.8%(251명), ‘1인 가구’가 17.3%(230명) 순으로 조사되었다.
- 가장 적은 응답은 ‘청, 장년’으로 93명(7%)이 응답했다.
- ‘기타’ 응답 2건은 무응답, 1건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 누구나’라고 응답했다.



- 연령 별 응답결과를 살펴보면 청년과 장년은 유사한 응답을 보였다. 1순위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취약계층’을 꼽았으며 2순위로 ‘노인’, 3순위는 ‘1인 가구’ 4순위 ‘장애인 혹은 장애인 돌봄 가정’을 선택했다.
- 중년의 경우 ‘아동·청소년’이 23.8%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취약계층(19.8%), ‘노인’ 17.9%로 조사되었다.
- 어르신의 경우 ‘노인’이 25.1%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취약계층’, ‘1인 가구’, ‘장애인 혹은 장애인 돌봄 가정’ 순으로 조사되었다.
- 모든 세대에서 ‘청, 장년’에 대한 응답이 가장 적었다.



- 지역별 분석값은 두 지역 모두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취약계층’이 가장 많았고 2순위로 원도심은 ‘노인’을 신도심은 ‘아동·청소년’을 선택했다. 이는 지역별 인구특성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나. 주민이 기대하는 하남시종합사회복지관의 역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	지역주민의 평생학습을 위해 교육문화 강좌를 제공	지역주민의 심리·정서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상담 및 치료, 정서 지원을 제공	주민교류 활성화를 위해 동아리나 친목·자조 모임을 지원
청년 (20~29세)	23명	13명	17명	15명
	17.3%	9.8%	12.8%	11.3%
중년 (30~49세)	150명	106명	100명	41명
	21.2%	15.0%	14.1%	5.8%
장년 (50~64세)	49명	28명	38명	11명
	19.2%	11.0%	14.9%	4.3%
어르신 (65세 이상)	57명	22명	23명	14명
	25.9%	10.0%	10.5%	6.4%
원도심	186명	113명	126명	56명
	21.5%	13.0%	14.5%	6.5%
신도심	93명	56명	52명	25명
	20.6%	12.4%	11.5%	5.5%
경제적 보호 없음	178명	138명	130명	67명
	18.3%	14.2%	13.3%	6.9%
저소득	34명	6명	14명	5명
	33.0%	5.8%	13.6%	4.9%
차상위	23명	8명	8명	4명
	31.1%	10.8%	10.8%	5.4%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44명	17명	26명	5명
	26.7%	10.3%	15.8%	3.0%
전체	279명	169명	178명	81명
	21.2%	12.8%	13.5%	6.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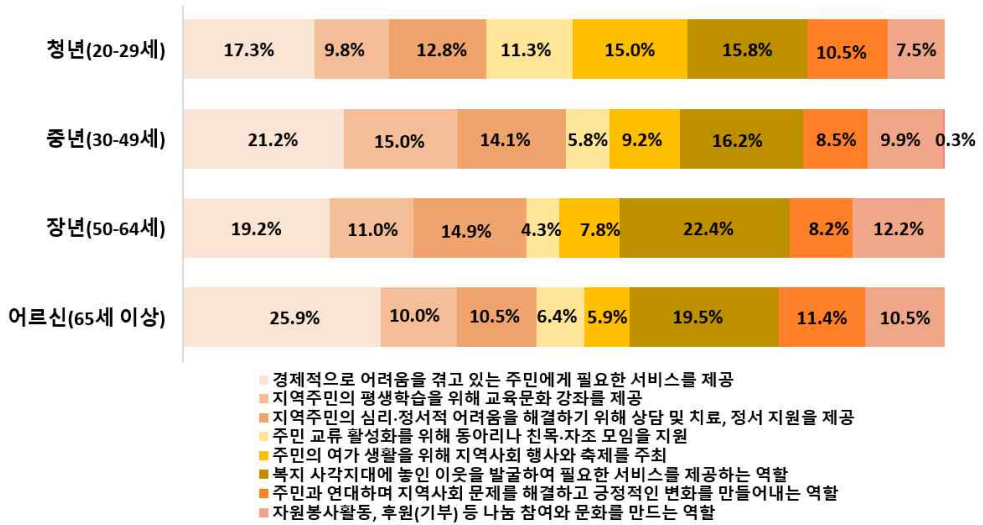
<표31-1> 지역주민이 기대하는 하남시종합사회복지관의 역할

다음 페이지 표 이어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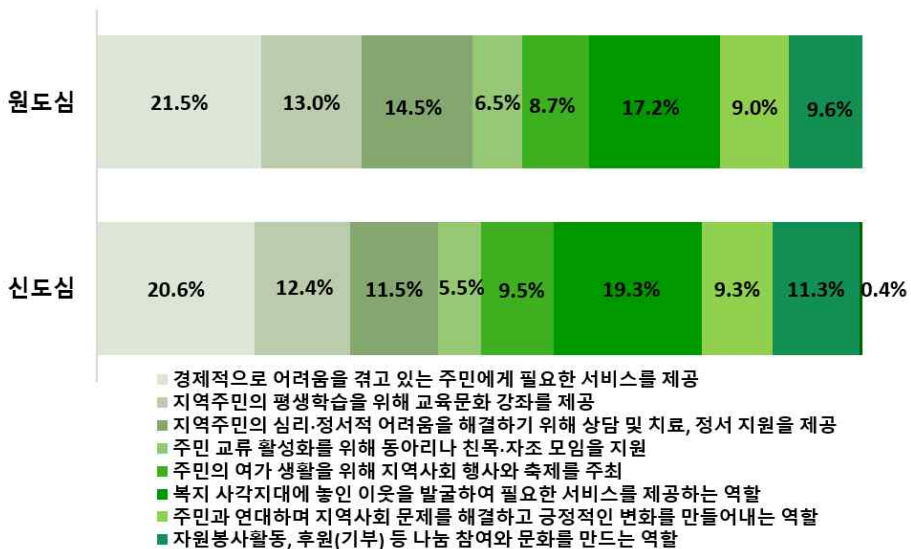
	주민의 여가생활을 위해 지역사회 행사와 축제를 주최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이웃을 발굴 하여 필요한 서비 스를 제공하는 역할	주민과 연대하며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긍정적인 변화를 만드는 역할	자원봉사활동, 후원(기부) 등 나 눔 참여와 문화를 만드는 역할	기타
청년 (20~29세)	20명	21명	14명	10명	0명
	15.0%	15.8%	10.5%	7.5%	0.0%
중년 (30~49세)	명65	115명	60명	70명	2명
	9.2%	16.2%	8.5%	9.9%	0.3%
장년 (50~64세)	20명	명57	21명	31명	0명
	7.8%	22.4%	8.2%	12.2%	0.0%
어르신 (65세 이상)	13명	43명	25명	23명	0명
	5.9%	19.5%	11.4%	10.5%	0.0%
원도심	75명	149명	78명	83명	0명
	8.7%	17.2%	9.0%	9.6%	0.0%
신도심	43명	87명	42명	51명	2명
	9.5%	19.3%	9.3%	11.3%	0.4%
경제적 보호 없음	94명	174명	94명	98명	2명
	9.6%	17.8%	9.6%	10.1%	0.2%
저소득	8명	19명	8명	9명	0명
	7.8%	18.4%	7.8%	8.7%	0.0%
차상위	4명	12명	6명	9명	0명
	5.4%	16.2%	8.1%	12.2%	0.0%
국민기초생 활보장 수급자	12명	31명	12명	18명	0명
	7.3%	18.8%	7.3%	10.9%	0.0%
전체	118명	236명	120명	134명	2명
	9.0%	17.9%	9.1%	10.2%	0.2%

<표31-2> 지역주민이 기대하는 하남시종합사회복지관의 역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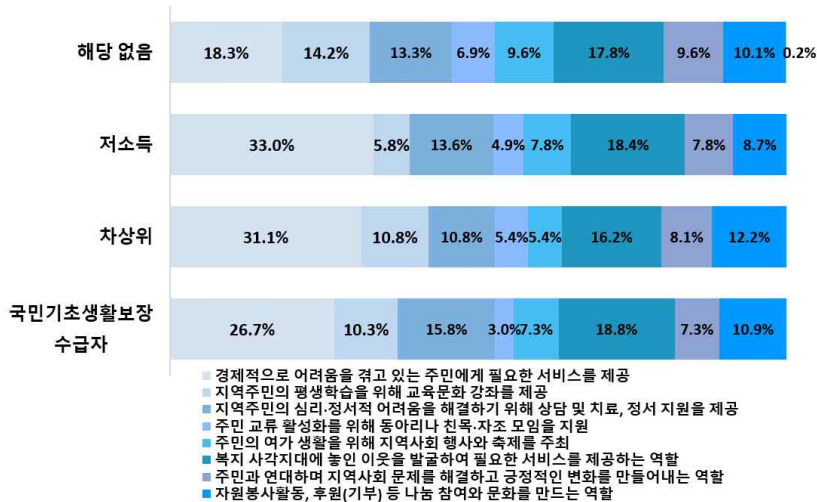
- 지역주민이 기대하는 하남시종합사회복지관의 역할을 다중응답으로 조사한 결과(응답 건수 1,317)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이 21.2%(279명)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 다음으로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이웃을 발굴하여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이 17.9%(236명), ‘지역주민의 심리·정서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상담 및 치료, 정서 지원을 제공’이 13.5%(178명) 순으로 나타났다.
- 가장 적은 응답으로는 ‘주민교류 활성화를 위해 동아리나 친목·자조 모임 지원’ 6.2%(81명)이었으며 ‘기타’의 경우 무응답이었다.



- 연령대별로 조사 결과를 살펴본 결과 청년과 중년, 어르신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에게 필요한 서비스 제공’을 1순위로 꼽았으며 장년의 경우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이웃을 발굴하여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을 선택했다.
- 중년과 장년은 ‘주민교류 활성화를 위한 동아리·자조 모임 지원’ 응답이 가장 적었으며 어르신은 ‘주민의 여가생활을 위한 행사와 축제 주최’, 청년은 ‘자원봉사활동, 후원 등 나눔 참여 문화를 만드는 역할’이 가장 적었다.



- 지역별로 살펴보면 1순위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에게 필요한 서비스 제공'과 2순위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이웃을 발굴하여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은 동일하나 원도심은 3순위로 '지역주민의 심리·정서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상담 및 치료, 정서 지원을 제공'을 1순위로 선택했다. 원도심은 '지역주민의 평생학습을 위해 교육문화 강좌 제공'을 선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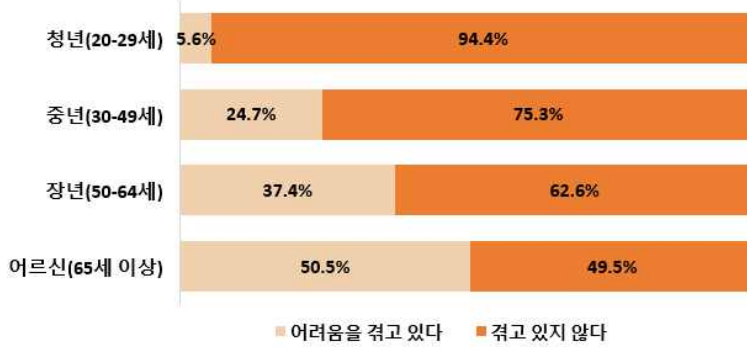
- 경제적 보호구분으로 분석된 데이터를 보면 저소득, 차상위, 수급자에 해당하는 응답자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에게 필요한 서비스 제공'을 1순위로 선택함. 다음으로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이웃을 발굴하여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을 2순위로 꼽았다.
- 저소득과 수급자에 해당하는 응답자는 '지역주민의 심리·정서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상담 및 치료, 정서 지원을 제공'을 3순위로 선택했지만 차상위는 '자원봉사활동, 후원(기부) 등 나눔 참여와 문화를 만드는 역할'에 대한 응답이 많았다.
- 경제적 보호구분에 해당이 되지 않는 일반 가구의 경우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에게 필요한 서비스 제공'을 1순위(18.3%)로 2순위로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이웃을 발굴하여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을 선택했다.

다. 본인 혹은 가족 구성원이 겪고 있는 문제와 어려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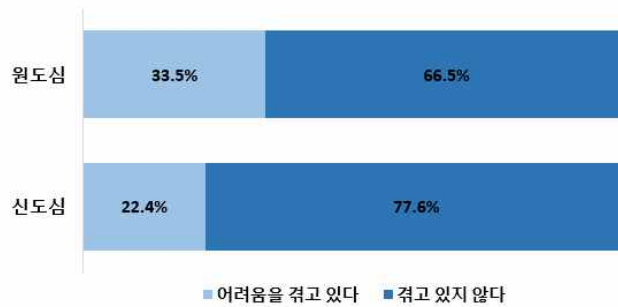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겪고 있지 않다	χ^2	P
청년 (20~29세)	3명	51명	41.557	0.000
	5.6%	94.4%		
중년 (30~49세)	70명	213명		
	24.7%	75.3%		
장년 (50~64세)	37명	62명		
	37.4%	62.6%		
어르신 (65세 이상)	50명	49명		
	50.5%	49.5%		
원도심	121명	240명	6.906	0.009
	33.5%	66.5%		
신도심	39명	135명		
	22.4%	77.6%		
경제적 보호 없음	58명	324명	140.881	0.000
	15.2%	84.8%		
저소득	30명	19명		
	61.2%	38.8%		
차상위	22명	14명		
	61.1%	38.9%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50명	18명		
	73.5%	26.5%		
장애해당(본인, 가족)	23명	36명	2.606	0.106
장애 해당되지 않음	39.0%	61.0%		
전체	137명	339명		
	28.8%	71.2%		

<표32> 지역주민이 기대하는 하남시종합사회복지관의 역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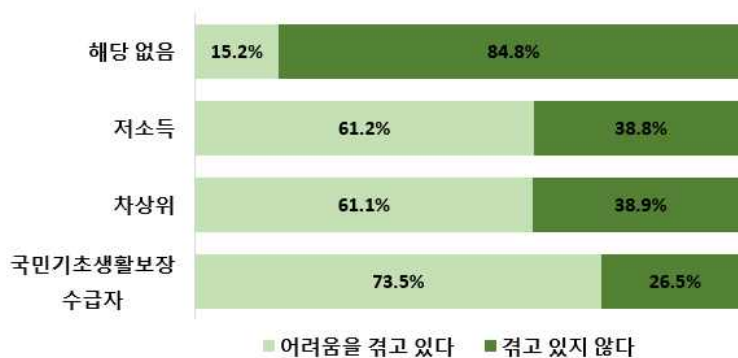
- 응답자 535명을 대상으로 본인 혹은 가족 구성원이 문제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묻는 문항에 ‘겪고 있지 않다’가 70.1%(375명),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29.9%(160명)로 조사되었다.
- 장애에 해당(본인 혹은 가족)하는 응답자의 경우 39%가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연령, 도심형태, 경제적 보호구분에 따른 본인 혹은 가족 구성원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부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 연령 별 결과를 살펴보면 어르신의 경우 50.5%가 ‘현재 어려움이나 문제를 겪고 있다’라고 응답했으며 청년은 5.6%에 불과하였다.
- 중년 24.7% 장년은 37.4%가 ‘현재 어려움이나 문제를 겪고 있다’라고 응답했다.



- 지역별로 결과를 살펴보면 원도심의 경우 신도심(22.4%)보다 11.1% 높은 33.5%가 ‘어려움이나 문제를 겪고 있다’라고 응답했다.



- 경제적 보호구분으로 저소득과 차상위는 61%, 수급자는 73.5%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해당이 없는 일반 가구는 15.2%로 조사되었다.

라. 나 혹은 가족에게 필요한 복지서비스

	현물 지원(식 료품(김치, 쌀 등), 생필품, 전 자제품 등)	현금 지원(생 계비, 교육비, 주거비, 냉난방 비 등)	식생활 지원 (도시락·밀반 찬, 먹거리 등)	조리 교육 지원	본인 혹은 가족 의 건강 지원 (건강검진, 의 료비, 기기 등)
청년 (20~29세)	1명	1명	-	1명	1명
	25.0%	25.0%	-	25.0%	25.0%
중년 (30~49세)	25명	49명	14명	9명	22명
	13.4%	26.2%	7.5%	4.8%	11.8%
장년 (50~64세)	18명	29명	14명	7명	17명
	11.5%	18.6%	9.0%	4.5%	10.9%
어르신 (65세 이상)	34명	36명	34명	7명	31명
	11.6%	12.2%	11.6%	2.4%	10.5%
원도심	65명	86명	51명	19명	59명
	12.2%	16.1%	9.6%	3.6%	11.1%
신도심	13명	29명	11명	5명	12명
	12.0%	26.9%	10.2%	4.6%	11.1%
경제적 보호 없음	19명	30명	14명	11명	26명
	9.7%	15.3%	7.1%	5.6%	13.3%
저소득	15명	23명	11명	4명	12명
	15.3%	23.5%	11.2%	4.1%	12.2%
차상위	11명	19명	7명	2명	8명
	12.6%	21.8%	8.0%	2.3%	9.2%
국민기초생 활보장 수급자	33명	43명	30명	7명	25명
	12.7%	16.5%	11.5%	2.7%	9.6%
장애해당(본 인, 가족)	12명	14명	9명	6명	9명
	14.8%	17.3%	11.1%	7.4%	11.1%
장애 해당되 지 않음	66명	101명	53명	18명	62명
	11.8%	18.0%	9.5%	3.2%	11.1%
전체	78명	115명	62명	24명	71명
	12.2%	17.9%	9.7%	3.7%	11.1%

<표33-1> 지역주민이 기대하는 하남시종합사회복지관의 역할

다음 페이지 표 이어짐.

	건강증진 관련 교육	대인관계(친구, 이웃 등) 형성	가족관계(부모, 자녀, 형제 등) 개선	기타 정서 및 관계 지원(심리치료, 심리상담 등)	주거보수(도배, 소모품 교체, 집수리 등)
청년 (20~29세)	-	-	-	-	-
	-	-	-	-	-
중년 (30~49세)	11명	10명	8명	13명	9명
	5.9%	5.3%	4.3%	7.0%	4.8%
장년 (50~64세)	7명	3명	7명	9명	13명
	4.5%	1.9%	4.5%	5.8%	8.3%
어르신 (65세 이상)	23명	20명	10명	19명	16명
	7.8%	6.8%	3.4%	6.5%	5.4%
원도심	34명	30명	24명	35명	33명
	6.4%	5.6%	4.5%	6.6%	6.2%
신도심	7명	3명	1명	6명	5명
	6.5%	2.8%	0.9%	5.6%	4.6%
경제적 보호 없음	18명	12명	10명	17명	10명
	9.2%	6.1%	5.1%	8.7%	5.1%
저소득	4명	5명	4명	5명	3명
	4.1%	5.1%	4.1%	5.1%	3.1%
차상위	5명	2명	3명	3명	8명
	5.7%	2.3%	3.4%	3.4%	9.2%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14명	14명	8명	16명	17명
	5.4%	5.4%	3.1%	6.2%	6.5%
장애해당(본인, 가족)	5명	5명	2명	2명	5명
	6.2%	6.2%	2.5%	2.5%	6.2%
장애 해당되지 않음	36명	28명	23명	39명	33명
	6.4%	5.0%	4.1%	7.0%	5.9%
전체	41명	33명	25명	41명	38명
	6.4%	5.1%	3.9%	6.4%	5.9%

<표33-2> 지역주민이 기대하는 하남시종합사회복지관의 역할

다음 페이지 표 이어짐.

	환경개선(해충 방제, 정리수납, 구조 변경 등)	노후 가전, 가구 교체	이·미용 등 위생지원 서비스	신문 배달 서비스
청년 (20~29세)	-	-	-	-
중년 (30~49세)	7명 3.7%	6명 3.2%	3명 1.6%	1명 0.5%
장년 (50~64세)	9명 5.8%	14명 9.0%	7명 4.5%	2명 1.3%
어르신 (65세 이상)	14명 4.8%	17명 5.8%	28명 9.5%	5명 1.7%
원도심	26명 4.9%	31명 5.8%	33명 6.2%	7명 1.3%
신도심	4명 3.7%	6명 5.6%	5명 4.6%	1명 0.9%
경제적 보호 없음	9명 4.6%	9명 4.6%	9명 4.6%	2명 1.0%
저소득	4명 4.1%	5명 5.1%	2명 2.0%	1명 1.0%
차상위	4명 4.6%	7명 8.0%	7명 8.0%	1명 1.1%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13명 5.0%	16명 6.2%	20명 7.7%	4명 1.5%
장애해당 (본인, 가족)	4명 4.9%	5명 6.2%	3명 3.7%	-
장애 해당 되지 않음	26명 4.6%	32명 5.7%	35명 6.3%	8명 1.4%
전체	30명 4.7%	37명 5.8%	38명 5.9%	8명 1.2%

<표33-3> 지역주민이 기대하는 하남시종합사회복지관의 역할

- 현재 '나 혹은 가족이 문제나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응답한 137명의 응답자에게 '나와 가족에게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다중응답으로 물은 결과 641건의 응답이 도출되었다.
- '현금 지원(생계비, 교육비, 주거비, 냉난방비 등)'이 17.9%(115명 응답)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으며 다음으로 '현물 지원(식료품(김치, 쌀 등), 생필품, 전자제품 등)'이 12.2%(78명), '본인 혹은 가족의 건강 지원(건강검진, 의료비, 기기 등)'이 11.1%(71명) 순으로 나타났다.
- 제일 적은 응답은 신문배달 서비스로 8명(1.2%)에 그쳤다.
- 연령대별 응답을 분석해보면 어르신은 '현금 지원'에 대한 응답이 12.2%로 가장 많았으며 '현물지원'과 '식생활 지원' 각 11.6%, '본인 혹은 가족의 건강지원' 10.5%, 이·미용 등 위생지원서비스 9.5% 순으로 조사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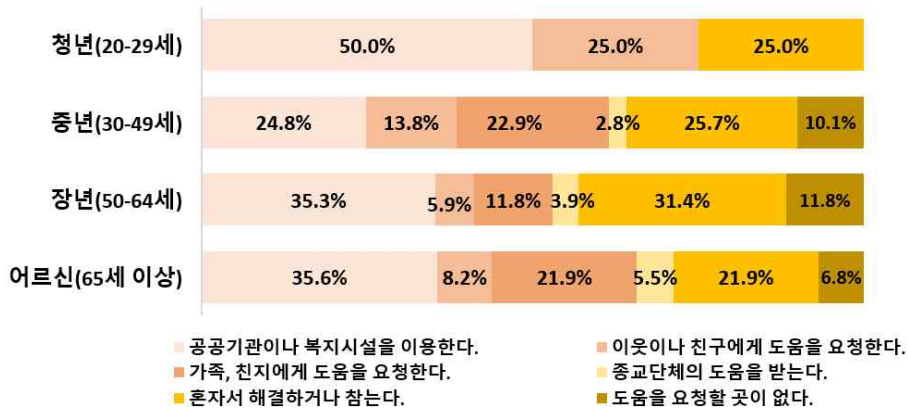
- 장년과 중년 또한 역시 ‘현금 지원’이 각각 18.6%와 26.2%로 가장 많았으며 ‘현물지원’은 11.5%와 13.4%, ‘본인 혹은 가족의 건강지원’ 10.9%와 11.8% 순으로 조사되었다.
- 청년도 장년과 중년과 동일한 욕구를 보였으나 응답자가 1명에 그쳐 유의미한 값이라고 볼 수는 없다.
- 그 외 지역, 경제적 보호 구분, 장애 여부에 따른 결괏값 역시 전체 분석값과 동일한 수치와 비율을 보였다.

마. 어려움이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다중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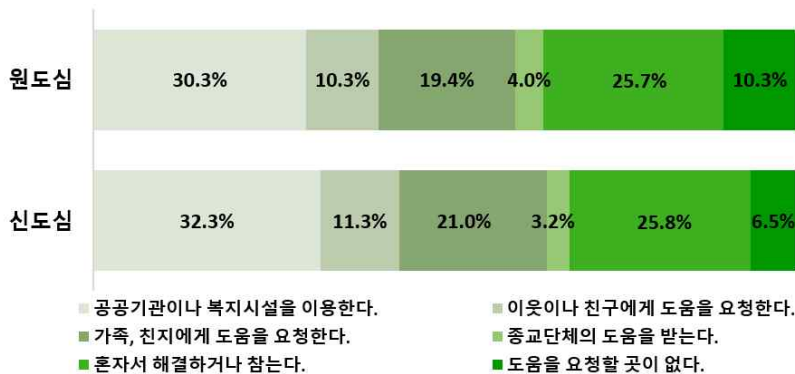
	공공기관이나 복지시설을 이용한다	이웃이나 친구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가족, 친지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종교단체의 도움을 받는다	혼자서 해결하거나 참는다	도움을 요청할 곳이 없다
청년 (20~29세)	2명	1명	-	-	1명	-
	50.0%	25.0%	-	-	25.0%	-
중년 (30~49세)	27명	15명	25명	3명	28명	11명
	24.8%	13.8%	22.9%	2.8%	25.7%	10.1%
장년 (50~64세)	18명	3명	6명	2명	16명	6명
	35.3%	5.9%	11.8%	3.9%	31.4%	11.8%
어르신 (65세 이상)	26명	6명	16명	4명	16명	5명
	35.6%	8.2%	21.9%	5.5%	21.9%	6.8%
원도심	53명	18명	34명	7명	45명	18명
	30.3%	10.3%	19.4%	4.0%	25.7%	10.3%
신도심	20명	7명	13명	2명	16명	4명
	32.3%	11.3%	21.0%	3.2%	25.8%	6.5%
경제적 보호 없음	13명	12명	17명	5명	27명	11명
	15.3%	14.1%	20.0%	5.9%	31.8%	12.9%
저소득	17명	8명	11명	-	9명	1명
	37.0%	17.4%	23.9%	-	19.6%	2.2%
차상위	12명	3명	6명	1명	4명	3명
	41.4%	10.3%	20.7%	3.4%	13.8%	10.3%
국민기초생활 보장 수급자	31명	2명	13명	3명	21명	7명
	40.3%	2.6%	16.9%	3.9%	27.3%	9.1%
장애해당 (본인, 가족)	9명	5명	11명	1명	7명	5명
	23.7%	13.2%	28.9%	2.6%	18.4%	13.2%
장애 해당 되지 않음	64명	20명	36명	8명	54명	17명
	32.2%	10.1%	18.1%	4.0%	27.1%	8.5%
전체	73명	25명	47명	9명	61명	22명
	30.8%	10.5%	19.8%	3.8%	25.7%	9.3%

<표34> 어려움이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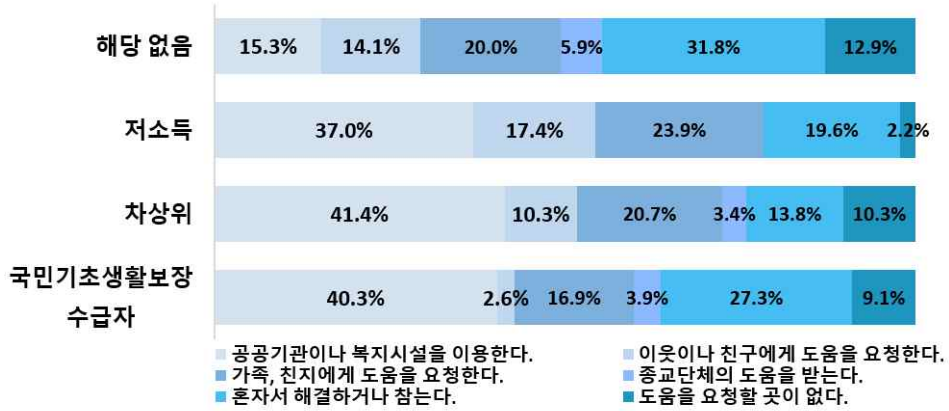
-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응답한 137명의 응답자에게 ‘어려움이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다중응답으로 물은 결과 ‘공공기관이나 복지시설을 이용한다’가 30.8%(73명)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 다음으로 ‘혼자서 해결하거나 참는다’가 25.7%(61명), ‘가족, 친지에게 도움을 요청한다’가 19.8%(47명) 순으로 나타났다.



-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어르신과 장년의 경우 어려움이 생길 때 ‘공공기관이나 복지시설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 ‘혼자서 해결하거나 참는 사례’는 장년(31.4%)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어르신이 21.9%로 가장 적었다.
- ‘가족, 친지에게 도움을 청하는 방법’은 중년이 22.9%로 가장 많았으며 어르신 21.9%, 장년 11.8% 순으로 조사되었다.



- 지역별로 분석했을 때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으며 전체 응답과 동일하였다.



- 경제적 보호구분으로 분류했을 때 저소득, 차상위, 수급자 모두 ‘공공기관이나 복지시설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 다음으로 수급자는 ‘혼자서 해결하거나 참는다’가 27.3%로 조사되었으며 저소득과 차상위는 ‘가족, 친지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사례가 많았다.
- 경제적 보호를 받지 않는 그룹에서 ‘혼자서 해결하거나 참는다’라는 응답이 31.8%로 가장 많았으며, ‘도움을 요청할 곳이 없다’ 역시 12.9%로 다른 그룹보다 많았다.

바. 어려움이나 문제 해결을 위한 복지관 이용 여부

	복지관을 이용한다	이용하지 않는다	χ^2	P
청년 (20~29세)	28명	26명	28.654	0.000
	51.9%	48.1%		
중년 (30~49세)	236명	47명		
	83.4%	16.6%		
장년 (50~64세)	73명	26명		
	73.7%	26.3%		
어르신 (65세 이상)	68명	31명		
	68.7%	31.3%		
원도심	277명	84명	.641	0.423
	76.7%	23.3%		
신도심	128명	46명		
	73.6%	26.4%		
경제적 보호 없음	276명	106명	9.242	0.026
	72.3%	27.7%		
저소득	43명	6명		
	87.8%	12.2%		
차상위	29명	7명		
	80.6%	19.4%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57명	11명		
	83.8%	16.2%		
장애해당(본인, 가족)	43명	16명	.287	0.592
	72.9%	27.1%		
장애 해당되지 않음	362명	114명		
	76.1%	23.9%		
전체	405명	130명		
	75.7%	24.3%		

<표35> 지역주민이 기대하는 하남시종합사회복지관의 역할

- 응답자 전원에게 향후 혹은 현재의 어려움이나 문제 해결을 위해 복지관을 이용할 것인지 물어본 결과 405명이 '복지관을 이용한다', 130명이 '이용하지 않는다'라고 응답했다.
- 연령별, 지역별, 경제적 보호, 장애 여부 모두 '복지관을 이용한다' 비율이 높았기 때문에 별도 그래프를 통한 분석은 생략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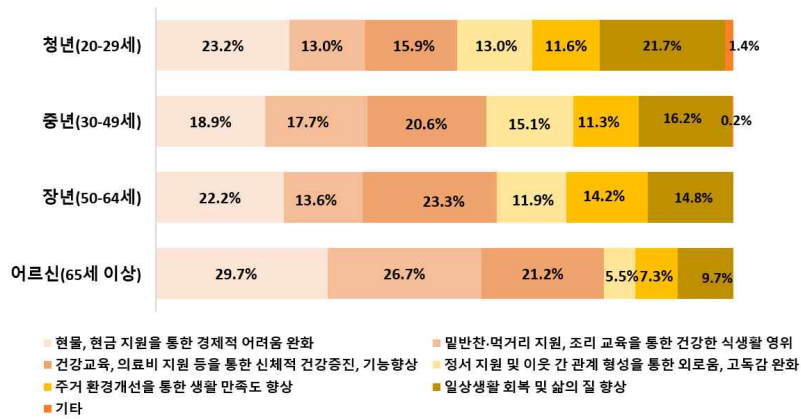
사. 복지관 이용을 통해 바라는 변화(다중응답)

	현물, 현금 지원을 통한 경제적 어 려움 완화	밀반찬· 막걸리 지원 조리 교육을 통한 건강한 식생활 영위	건강 교 육, 의료비 지원 등을 통한 신체 적 건강증 진, 기능향상	정서지원및 이웃 간 관계 형성을 통한 외로움 고독감 완화	주거 환경 개선을 통한 생활 만족도 향상	일상생활 회복 및 질 향상	기타
청년 (20~29세)	16명	9명	11명	9명	8명	15명	1명
	23.2%	13.0%	15.9%	13.0%	11.6%	21.7%	1.4%
중년 (30~49세)	99명	93명	108명	79명	59명	85명	1명
	18.9%	17.7%	20.6%	15.1%	11.3%	16.2%	0.2%
장년 (50~64세)	39명	24명	41명	21명	25명	26명	-
	22.2%	13.6%	23.3%	11.9%	14.2%	14.8%	-
어르신 (65세 이상)	49명	44명	35명	9명	12명	16명	-
	29.7%	26.7%	21.2%	5.5%	7.3%	9.7%	-
원도심	146명	112명	128명	76명	68명	95명	-
	23.4%	17.9%	20.5%	12.2%	10.9%	15.2%	-
신도심	57명	58명	67명	42명	36명	47명	2명
	18.4%	18.8%	21.7%	13.6%	11.7%	15.2%	0.6%
경제적 보호 없음	103명	102명	130명	98명	73명	109명	2명
	16.7%	16.5%	21.1%	15.9%	11.8%	17.7%	0.3%
저소득	28명	24명	25명	10명	11명	11명	-
	25.7%	22.0%	22.9%	9.2%	10.1%	10.1%	-
차상위	24명	11명	10명	4명	6명	6명	-
	39.3%	18.0%	16.4%	6.6%	9.8%	9.8%	-
국민기초생활 보장 수급자	48명	33명	30명	6명	14명	16명	-
	32.7%	22.4%	20.4%	4.1%	9.5%	10.9%	-
장애해당 (본인, 가족)	30명	22명	18명	8명	7명	9명	-
	31.9%	23.4%	19.1%	8.5%	7.4%	9.6%	-
장애 해당 되지 않음	173명	148명	177명	110명	97명	133명	2명
	20.6%	17.6%	21.1%	13.1%	11.5%	15.8%	0.2%
전체	203명	170명	195명	118명	104명	142명	2명
	21.7%	18.2%	20.9%	12.6%	11.1%	15.2%	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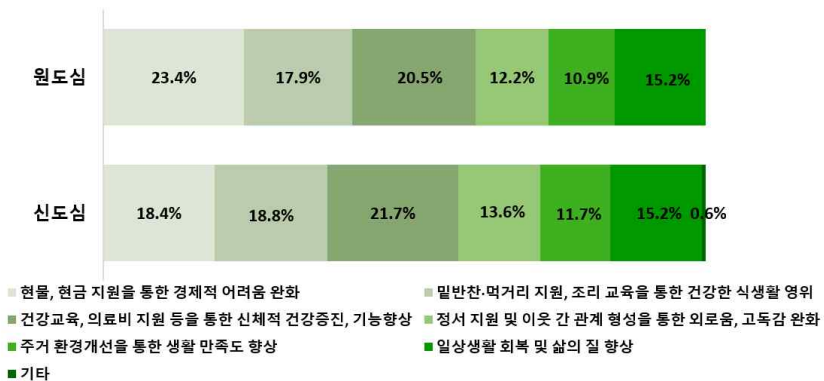
<표36> 복지관 이용을 통해 바라는 변화

- ‘어려움이나 문제 해결을 위해 복지관을 이용한다’라고 응답한 405명의 응답자에게 ‘복지관 이용을 통해 바라는 변화를 다중응답으로 조사하였다.’

- 조사 결과 ‘현물, 현금 지원을 통한 경제적 어려움 완화’에 21.7%(203명)가 응답하여 가장 많은 비율을 보였다.
- 다음으로 ‘건강 교육, 의료비 지원 등을 통한 신체적 건강증진, 기능향상’이 2순위(20.9%, 195명 응답), 3순위는 ‘밀반찬, 먹거리 지원, 조리교육을 통한 식생활 영위’(18.2%, 170명 응답)로 조사되었다.
- 가장 적은 응답은 ‘주거환경 개선을 통한 생활 만족도 향상’으로 11.1%(104명)의 응답을 보였다.



- 연령별 응답을 살펴보면 어르신과 청년은 ‘현물, 현금 지원을 통한 경제적 어려움 완화’가 가장 많았으며 중년과 장년에는 ‘건강 교육, 의료비 지원을 통한 신체적 건강증진·기능향상’이라고 응답했다.



- 지역별 응답은 유사함을 보이거나 원도심은 ‘현물, 현금 지원을 통한 경제적 어려움 완화’, 신도심은 ‘건강 교육, 의료비 지원 등을 통한 신체적 건강증진, 기능향상’을 각각 1순위로 꼽았다.

6. 나와 가족에게 필요한 여가·교육·문화프로그램

가. 나 혹은 가족에게 필요한 프로그램(다중응답)

	가족관계 증진 프로그램 (상담, 심리검사, 활동 등)	육아·양육 관련 부모 교육	아동·청소년 재활 치료 서비스	일상생활 관련 교육 (경리수납, 요리, 안전 등)	정서 지원, 사회적 관계 형성 프로그램	사회성 증진 활동 (권리증진, 방학, 사회성 놀이 등)
원도심	119명	84명	56명	72명	63명	64명
	8.9%	6.3%	4.2%	5.4%	4.7%	4.8%
신도심	46명	43명	25명	38명	27명	23명
	7.7%	7.2%	4.2%	6.3%	4.5%	3.8%
장애해당 (본인, 가족)	19명	명11	14명	13명	16명	9명
	9.1%	5.3%	6.7%	6.2%	7.7%	4.3%
장애 해당되지 않음	146명	116명	67명	97명	74명	78명
	8.4%	6.7%	3.9%	5.6%	4.3%	4.5%
전체	165명	127명	81명	110명	90명	87명
	8.5%	6.5%	4.2%	5.7%	4.6%	4.5%

<표37-1> 나 혹은 가족에게 필요한 프로그램

	여가·문화체험 활동 (공연 관람, 체험활동 등)	교육문화 강좌 (피아노, 미술, 코딩 등)	진로 탐색교육 (직업 교육, 멘토링, 학습 지원 등)	나눔 교육 (자원봉사 나눔학교 등)	교육문화 강좌 (피아노, 요가, 미술 등)
원도심	107명	86명	74명	43명	83명
	8.0%	6.4%	5.5%	3.2%	6.2%
신도심	48명	37명	43명	21명	42명
	8.0%	6.2%	7.2%	3.5%	7.0%
장애해당 (본인, 가족)	15명	15명	6명	8명	9명
	7.2%	7.2%	2.9%	3.8%	4.3%
장애 해당되지 않음	140명	108명	111명	56명	116명
	8.1%	6.2%	6.4%	3.2%	6.7%
전체	155명	123명	117명	64명	125명
	8.0%	6.3%	6.0%	3.3%	6.4%

<표37-2> 나 혹은 가족에게 필요한 프로그램

다음 페이지 표 이어짐.

	장애인 평생교육 (요리, 운동, 취미 강좌 등)	은퇴 및 노후 준비 교육	정보화교육 (키오스크, 스마트교육 등)	문해 교육 (한글 교실 등)	교육문화 강좌 (세계 건강체조, 노래교실 등)	일자리 연계 및 정보제공	여가·문화 활동 (나들이, 문화 공연 전시 등)
원도심	53명	72명	62명	40명	66명	112명	83명
	4.0%	5.4%	4.6%	3.0%	4.9%	8.4%	6.2%
신도심	33명	41명	25명	9명	21명	51명	28명
	5.5%	6.8%	4.2%	1.5%	3.5%	8.5%	4.7%
장애해당 (본인, 가족)	13명	8명	9명	4명	12명	19명	9명
	6.2%	3.8%	4.3%	1.9%	5.7%	9.1%	4.3%
장애 해당되지 않음	73명	105명	78명	45명	75명	144명	102명
	4.2%	6.1%	4.5%	2.6%	4.3%	8.3%	5.9%
전체	86명	113명	87명	49명	87명	163명	111명
	4.4%	5.8%	4.5%	2.5%	4.5%	8.4%	5.7%

<표37-3> 나 혹은 가족에게 필요한 프로그램

- ‘나’ 혹은 ‘가족’에게 필요한 프로그램(다중응답)에 대해 조사한 결과 1,940건의 응답이 도출되었다.
- 분석결과 ‘가족관계 증진 프로그램 (상담, 심리검사, 활동 등)’이 8.5%(165명)로 가장 높았다.
- 다음으로 ‘일자리 연계 및 정보제공’이 8.4%(163명), ‘여가·문화체험 활동 (공연 관람, 체험활동 등)’이 8%(155명), ‘교육문화 강좌’ 6.3%(123명), ‘진로 탐색교육’ 6%(117명) 순으로 조사되었다.
- 가장 적은 응답은 ‘문해 교육(한글 교실 등)’으로 49명이 응답하였다.
- 지역별로 분석해보면 원도심에서는 ‘가족관계 증진 프로그램 (상담, 심리검사, 활동 등)’이 8.9%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일자리 연계 및 정보제공’이 8.4%, ‘여가·문화 체험활동’ 8% 순으로 조사되었다. 신도심은 ‘일자리 연계 및 정보제공’이 8.5%로 가장 많았으며 ‘여가·문화 체험활동’ 8%, ‘가족관계 증진 프로그램 (상담, 심리검사, 활동 등)’ 7.7% 순으로 조사되었다.

나. 선택한 프로그램 개설시 참여 의향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	시간이 되면 참여하겠다	고려해 보겠다	바빠서 참여하기 어렵다	참여할 의향이 없다	χ^2	p
원도심	78명	194명	48명	28명	13명	6.232	0.182
	21.6%	53.7%	13.3%	7.8%	3.6%		
신도심	30명	97명	34명	10명	3명		
	17.2%	55.7%	19.5%	5.7%	1.7%		
장애해당 (본인, 가족)	20명	22명	15명	2명	-	17.42	0.002
	33.9%	37.3%	25.4%	3.4%	-		
장애 해당되지 않음	88명	269명	67명	36명	16명		
	18.5%	56.5%	14.1%	7.6%	3.4%		
전체	108명	291명	82명	38명	16명		
	20.2%	54.4%	15.3%	7.1%	3.0%		

<표38> 나 혹은 가족에게 필요한 프로그램

- 위 선택한 프로그램이 개설되면 참여할 의향이 있는지 묻는 문항에 54.4%(291명)가 ‘시간이 되면 참여하겠다’고 응답했다.
- 20.2%(108명)는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고 하였으며 ‘고려해 보겠다’는 82명 (15.3%), ‘바빠서 참여가 어렵거나 참여할 의향이 없다’는 54명(10.1%)으로 조사되었다.

다. 기타 복지관에서 운영했으면 하는 프로그램(주관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스피치, 독서 논술 - 장난감 대여 - 운동(체육) 프로그램 - 1인 여성을 위한 호신술 - 부모-자녀가 함께하는 체험활동 - 민간 자격증 과정 - 노인의 건강과 삶 교육 - 성인 스포츠 활동(탁구, 러닝, 테니스, 에어로빅 등) - 정기적인 플리마켓 - 교과목 지원 - 과학 체험 교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인 프로그램의 확장, 다양성 도모 - 스케이트, 스쿼시, 보드게임 등 - 평생학습, 취업 관련 자격증 - 바이올린, 기타 등 악기 - 중장년 자기개발 - 1-3세대 교류 활동 프로그램 -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 활동 - 의료(건강, 진료) 상담 - 원어민 영어수업 - 컴퓨터 활용 프로그램 - 정서적 심리상담
--	---



IV

-

결론 및 제언

1. 복지관 인지도와 이용 경험
2. 주민이 바라는 지역사회와 주민 활동의 필요성
3. 후원과 자원봉사
4. 나(가족)와 지역사회에 필요한 복지서비스
5. 나와 가족에게 필요한 여가·교육·문화 프로그램



1. 복지관 인지도와 이용 경험

가. 복지관 인지도

- 535명 중 복지관에 대해 알고 있는 응답자는 79.8%(427명)로 많은 인원이 복지관을 인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 세대별 응답을 살펴보면 차이를 보이는데, 이는 현재 복지관을 이용하고 있거나 온라인, SNS를 통해 소식을 접하는 세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중년(30~49세)의 응답이 89%로 가장 높은 것을 알 수 있는데, 자녀가 아동 프로그램을 수강 중이거나 복지관 체험프로그램, 행사 등 참여를 위해 SNS 채널을 이용하는 비중이 높았다.
- 청년의 경우 가장 낮은 응답(57.4%)을 보이는데 이는 단순히 하남시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한 관심이 아니라 복지시설이나 복지서비스에 대한 관심도라고 볼 수 있다. 실제로 복지관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청년의 수는 매우 적으며, 욕구조사 응답 비율에서도 가장 적은 편에 속한다.
- 도심지역별로 분석하면 신도심이 원도심 보다 많이 알고 있다. 이는 의미가 있는 분석값인데, 단순히 물리적·심리적 거리감이 인지에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 거주기간에 따른 인지도를 살펴보면 15년~20년 거주자가 가장 적은 74.6%로 나타났고 다음으로 20년 이상이 77.2%였음. 이는 하남시 거주기간과 복지관 인지도가 비례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유의미한 결괏값이라고 할 수 있다.
- 즉, '복지관이 가까울수록, 해당 지역에 오래 거주할수록, 정보 습득이 빠른 연령대일수록 복지관에 대해 더 알고 있을 것이다'라는 기본적인 인식을 벗어나 '복지관에 대한 관심이 복지관에 대한 인지를 만든다' 라는 전제조건이 필요하다.
- 위와 같은 조건으로 결과를 재분석하면 5년~15년 미만의 거주자의 복지관 인지도가 높은 이유는 '시기상 이들은 신도심이 개발되면서 유입된 인구로 추측할 수 있으며 하남시의 인구·사회적 특성상 중~장년에 위치하고, 자녀를 양육하는 세대이다. 따라서, 다른 세대에 비해 복지관 프로그램이나 행사(축제) 참여도가 높고 이를 영위하기 위해 복지관(사업)에 대한 정보 습득을 하고 있다고' 분석할 수 있다.

- 따라서, 앞으로 홍보나 복지관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활동을 수행할 때는 일방적인 정보제공, 복지관 소식을 전달하는 것보다는 ‘복지관에 관한 관심과 참여를 독려하는 콘텐츠’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복지시설과 서비스에 대한 참여를 높일 때 자연스럽게 복지관에 대한 인식과 브랜드 가치를 지닐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나. 복지관을 알게 된 경로

- 복지관을 알게 된 경로로 ‘직접 방문’이 40%로 가장 높은 응답을 받았으나, 중요한 것은 ‘어떠한 경로로 직접 방문을 하게 되었는가?’라는 조사 값이 제외되었다.
- 만약 세부적인 답변이 ‘인터넷을 검색 후 직접 방문하였다.’, ‘주변 지인이 추천해서 직접 방문하게 되었다’라는 사유라면 그 외 문항하고는 중복되는 값이 된다. 따라서, 2026년 설문 조사에서는 문항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 온라인 매체(인터넷 검색+SNS)를 통해 복지관을 방문하고 알게 된 경우도 많았지만 ‘관공서 및 타 기관의 소개’, ‘이웃의 소개’ 등 주변에서 이야기를 듣고 복지관을 인지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주민 단체, 캠페인 활동, 동 보장협의체 등 주민이 중심되는 조직과 연계하여 복지관을 안내하고 소개한다면 효율적인 홍보가 될 것으로 보인다.
- 또한, 관공서나 타 기관에서도 복지관에 대한 소식을 접할 수 있게 지면 홍보물을 비치하는 방안도 필요해 보인다.

다. 복지관 이용 경험과 이유

- 응답자 중 45.6%가 ‘현재 이용 중’이며 26.2%가 ‘지금은 이용하지 않는다’라고 응답했다. ‘지금은 이용하지 않는다’는 ‘이용한 적이 있다’라고 분석할 수 있기 때문에 한 번이라도 복지관을 이용한 응답자는 384명(71.8%)이라고 할 수 있다.
- 세대별로 살펴보면 중년의 79.5%, 어르신의 70.7%, 장년의 61.7%가 이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청년의 경우 40.7% 가장 낮았음. 이 값을 복지관 인지도에 대입하면 세대별 인지 여부와 유사한 값을 보인다.

- 복지관을 이용하는 주된 이유로는 ‘경제적 지원, 상담 등 복지서비스를 위해’가 36%로 가장 많아 종합사회복지관의 기본 기능 수행을 위한 이용도가 가장 많은 것을 알 수 있고 ‘교육, 프로그램 참여 비용이 저렴해서’라는 응답을 볼 때 사회교육 강좌의 비용도 시설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 이렇게 높은 응답 값을 보이는 주요 사유는 일반 주민의 복지관 이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값이기 때문에 추후 홍보의 주요 포인트로 활용하여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복지관 이용을 중단하거나 이용한 적이 없는 이유로는 ‘학교, 직장 등 일정으로 주중 방문이 어려워서’가 가장 많은 응답을 받음. 이는 학업이나 근로 활동으로 인한 불가피한 사유라고 할 수 있다.
- 그다음 ‘원하는 프로그램이나 교육강좌가 없어서’, ‘복지관에 대한 정보를 잘 몰라서’라는 대응이 필요한 결과다. 원하는 프로그램이나 강좌가 무엇인지를 다루는 깊이 있는 조사가 필요하며, 복지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홍보 전략 구축이 필요하다.
- 특히, 세대별로 살펴봤을 때 어르신의 51.4%가 ‘복지관에 대한 정보를 잘 몰라서’ 이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디지털 기기 활용이나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에게는 정보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정보의 불균형으로 누릴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영위하지 못하는 것은 큰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어르신의 복지관 인식을 높이기 위한 홍보나 캠페인 활동이 필요하다.

라. 복지관에서 운영 중인 SNS 채널 인지 여부

- 현재 기관에서 운영 중인 SNS(블로그, 유튜브,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카카오톡 채널)에 대한 인지 여부를 묻은 결과 ‘알고 있거나 인지하고 있는’ 경우가 55%로 조사되어 많은 응답자가 인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디지털 기기 활용이 능숙한 청년과 중년 세대에서 SNS를 모른다는 응답이 다소 많아 보완이 필요하다.
- SNS 채널에서 다루었으면 하는 정보에서는 ‘교육, 문화체험 등 프로그램 참여 안내’이 1순위,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정책과 제도 안내’가 2순위로 조사되었다.

- 이는, 일방적인 복지관 사업(프로그램) 활동 후기 공유가 아니라 실제로 일상 생활에서 누릴 수 있는 정보 선호도가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앞으로 SNS 채널은 현재 운영 전략처럼 정책과 제도 소개, 복지관 행사, 축제, 교육 등 참여프로그램 홍보에 더욱 집중할 것이다.

2. 지역주민이 바라는 지역사회와 활동의 필요성

가. 지역주민이 바라는 우리 사회

- 주민은 우리 지역사회에 어떠한 모습을 바라는지 묻는 조사에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 축제 등 여가·문화 생활을 영위하는 사회’가 32.1%가 가장 많았다. 이 응답을 통해 주민들은 하남시에서 직접 참여하고 체험하는 여가·문화생활 영위 장소 주민이 바라는 지역사회 역할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 ‘이웃 간 서로 도우며 살아가는 사회’와 ‘사회적으로 고립되거나 소외되는 이웃 없이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가 각각 2순위, 3순위라고 응답하였다. 이는 의미가 있는 결과라고 생각하는데, 최근 우리 지역사회는 ‘공동체 의식이 쇠퇴하고, 상부상조하던 마을의 개념이 무너졌다’라는 평가를 받지만, 그 속에서도 개인의 공동체와 관심은 존재한다고 분석할 수 있다.
- 따라서, 우리 복지관은 이러한 주민들의 인식을 복지사업과 서비스로 재개발하고 직·간접적인 참여로 이끌어야 할 필요가 있다.
-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세대별 특성에 따라 응답 결과가 달랐다. 주 양육세대인 중년의 경우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과 여가·문화생활 영위 및 아동의 기본권이 보장되는 사회를 바랐으며 어르신의 경우 사회적으로 고립되거나 소외되는 이웃 없이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원했다. 이와 같은 응답을 통해 세대별로 지역사회에 대한 인식이나 가치는 다르며, 복지관은 다양한 욕구를 포용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춰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 원도심과 신도심 모두 유사한 값을 보였다. 다만, ‘아동의 기본권 보장되는 사회’는 신도심에서 더 많은 비율을 차지했고, 원도심에서는 ‘나눔을 실천하는 사회’, ‘주민의 자발적 참여로 사회문제를 해결하거나 변화를 만드는 사회’ 응답이 더 높았다. 신도심의 경우 아동 인구가 많기 때문에 아동권 보장에 대한 욕구가 많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나눔 실천이나 주민 참여 욕구가 원도심이 더 높은 이유는 설블리 추측할 수 없으며 추후 세부적인 조사가 필요하다.

나. 지역사회 변화를 위한 주민의 역할과 활동의 필요성

- 앞서 말한 지역사회의 변화를 이루어 내기 위해 ‘주민의 역할과 활동이 필요한가’를 물었고, 86.5%가 ‘필요하다’라고 응답했다. 이 문항은 주민들의 공동체성도 엿볼 수 있는 질문이기 때문에 의미가 크다.
- 원도심에 거주하는 지역주민이 거주기간이 하남시 거주기간이 길기 때문에 정주감과 연관되어 필요성을 느낄 것으로 생각했으나 원도심보다 신도심이 약 2% 높은 수치를 보였다.
- 실제로 5년 미만 거주자의 필요성 인지는 95%로 가장 높았으며 15~20년 미만이 가장 낮았다. 이를 통해 하남시 거주기간이 지역사회 참여도에 영향을 주는 요소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 주민의 역할과 활동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72명의 응답자에게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이유’를 물은 결과 ‘바쁜 일상으로 참여할 사람이 없다고 생각해서’가 1순위였고 ‘주민의 역할이나 활동이 한정적일 수밖에 없어서’가 2순위로 조사되었다.
- 개인 일상으로 인한 부분을 논외로 친다면 ‘주민의 역할이 한정적일 수밖에 없어서’가 가장 높은 응답인데, 어떠한 점을 한정적으로 여기는지 구체적인 데이터가 필요하다.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해답이 있다면 사회참여 인식에 대한 벽을 허물 수 있을 것으로 본다.
- ‘공공기관이나 복지시설의 역할이 중요해서’, ‘주민 활동이 지역사회 변화에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아서’라는 응답에 대응하기 위해선 주민이 중심이 되는 활동도 우리 사회에 큰 영향을 준다는 메시지를 전달할 필요가 있다. 현재 우리 복지관에서 활동하고 있는 주민조직을 온라인 플랫폼, 소식지 등에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알리는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

다. 변화를 위해 필요한 주민 활동과 참여 의향

- ‘지역사회 변화를 위해 필요한 주민 활동은 무엇인지’ 묻는 문항으로 다중응답으로 구성했으며 986건의 응답이 나왔다.
- ‘이웃과 함께하는 지역축제&행사’가 198명(20.1%)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세대별로 고르게 분포되어 하남시민이 누구나 느끼는 보편적인 욕구라고 할 수 있다. 위 내용을 통해 복지관에서 수행 중인 ‘하남시민 행복 축제’ 사업의 필요성을 검토할 수 있었다.

- 다음으로 '자원봉사활동(주민 봉사단, 재능기부)'이 18.7%(184명), '공동체 의식 강화를 위한 캠페인 활동'이 10.4%(103명),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주민조직(모임)'이 10.3%(102명) 순으로 조사되었다. 지역사회의 변화를 위해 나눔 활동이나 주민이 중심이 활동이 필요하다고 인지하는 것은 긍정적인 의미이다. 이와 같은 인식을 활용하여 자원봉사활동과 주민조직화 기능을 확대하고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 다음으로 위와 같은 활동이 진행(개설)될 시 참여할 의향이 있는지를 묻는 문항에 65%(301명)가 '시간, 일정이 맞으면 참여하겠다', 88명(19%)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라고 응답하여 참여에 긍정적인 것을 알 수 있었다.
- 어르신과 중년의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 비율이 높아 참여율을 고려한다면 두 세대에 초점을 둘 필요가 있으며 모든 세대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선 시간이나 일정을 다양하게 두어 선택권을 확대해야 한다.

4. 나눔의 실천: 후원과 자원봉사

가. 자원봉사활동 경험

- 535명의 응답자에게 자원봉사활동 경험을 조사한 결과 '활동한 적이 없다'가 48.4%(259명)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과거에 활동했다'가 32.3%(173명), '시간이 될 때마다 활동한다'가 11.4%(61명)로 나타났다. 현재 정기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응답자는 7.9%(42명)로 가장 적었다.
- 위 결과를 살펴보면 '활동한 적이 없다'가 많다고 보일 수 있지만, 1회라도 활동한 시민이 52%를 넘는다. 활동한 적이 있는 것이 우위에 있다는 것은 긍정적인 측면이다.

나.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주된 이유

- 자원봉사활동 경험이 있는 276명의 응답자에게 봉사하는 이유를 묻자 30.1%가 '지역사회&이웃에 도움이 되고 싶어서'라고 응답했고, 2순위로 '활동에 보람을 느껴서'라고 응답했다. 두 응답은 대가를 바라는 활동이 아닌 개인의 자발적인 나눔 참여에서 발현하는 성취감으로 자원봉사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함양된 것을 알 수 있다.
- 특히, 어르신 세대에서 두 응답에 대한 분포가 높은 것을 알 수 있는데 은퇴 후 노년기에 사회참여를 지역사회와 이웃을 돕고 보람을 느끼며 자아실현을 이루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다. 자원봉사활동 경험이 없는 이유

- 자원봉사활동 경험이 없는 이유를 활용한다면 자원봉사자 개발을 위한 전략으로 활용할 수 있다. ‘자원봉사활동 경험이 없는 이유’를 물었을 때 43%가 ‘바쁜 일상 때문에’라고 응답하였다. 학업, 근로활동 등으로 인해 기관에 와서 자원봉사활동 하는 것이 어렵다면 우리는 비대면(오프라인)을 활용하고, 일상과 연결하는 봉사활동을 수행하면 된다. 조깅을 하며 쓰레기를 줍는 플로깅이나 재능기부가 사례가 될 수 있다.
- ‘참여하고 싶지만 방법을 모른다’라는 응답이 18.1%로 두 번째로 높은 응답으로 조사되었는데 이는 우리 복지관에서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의 필요성을 보여주는 응답이다. 온라인(홈페이지, SNS)은 물론 어르신이나 지역주민이 복지관 인근을 왔다 갔다 하면서도 자원봉사활동 정보를 알 수 있는 홍보계획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일회성(단순)부터 장기적인 활동까지 일감을 개발하여 수요에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
- ‘원하는 활동이 없어서’라는 응답도 8.5%로 나타났는데, 많은 비율은 아니지만, 활성화를 위해 충분히 고려할 만하다. 세대별로 하고 싶은 활동이 무엇인지, 어떠한 활동이 복지관과 지역사회에서 이루어졌으면 하는지 세부적인 내용을 파악한다면 인적자원 개발에 도움이 될 것이다.

라. 활동하고 싶은 자원봉사활동의 유형

- ‘참여하고 싶은 자원봉사활동’을 묻은 결과 ‘이웃과 함께 지역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거나 개선하는 활동’이 26.7%로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재능 나눔 활동(특기, 재능을 활용한 봉사활동)’이 119명(22.2%), ‘정서적 지원 활동(어르신 말벗, 청소년 멘토 활동 등)’이 113명(21.1%) 순으로 조사되었다.
- 우리 복지관에서 진행하고 있는 자원봉사활동은 위 응답을 어느 정도 충족시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자발적인 참여 의지를 지니거나 개인 역량(재능)을 활용하고 싶은 주민이 모인 ‘따뜻함을 나누는 봉사단’ 사업은 주민들의 재능과 역량, 관심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며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 이·미용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울서문교회의 아름답기 봉사단과 밑반찬 조리 활동을 하는 신장2동 새마을부녀회가 대표적이다.
- 또한,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한 스마트 멘토링, 주민동아리의 사회공헌 활동 등 욕구에 근거한 자원봉사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 위 욕구에 근거하여 우리 복지관은 재능기부&나눔 활동에 참여하고 싶은 조직(집단)을 개발하고 조직할 것이며 자발적 참여 의지와 활동 욕구에 따른 나눔 활동을 실천할 것이다.

3. 나눔의 실천: 후원과 자원봉사

가. 후원(기부)에 참여한 경험

- 535명의 응답자에게 후원(기부)에 참여한 경험 유무를 조사한 결과 ‘경험이 없다’가 전체 49.2%(263명)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정기적이진 않지만 후원해 본 적이 있다’가 35.7%(191명), ‘현재 정기적으로 후원하고 있다’가 15.1%(81명) 순으로 나타났다.
- 위 결과로 보아 후원에 경험이 있는 응답자와 없는 응답자의 비율이 비슷한 결과값으로 도출되었다. 후원에 참여한 경험 유무만으로는 참여자의 태도나 행동을 설명하기 어려우나, 이를 통해 후원자와 비후원자를 보다 세분화해 각각에 맞는 맞춤형 접근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향후 후원 활성화의 방향이 될 것으로 파악된다.

나. 후원을 통해 기대하는 변화

- ‘도움받는 이웃의 행복’이 46%(125명)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냈고 다음으로 ‘지역사회의 복지증진’(23.5%)과 ‘개인적인 행복감’(22.8%)이 비슷한 비율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점이 타인에 대한 이로움이 후원을 하는 가장 큰 이유이긴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개인의 이로움도 상당부분 차지하는 것을 보아 후원은 자신과 타인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행위임이 파악된다.
- 위 결과를 바탕으로 참여자가 직접 기여하고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구조로 후원 사업을 계획한다면 자신과 타인 모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다. 후원처에 대한 정보 습득

- ‘관련 시설이나 기관에서 진행하는 홍보물’이 32.7%(89명)로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그다음으로 인터넷(29.8%), SNS(18.8%) 순인데 이는 일반적인 상황보다 불특정상황이나 이벤트 상황에 후원자들이 관심을 보이는 것으로

파악되며, 인터넷 등을 쉽게 접할 수 없는 연령대나 직업군의 경우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런 분석결과가 나온 것으로 파악된다. 따라서, 오프라인 홍보와 온라인 채널을 균형 있게 활용하고, 상황별 맞춤형 콘텐츠를 제작하여 효과적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다.

라. 지역사회와 주민에게 필요한 후원금·품의 유형

- 생활비(34.8%), 식료품(30.3%) 순으로 분석이 되었다. 현실적으로 생활함에 가장 필요한 생활비와 식료품이 가장 높게 나온 것으로 보아 후원금에 사용이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분야에 지원됨을 원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이는 원도심과 신도심 및 세대별 조사에도 동일하게 조사되었다.

4. 나와 지역사회에 필요한 복지서비스

가. 우리 사회에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대상(다중응답)

- 우리 지역사회에서 우선적으로 지원이 필요하거나 관심이 필요한 대상을 다중응답으로 조사한 결과(응답 건수 1,333)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취약계층’이 20.9%(278명)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이는 단순한 빈곤 문제를 넘어 소득 불균형과 사회적 격차에 대한 관심이 반영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실제로 저소득층과 차상위 계층의 61%, 수급자의 73.5%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응답한 반면, 일반 가구는 15.2%만이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고 답했다. 이는 저소득 취약계층이 다른 계층에 비해 훨씬 큰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보여주며, 이들에 대한 복지 지원의 필요성이 크다는 점을 시사한다. 따라서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복지 지원을 확대하고,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여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 다음으로 ‘노인’(19.7%), ‘아동·청소년’(18.8%) 순으로 높은 응답률을 보였으며, 세대별로 상이한 요구가 드러나 각 세대가 직면한 문제를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었다. 특히, 어르신의 경우 ‘노인’ 응답이 가장 높았으며, 아동을 양육하는 중년층에서는 ‘아동·청소년’ 응답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세대별로 필요로 하는 복지 지원이 다름을 보여주며, 이에 맞춘 대응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 ‘노인’ 응답 비율이 19.7%로 높게 나타난 것은 하남시의 고령화 및 노인 빈곤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음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어르신들이 ‘노인’을 가장 필요한 지원 대상으로 꼽은 것은 본인들이 직접 겪고 있는 어려움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응답자 전체의 71.2%가 본인 또는 가족이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다고 응답한 반면, 어르신 응답자의 50.5%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답해 노년층의 생활 여건이 다른 세대에 비해 더 취약함을 보여주었다. 또한, 어르신들이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한 지원 유형은 현금 지원(12.2%), 현물지원 및 식생활 지원(11.6%), 건강지원(10.5%)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하면, 노인 세대는 경제적 빈곤뿐만 아니라 식생활과 건강 관리에서도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생계비 및 생필품 지원, 식료품 지원, 의료·건강 관리 서비스 강화 등의 맞춤형 프로그램을 통해 노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생활 안정성을 높일 수 있다.
- ‘아동·청소년’에 대한 전체 응답 비율은 18.8%였으며, 중년층에서 23.8%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는 중년층이 아동을 양육하는 세대이기 때문에, 아동·청소년의 복지 문제에 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높음을 시사한다. 아동·청소년이 겪고 있는 문제는 교육 격차, 돌봄 공백, 정서적 불안정 등 다양한 측면에서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저소득층 아동·청소년의 경우 가정 내 경제적 어려움이 교육 및 진로 선택에 큰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다 세밀하고 맞춤형 접근이 필요하다. 따라서 저소득층 아동·청소년을 위한 학습 지원, 정서적 지원, 멘토링, 장학금 지원 등의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프로그램을 통해 아동·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성장하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 마지막으로 ‘1인 가구’가 17.3%로 상당한 응답 비율을 차지해 1인 가구에 대한 개입도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1인 가구 내에서도 고령층과 청년층이 직면하는 문제는 서로 다른 양상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반영한 맞춤형 지원이 필수적이다. 고령층 1인 가구는 경제적 어려움 외에도 신체적, 정신적 고립 문제를 동시에 겪고 있다. 따라서 고령층 1인 가구를 위한 돌봄 서비스 강화, 정서적 지원 프로그램, 사회적 관계망 형성을 위한 커뮤니티 활동 지원이 중요하다. 이러한 지원은 고령층이 사회에서 안전하고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또한, 청년층 1인 가구는 주거 불안정, 취업 문제 등 경제적 어려움 외에도, 독립적인 생활을 유지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식사 준비의 어려움으로 인해

패스트푸드나 배달 음식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는 균형 잡힌 영양 섭취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또한, 기본적인 조리 능력 부족은 식비 부담을 증가시킬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경제적 어려움과 연결될 수 있다. 이에 조리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자립적인 생활 능력을 높이고, 고립감을 해소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각 세대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하고, 고령층, 아동·청소년, 1인 가구의 특수한 요구를 충족할 수 있는 다양한 복지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지속적인 데이터 분석을 통해 복지 수요의 변화를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보다 효과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나. 주민이 기대하는 하남시종합사회복지관의 역할

- 지역주민이 기대하는 하남시종합사회복지관의 역할을 다중응답으로 조사한 결과(응답 건수 1,317)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이 21.2%(279명)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 다음으로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이웃을 발굴하여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이 17.9%(236명), ‘지역주민의 심리·정서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상담 및 치료, 정서 지원을 제공’이 13.5%(178명) 순으로 나타났다.
- 위와 같은 응답은 지역주민이 생각하는 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한 보편적인 인식이자 기능이라고 할 수 있으며, 복지사각지대에 대한 인식과 지원의 중요성은 점차 커지고 있다. 이에 사례관리사업 및 지역사회보호 통합지원사업을 더욱 활성화하여 경제적 지원과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더욱 체계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
- 또한, ‘3-가 지역주민이 바라는 우리 사회’에서는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 축제 등 여가·문화 생활을 영위하는 사회’가 가장 많은 응답을 보였는데, 이 문항에서 ‘지역사회와 이웃을 위해 자발적인 나눔을 실천하는 사회’는 두 번째로 낮은 응답을 보였다. 이 응답 역시 복지관은 주체적으로 지역사회 변화를 만드는 존재가 아니라 복지서비스 제공을 우선해야 한다는 일반적인 인식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결과는 지역주민들이 개인의 삶의 질 향상(여가·문화)에 대한 욕구가 크지만, 공동체적 가치인 ‘자발적 나눔’에 대한 관심이나 필요성은 상대적으로 낮다는 점을 보여준다. 따라서 복지관의 역할은

단순히 경제적 지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역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나눔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확장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사이사이사업 이웃사이지킴이’ 활동을 통해 지역주민들이 일상에서 나눔 활동에 자연스럽게 참여하고, 마을공동체 의식을 느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법이 있다. 이를 통해 지역주민들은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하는데도 동참할 수 있으며, 이로써 지역사회 내 사회적 안전망이 형성될 것이다.

- 마지막으로, 복지관은 기존의 보호·서비스 제공 기능을 강화하는 동시에 지역사회 변화에 기여하는 역할로 기능을 확장할 필요가 있다. 복지관의 서비스를 통합적이고 다양한 방식으로 제공함으로써,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내 활력과 연대감을 증진시킬 수 있을 것이며, 지역주민들의 참여와 협력을 통한 지속 가능한 지역사회의 발전을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 나 혹은 가족 구성원이 겪고 있는 문제와 어려움, 필요한 서비스

- 6개의 범주(경제, 식생활, 건강/의료, 정서/관계, 주거환경, 일상생활)로 나 혹은 가족 구성원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물어본 결과(응답 건수 535) 응답자의 29.9%(160명)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연령이 높을수록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응답이 많았는데 이는 노년기의 특성인 신체기능 저하에 따른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원도심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응답(33.5%)이 많았는데 이는 2024년 원도심 노령인구 비율이 15.3%(50,251명)를 달성하여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한 것과 연관이 있다고 분석할 수 있다.
- 따라서 사업의 필요성을 검토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령계층을 포함한 원도심 지역주민을 위해 ‘사람과 사람 사이를 잇다 사이사이’, ‘하남 먹거리’, ‘고스톱 프로젝트’ 등 욕구에 맞춘 서비스 제공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
- 또한, 경제적 보호에 따라 어려움이 높은 것은 당연하나, 일반(해당 없음)에서도 15%라는 응답이 나왔다. 이들은 ‘복지사각지대’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에게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 나와 가족에게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다중응답으로 물은 결과 641건의 응답이 도출되었다. ‘현금 지원(생계비, 교육비, 주거비, 냉난방비 등)’이 17.9%(115명 응답)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으며 다음으로 ‘현물 지원(식품(김치, 쌀 등), 생필품, 전자제품 등)’이 12.2%(78명), ‘본인 혹은 가족의 건강 지원(건강검진, 의료비, 기기 등)’이 11.1%(71명) 순으로 나타났다.

-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어르신의 경우 ‘현금 지원’에 대한 응답이 12.2%(36명)로 가장 많았으며 ‘현물지원’과 ‘식생활 지원’ 각 11.6%(34명), ‘본인 혹은 가족의 건강지원’ 10.5%(31명) 순으로 나타났다. 장년과 중년 또한 ‘현금 지원’이 가장 많았으며 ‘현물지원’, ‘본인 혹은 가족의 건강지원’ 순으로 조사되었다. 청년도 장년, 중년과 동일한 욕구를 보였으나 응답자가 1명에 그쳐 유의미한 값이라고 볼 수 없다. 이와 같은 응답을 통해 세대별 상관없이 ‘현금 지원’이 가장 필요한 복지서비스라는 것을 알 수 있다.
- 그 외 지역, 경제적 보호 구분, 장애 여부에 따른 결괏값 역시 전체 분석과 동일 수치와 비율을 보이기에, 지역주민들의 욕구에 초점을 두고 필요로 하는 복지서비스를 소개하고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라. 어려움이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응답한 137명의 응답자에게 ‘어려움이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다중응답으로 물은 결과 ‘공공기관이나 복지시설을 이용한다’가 30.8%(73명)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다음으로 ‘혼자서 해결하거나 참는다’가 25.7%(61명), ‘가족, 친지에게 도움을 요청한다’가 19.8%(47명) 순으로 나타났다.
- 응답자의 30% 이상이 공공기관이나 복지시설을 통해 문제를 해결한다고 응답했지만, "혼자서 해결하거나 참는다"와 "도움을 요청할 곳이 없다"라는 응답 비율의 합이 45%가 넘게 나타났다. 이는 대부분의 주민들이 어려움을 겪을 때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을 방법이나 이를 요청할 곳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복지관이나 공공시설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거나 접근성이 비교적 낮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복지관의 다양한 기능과 서비스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지역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도움을 복지관에서 제공받을 수 있다는 점을 인식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 또한, 연령대별로 분석한 결과, 중장년층에서는 "혼자서 해결하거나 참는다"와 "도움을 요청할 곳이 없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다른 세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는 직장 및 양육 등 바쁜 일상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복지서비스나 문제 해결을 위한 정보를 수집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다. 중장년층이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접근성을 높일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마. 문제 발생 시 복지관 이용 여부와 기대하는 변화

- 응답자 전원에게 향후 혹은 현재의 어려움이나 문제 해결을 위해 복지관을 이용할 것인지 물어본 결과 405명이 '복지관을 이용한다', 130명이 '이용하지 않는다'라고 응답했다.
- 연령대별 분석한 결과 청년층의 경우 '이용하지 않는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48.1%로 높게 나타났다. 이는 응답한 표본이 적게 나타나 오차가 있을 수 있지만, 청년층의 특성상 개인주의적인 성향과 자립, 독립성이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청년층은 어려움이나 문제 상황에 직면했을 때, 복지관보다는 다양한 매체나 온라인 리소스를 통해 스스로 해결책을 찾으려는 경향이 있으며,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복지관 이용에 대한 필요성을 상대적으로 덜 느끼고, 자율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성향이 더 강하게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복지관을 이용하는 수단을 시·공간적으로 국한하지 않고 다양한 온라인 매체들을 활용하여 복지관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 복지관 이용을 통해 바라는 변화를 조사한 결과 '현물, 현금 지원을 통한 경제적 어려움 완화'에 21.7%(203명)가 응답하여 가장 많은 비율을 보였다. 다음으로 '건강 교육, 의료비 지원 등을 통한 신체적 건강증진, 기능향상'이 2순위(20.9%, 195명 응답), 3순위는 '밀반찬, 먹거리 지원, 조리 교육을 통한 식생활 영위'(18.2%, 170명 응답)로 조사되었다. 가장 적은 응답은 '주거환경 개선을 통한 생활 만족도 향상'으로 11.1%(104명)의 응답을 보였다.
- 모든 연령대와 보호구분에 관계없이 전반적으로 '현물, 현금 지원을 통한 경제적 어려움 완화'에 대한 욕구가 높게 나타났다. 이는 지역주민들의 어려움이나 문제의 대부분이 경제적 어려움에서 기인한다는 해석을 가능하게 한다. 따라서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는 경제적 어려움이라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데 초점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각 상황과 대상에게 맞는 적절한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주민들의 실질적인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
- 청년층의 경우 '일상생활 회복 및 삶의 질 향상'에 대한 응답 비율이 21.7%로 다른 연령대에 비해 유독 높게 나타났다. 이는 청년들이 겪고 있는 취업난과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한 스트레스와 불안이 극심하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어려움은 청년들의 삶의 만족도에 큰 영향을 미쳐 일상생활을 회복하거나 삶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욕구가 다른 연령대보다 상대적으로 더 강하게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다.

5. 나와 가족에게 필요한 여가·교육·문화 프로그램

가. 나 혹은 가족에게 필요한 프로그램

- 지역주민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프로그램은 ‘가족관계 증진 프로그램(상담, 심리검사, 활동 등)’에 대한 수요가 8.5%(165명)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는 현대 사회에서 가족 구성원 간의 소통 부족과 정서적 거리감이 커지고 있음을 의미할 수 있다. 맞벌이 가구 증가로 인해 가족 간 대화 시간이 감소하면서 특히 부모와 자녀 간 대화 단절이 문제가 되어 관계 회복을 위한 프로그램이 요구된다. 또한, 노인 인구가 증가하면서 부양, 독립한 성인 자녀와 부모 간 소통 문제 등이 새로운 갈등 요소로 등장하여 자녀 세대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관계 개선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본다.
- 이에 심리검사 및 상담을 기반으로 맞춤형 가족 소통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부모와 자녀, 부부, 형제자매 등 다양한 관계 개선을 위한 소통 훈련과 원활한 대화를 위한 교육 등 심층적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
- 다음으로 ‘여가·문화 체험활동’(공연 관람, 체험활동 등)이 8%(155명)로 높게 나타났다. 단순한 경제적 지원을 넘어 문화생활과 취미 활동을 통한 정서적 안정 및 삶의 질 향상에 대한 욕구가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앞서 ‘지역 주민이 바라는 지역사회를 조사한 결과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 축제(행사) 등 여가·문화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사회’가 32.1%(172명)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중년의 경우 40.6%(115명)로 특히 높은 응답률을 나타냈다. 기존 복지관의 가족문화·체험행사는 연 4회 진행으로 위 응답을 어느 정도 충족시키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주로 아동·노인을 대상으로 진행되고 있어 중년의 욕구에 부합하는 프로그램 기획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이다.
- 또한, 변화를 위해 필요한 주민 활동 문항 조사 결과 ‘이웃과 함께하는 지역 축제&행사’가 20.1%(198명)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어 지역주민들이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프로그램 참여에 대한 욕구가 있음을 분석할 수 있다. 지역주민의 욕구 해소 및 지역사회 유대감 강화 등을 위해 다양한 연령대의 주민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행사 기획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세대별 특성, 차이 등을 반영하여 모든 연령대가 함께 어우러질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 다음으로 ‘교육문화 강좌’ 6.3%(123명)로 나타났다. 이에 대한 높은 수요는 평생 학습 사회에서 지속적인 학습과 자기 계발에 대한 꾸준한 욕구가 존재함에 따라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고, 개인의 역량을 강화하고자 하는

높은 관심으로 나타났다.

- 이에 대한 수요자 중심의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설문 조사 등을 통해 변화하는 지역주민의 교육문화 강좌의 수요를 파악하고 이를 반영하여 프로그램이 제공되어야 한다. 아동, 성인, 어르신 등 대상별 특성과 요구를 반영한 교육 과정을 개발해 수준별로 체계적인 학습 단계를 제공하여 수요자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이 설계되어야 한다.

나. 선택한 프로그램 개설(진행)시 참여 의향

- 선택한 프로그램 개설 시 참여할 의향이 있는지 묻는 문항에서 ‘시간이 되면 참여하겠다’가 54.4%(291명)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는 프로그램에 대한 긍정적인 관심은 있지만, 시간적 여유가 가장 큰 참여 결정 요인임을 시사한다. 이에 참여자들의 시간적 제약을 고려한 유연한 운영 방식을 도입하여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
- 다음으로는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가 20.2%(108명)로 나타났다. 이는 프로그램에 대한 높은 기대와 참여 의사를 가진 지역주민들을 의미한다. 적극적인 참여 의향을 보인 응답자들이 필요로 하는 프로그램을 파악하여 맞춤형 프로그램 및 홍보 전략을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
- ‘바빠서 참여가 어렵거나 참여할 의향이 없다.’는 10.1%(54명)로 나타났다. 이는 시간적 제약과 참여에 대한 부담을 느끼고 프로그램의 필요성을 충분히 느끼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시간적 여유가 없는 참여자들을 위해 온라인 프로그램, 단기 프로그램, 주말 프로그램 등 프로그램의 내용, 방식 등을 개선하고 다양한 방법을 통해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 기타 복지관에서 운영했으면 하는 프로그램

- 부모-자녀가 함께하는 체험활동: 하남시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가족관계 증진을 도모하고자 부모 교육 및 가족체험행사 등의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다만, 부모-자녀가 함께 참여하는 것이 아닌 구분된 연령대로 사업이 운영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를 한계점으로 볼 수 있다. 부모 교육 시 역량 강화 및 양육 기술 향상뿐만 아니라 자녀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여 부모-자녀 간 이해, 소통을 증진시키고, 함께 참여하여 욕구를 해소할 수 있는 체험행사의 확대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성인 프로그램의 확장 및 다양성: 다양한 연령층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에 대한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성인들이 자기 개발, 취미 활동, 건강 관리 등 관심사를 반영한 프로그램을 확장할 필요가 있다.

- 노인의 건강과 삶 교육: 노인 인구 증가와 함께 건강한 노년 생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건강 교육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에 운동, 영양 관리, 정신 건강 등 다양한 주제의 건강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할 필요가 있으며 교육을 통해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고, 여가 활동을 즐기는 등 건강한 노년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V

-

부 록

2024 지역주민 욕구조사 설문지



응답자의 일반현황

성별	① 남	② 여	장애 여부 (본인 혹은 가족 구성원)		□	
연령	① 19세 미만	② 20~29세	③ 30~39세	④ 40~49세		
	⑤ 50~59세	⑥ 60~64세	⑦ 65~69세	⑧ 70세 이상		
거주지역	① 신장1동	② 신장2동	③ 덕풍1동	④ 덕풍2동	⑤ 덕풍3동	⑥ 미사1동
	⑦ 미사2동	⑧ 미사3동	⑨ 위례동	⑩ 감일동	⑪ 천현동	⑫ 감북동
	⑬ 초이동	⑭ 춘궁동				
혼인 여부	① 미혼		② 기혼		③ 기타: 이혼, 사별 등	
가족 구성 (현재 동거 중인 가정)	① 부부	② 부부+자녀	③ 부모+부부	④ 조부모+부모+ 자녀	⑤ 한부모 가정	
	⑥ 조부모 가정		⑦ 1인 가구			
가구원 수 (현재 동거 중인 가정)	① 1명(1인 가구)	② 2명	③ 3명	④ 4명	⑤ 5명 이상	
보호 구분	① 해당 없음		② 저소득	③ 차상위	④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경제활동	① 외벌이		② 맞벌이		③ 해당 없음	
하남시 거주기간	① 5년 미만		② 5년~10년 미만	③ 10년~15년 미만	④ 15년~20년 미만	⑤ 20년 이상

지역사회와 주민 활동

6. 귀하가 바라는 지역사회는 어떠한 모습인가요?

- ① 이웃 간 서로 도우며 살아가는 사회
- ② 아동의 기본권(생존, 보호, 발달, 참여)이 보장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사회
- ③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 축제(행사) 등 여가·문화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사회
- ④ 지역사회와 주변 이웃을 위해 자발적인 나눔을 실천하는 사회
- ⑤ 주민이 지역사회에 관심을 갖고 자발적으로 사회문제를 해결하거나 변화를 만드는 사회
- ⑥ 사회적으로 고립되거나 소외되는 이웃 없이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
- ⑦ 기타: 직접 작성

7. 귀하가 바라는 지역사회를 위해 주민의 역할과 활동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 ① 필요하다. (☞8번 문항으로)
- ② 필요하지 않다. (☞9번 문항으로)

8. (필요하다면) 변화를 위해 필요한 주민 활동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해당하는 것을 모두 선택해 주세요 / (☞응답 후 10번 문항으로)

- ①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주민조직(모임)
- ② 자원봉사활동(주민 봉사단, 재능기부)
- ③ 공동체 의식 강화를 위한 캠페인 활동
- ④ 공통의 목적, 관심사를 중심으로 활동하는 주민조직(모임)
- ⑤ 이웃과 함께하는 지역축제&행사
- ⑥ 주민 욕구 수렴을 위한 공청회
- ⑦ 주민모임(동아리, 자조모임) 활성화
- ⑧ 공동체와 관련된 교육 지원
- ⑨ 지역의회의 긍정적인 변화를 만드는 주민 조직(모임)
- ⑩ 기타: 직접 작성

나눔의 실천: 후원과 자원봉사

12. 귀하는 자원봉사활동 경험이 있으신가요?

- ① 현재 정기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② 시간이 될 때마다 활동한다
- ③ 과거에 활동했다 ④ 활동한 적이 없다 (☞14번 문항으로)

13. (활동 경험이 있다면)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주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 ① 자원봉사시간을 채우기 위해
(학교 의무시간, 실업급여 조건 충족 등) ② 진학, 취업 등 경력에 필요한 경험을 쌓기 위해
- ③ 자원봉사활동에 보람을 느껴서 ④ 여가를 의미 있게 보내기 위해
- ⑤ 지역사회와 이웃에게 도움이 되고 싶어서 ⑥ 주변(지인, 회사 등)의 권유로
- ⑦ 기타: 직접 작성

14. (자원봉사활동을 한 적이 없다면) 이유는 무엇인가요?

- ① 교내 활동으로도 시간이 충분해서 ② 바쁜 일상(학업, 업무 등) 때문에
- ③ 보람을 느끼지 못해서 ④ 참여하고 싶지만, 방법을 몰라서
- ⑤ 원하는 활동이 없어서 ⑥ 자원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 곳이 없어서
- ⑦ 건강, 질병 등으로 인해 활동이 어려워서 ⑧ 기타: 직접 작성

15.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신다면 어떤 활동을 하고 싶나요?

- ① 재능 나눔 활동(특기, 재능을 활용한 봉사활동)
- ② 복지관 행정업무 보조(서류정리, 복사, 간단한 문서작성 등)
- ③ 정서적 지원활동(어르신 말벗, 청소년 멘토 활동 등)
- ④ 교육봉사활동(어르신 스마트기기, 아동·청소년 학업지원 등)
- ⑤ 이웃과 함께 지역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거나 개선하는 활동
- ⑥ 기타: 직접 작성

16. 귀하는 후원(기부)에 참여하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 ① 현재 정기적으로 후원하고 있다 ② 정기적이진 않지만 후원해본 적이 있다
- ③ 경험이 없다 (☞19번 문항으로)

17. (후원을 하고 계신다면) 후원을 통해 기대하는 변화는 무엇인가요?

- ① 개인적인 행복감 ② 종교적 신념 증대
- ③ 도움받는 이웃의 행복 ④ 지역사회의 복지증진
- ⑤ 기타: 직접 작성

18. 후원처에 대한 정보는 주로 어디서 얻으시나요?

- ① 인터넷 ② SNS(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
- ③ 가족, 주변 지인 ④ 관련시설이나 기관에서 진행되는 홍보물
- ⑤ 기타: 직접 작성

19. 지역사회와 주민에게 필요한 후원금(혹은 후원품)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 ① 식료품 ② 의류 ③ 의약품
- ④ 교육비 ⑤ 주거비 ⑥ 생활비
- ⑦ 기타: 직접 작성

나와 지역사회에 필요한 복지서비스(프로그램)

20. 우리 사회에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대상은 누구라고 생각하시나요?
해당하는 대상을 모두 선택해주세요
- ① 아동, 청소년
 - ② 청·장년
 - ③ 노인
 - ④ 장애인 혹은 장애인 돌봄 가정
 - ⑤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취약계층
 - ⑥ 1인 가구(독거노인, 사회적고립가구 등)
 - ⑦ 기타: 직접 작성
21. 귀하가 기대하는 하남시종합사회복지관의 역할은 무엇인가요? 모두 선택해 주세요
- 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
 - ② 지역주민의 평생학습을 위해 교육문화 강좌를 제공
 - ③ 지역주민의 심리·정서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상담 및 치료, 정서 지원을 제공
 - ④ 주민 교류 활성화를 위해 동아리나 친목·자조 모임을 지원
 - ⑤ 주민의 여가 생활을 위해 지역사회 행사와 축제를 주최
 - ⑥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이웃을 발굴하여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
 - ⑦ 주민과 연대하며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어내는 역할
 - ⑧ 자원봉사활동, 후원(기부) 등 나눔 참여와 문화를 만드는 역할
 - ⑨ 기타: 직접 작성

22. 귀하 혹은 귀하의 가족 구성원은 아래 유형에 해당하는 문제나 어려움을 겪고 있나요?

유형	경제	식생활	건강/의료	정서/관계	주거환경	일상생활
	① 어려움을 겪고 있다. (☞23번 문항으로)		② 겪고 있지 않다. (☞27번 문항으로)			

23.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귀하와 가족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표시해주세요

유형		필요함	필요하지 않음
경제	현물 지원(식료품(감치, 쌀 등), 생필품, 전자제품 등)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현금 지원(생계비, 교육비, 주거비, 냉난방비 등)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식생활	식생활 지원(도시락·밑반찬, 먹거리 등)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조리 교육 지원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건강/ 의료	본인 혹은 가족의 건강 지원(건강검진, 의료비, 기기 등)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건강증진 관련 교육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정서/ 관계	대인관계(친구, 이웃 등) 형성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가족관계(부모, 자녀, 형제 등) 개선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기타 정서 및 관계 지원(심리치료, 심리상담 등)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주거 환경	주거보수(도배, 소모품 교체, 집수리 등)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환경개선(해충방제, 정리수납, 구조 변경 등)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노후 가전, 가구 교체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일상 생활	이미용 등 위생지원 서비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신문 배달 서비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기타 의견 작성란)			

24. 귀하는 어려움이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시나요? 해당하는 것을 모두 선택해 주세요

- ① 공공기관이나 복지시설을 이용한다.
- ② 이웃이나 친구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 ③ 가족, 친지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 ④ 종교단체의 도움을 받는다.
- ⑤ 혼자서 해결하거나 참는다.
- ⑥ 도움을 요청할 곳이 없다.
- ⑦ 기타: 직접 작성

25. 어려움이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복지관을 이용할 의향이 있으신가요?

- ① 있다.(☞26번 문항으로)
- ② 없다.(☞27번 문항으로)

26. (이용한다면) 복지관 이용을 통해 바라는 변화는 무엇인가요?
해당하는 것을 모두 선택해 주세요

- ① 현물, 현금 지원을 통한 경제적 어려움 완화
- ② 밑반찬·먹거리 지원, 조리 교육을 통한 건강한 식생활 영위
- ③ 건강교육, 의료비 지원 등을 통한 신체적 건강증진, 기능향상
- ④ 정서 지원 및 이웃 간 관계 형성을 통한 외로움, 고독감 완화
- ⑤ 주거 환경개선을 통한 생활 만족도 향상
- ⑥ 일상생활 회복 및 삶의 질 향상
- ⑦ 기타: 직접 작성

나와 가족에게 필요한 여가·교육·문화 프로그램

27. 아래 문항을 살펴보고 ‘나’ 혹은 ‘가족’에게 해당하는 프로그램이 있다면 필요 여부를 체크주세요

유형		필요함	필요하지 않음
가족	가족관계 증진 프로그램 (상담, 심리검사, 활동 등)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육아·양육 관련 부모 교육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아동·청소년 재활치료 서비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1인 가구	일상생활 관련 교육 (정리수납, 요리, 안전 등)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정서 지원, 사회적 관계 형성 프로그램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사회성 증진 활동 (권리증진, 방학, 사회성 놀이 등)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여가·문화체험 활동 (공연 관람, 체험활동 등)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아동 청소년	교육문화 강좌 (피아노, 미술, 코딩 등)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진로 탐색교육(직업 교육, 멘토링, 학습지원 등)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나눔교육(자원봉사, 나눔학교 등)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성인	교육문화 강좌 (피아노, 요가, 미술 등)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장애인 평생교육사업(요리, 운동, 취미 강좌 등)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중장년	은퇴 및 노후 준비 교육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정보화 교육 (키오스크, 스마트 교육 등)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문해교육 (한글교실 등)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어르신	교육문화 강좌(서예, 건강 체조, 노래교실 등)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일자리 연계 및 정보제공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여가·문화 활동 (나들이, 문화공연, 잔치 등)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기타 의견 작성란)			

28. 귀하가 선택하신 프로그램에 참여할 의사가 있습니까?

- ①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 ② 시간이 되면 참여하겠다. ③ 고려해보겠다.
④ 바빠서 참여하기 어렵다. ⑤ 참여할 의향이 없다.

29. 귀하의 자녀가 19세 미만인 경우 연령대를 선택해주세요

- ① 영·유아(0세~7세) ② 초등학생(8세~13세) ③ 중·고등학생(14세~19세)

30. 위 프로그램외에 복지관에서 운영 했으면 하는 프로그램이 있다면 적어주세요.

설문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발행일	2025. 2.
발행인	김혜성
발행처	하남시종합사회복지관
주소	경기도 하남시 덕풍천서로 9(신장동)
전화	031) 790-2900
팩스	031) 796-2935
홈페이지	www.holthanam.or.kr

사회복지법인 윙즈아동복지회
H@LT **하남시종합사회복지관**

